현대불교신문·아름다운동행 공동 캠페인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해주세요.
후원계좌 농협 301-0316-6816-71
(예금주 : 아름다운동행)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26호 hyunbulnews.com (불기 2567년 음력 2월 17일) 2023년 3월 8일 수요일



홍매화 봄 기별

기별이 왔다. 저만치 봄이 오고 있다고 통도사 홍매화가 먼저 와 기별한다. 경칩을 앞둔 3월 2일 영각 앞에 선 홍매화가 활짝 피었다. 봄, 설레는 이름을 붉은 꽃잎에 매달고 힘겨운 오늘을 위로한다. 따뜻한 봄이 또 오고 있다고, 저만치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다고, 내일은 다른 하루가 될 거라고, 붉게 기별한다.

글=박재완 기자 · 사진=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영축산서 '법화경' 가르침 이어가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印영축산서 기도법회

인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처님 당시 장엄함 뒤로
한걸음씩 환희의 발걸음
영축산 향실서 전법 다짐
〈법화경〉 낭독, 축원 진행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2월 25일 영축산에 올랐다. 영축산 향실에서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순례단이 예불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부처님께서 영축산 설법단에 오르시자 1250 비구승가가 자리를 잡았다. 천상의 보살과 신장들까지 내려와 모여 들었으니 그야말로 장엄함을 이뤘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영축산은 신령함과 장엄함으로 불전에 전해진다. 수없이 많음을 의미하는 1250명으로 묘사된 비구스님의 수만 하더라도 그 당시의 장엄함이 느껴진다. 수많은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셨다고 말하는 그곳에 순례단이 당도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회주 자승)이 2월 25일 법왕의 도시라 불렸던 마가다국의 수도 라지기르에서 불교 중흥을 위한 전법 포교를 다짐, 또 다짐했다.

이날 순례단의 행선은 조금 일찍 시작됐다. 순례단 개개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도량석 이후에 움직여달라는 회주 자승 스님의 말이 있었지만, 이날만큼은 모두 서둘러 행선 준비를 마쳤다. 그 이유는 이날 행선의 목적지가 부처님께서 본격적으로 법을 펼치신 영축산을 비롯해 교단이 일어난 최초의 도량 죽림정사 등이었기 때문이다.

20여 km를 걸은 상태였지만 순례단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다. 마을과 마을을 걸으며 받았던 환영과 목도했던 불심의 가능성이 옛 불교의 중심지 라지기르에서 더 확연히 확인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

왕사성으로 흔히 불리는 라지기르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다. '영산회상'의 영산이 바로 라지기르 그리드라쿠타(영축산)이기 때문이다. 또 최초의 불교사원이라 할수 있는 베누바나비하라(죽림정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원정사가 있는 스라바스티와 더불어 부처님 일화가 가장 많이 있는 곳이다.

하지만 큰 성문이 36개에 달했다는 왕사성, 라지기르에는 성벽만이 남아있고 영축산만 외로이 그 영광을 간직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라지기르는 부처님이 마지막 여행을 시작한 곳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생애 마지막 여행으로 라지기르를 출발해 바이샬리를 거쳐 케살리, 쿠쉬나가르로 떠났다. 그렇기에 라지기르는 살아있는 부처님의 역사 그 자체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실 때 수많은 대중이 모였다는 그 곳은 독수리를 닮은 바위와 단이 남아있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불자들이 부처님이 설하셨다는 자리에 올린 꽃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순례단은 그 당시를 회상하듯 영축산 향실에서 〈법화경〉을 읊었다.

"단지 방편으로 갖가지 길을 보여주었을 뿐이니, 불자가 자기에 맞는 도를 행한다면 반드시 부처를 이루리라. 대중을 위해 이 법화의 가르침을 두루 설해야 하느니라."

이날 이후 순례단의 남은 여정은 부처님께서 열반을 향해 가신 길과 닮아있다. 순례단은 2월 26일 사리풋다와 마하목갈라나의 고향이자 옛 스승들의 목숨을 건 구법 흔적이 남아 있는 날란다 대학을 지나 3월 1일 유마거사 일화가 전해지는 바이샬리, 여성 출가 상징 대림정사에 도착했다. 여기서 다시 길을 떠나 부처님이 열반하신 쿠쉬나가르로 향한다.

〈관련 특집 4 · 5면〉

韓中日 불교 교류 3년 만에 재개된다

9~10월 봉은사서 한중일 대회
6월 중 금산사서 한일불교대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이뤄지지 못했던 한국과 중국, 일본 불교의 교류가 다시 재기될 전망이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이하 종단협)는 2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1회 이사회와 제59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주요사업을 확정했다.

종단협은 이날 회의를 통해 오는 9~10월경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제23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한국대회를 개최키로 결의했다. 대회에서는 학술대회와 세계평화기원법회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동안 한중일 불교계는 불교우호교류대회를 통해 불교의 사회적 실천 방향을 논의하고 세계평화를 위한 발원 등을 이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19년 중국 주해에서 열린 제22차 대회 이후 대회가 열리지 못했다. 2020년 열려야 했던 제23차 한국 대회도 3년동안 순연됐다.

종단협은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오는 4월 24~26일 서울에서 한중일 예비회의를 열기로 했다. 예비회의에서는 대회 일자와 장소 주제, 참석 규모, 소요 경비 등 세부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종단협 사무처는 대회의 진행을 위해 중국 · 일본 국제교류 전문 위원단을 구성 · 운영키로 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진우, 이하 한일불교교류협)도 2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43차 정기총회를 열고 2023년 예산과 사업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로 3년 동안 연기해온 제40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개최된다. 6월 12~14일 제17교구본사 김제 금산사에서 열리는 대회는 '한일불교교류 40년을 되돌아보며'를 주제로 하며 양국 대표단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회에서는 세계평화기원법회 및 유골봉환 위령제가 봉행되며 학술강연회 및 공동선언문도 채택할 계획이다. 40주년을 기념하며 식수와 회고 책자 제작, 사진전도 구상 중에 있다.

국제교류와 문화 분야에서는 다양한 신규 사업이 진행된다. 우선 올해 처음으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교류사업이 열린다. 7월 말~8월 초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에서 열리는 교류대회에서는 임제종 건장사, 일련종 지상본문사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신성민 · 임은호 기자

대행선연구원 불교학술 진흥사업 안내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묘공당 대행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아 그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 학술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불교학 발전과 대행선사상의 연구 진작을 위해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문의 및 서류 제출처
▶ 모든 서류는 E-mail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ds7788@hanmaum.org
▶ **홈페이지** www.daehaeng.re.kr
▶ **전화** 031)470-3276, 3277
▶ **주소**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0-10 대행선연구원

제6회 묘공학술상 공모
- **공모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사와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선학 또는 불교학과 관련된 역사, 사상, 수행, 문화, 포교, 계율 등의 분야
- **응모자격**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 **선정분야** : 대상 1명 / 1,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우수상 2명/ 각 700만원의 상금과 상장
- **공모기간** : 2023년 3월 1일(수)~31일(금)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한마음연구』 발간
- **발간시기** : 연2회(2월 28일, 8월31일)
- **투고분야** : - 한마음선원 및 대행선 관련 주제
  - 선학 또는 불교학 관련 주제
- **투고시기** : 연중 접수
- **투고자격** : 박사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및 불교 관련 인문학, 이공학, 의학 등의 연구자
- **투고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투고 (www.dbpiaone.com/dhs)

※ 『한마음연구』 논문투고 요령 및 심사규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원고료 : 소정의 금액 (『한마음연구』 게재 완료 시)

제5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
- **응모자격** :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 주제를 연구하거나 논문 (학위 논문 포함) 작성을 계획중인 대학원 재학 (수료)자
- **선발인원** : 0명
- **공모기간** : 2023년 3월 1일(수)~31일(금)

※ 공모신청 방법과 일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 제14회 계절발표회 개최 ◎
- **일시** : 2023. 3. 18.(토) 13:30~18:00
- **장소** :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3층(현장참석 및 유튜브 생중계)
-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user/HanmaumTemple
- **좌장** : 김용표(동국대 명예교수)
  - □ 제1주제 : 『논궤』(論軌, Vādavidhi)는 외도의 궤변인가?
    - 디그나가의 바수반두의 저작 불인정을 중심으로 -
    발표 : 동광스님(동국대)
    논평 : 1. 권서용(부산대) 2. 강형철(동국대 wise캠퍼스)
  - □ 제2주제 : 바다를 메우는 한 방울의 눈물
    - 대행선사 '게송, 선시'의 문학적 탐색 -
    발표 : 김종진(동국대)
    논평 : 1. 백원기(동방문화대학원대학 석좌교수)
    2. 하정수(동국대)
  - □ 한마음선원 지원 소개 : 진주지원
    발표 : 혜근스님(진주지원장)
    제목 : 혜근이 받든 대행선사의 가르침

※ 자세한 내용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인도 분황사 보건소 개원…“지역사회 공헌” 발원

전국비구니회, 2월 27일 부다가야 보건소 개원법회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부처님 깨달음의 성지 인도 부다가야의 한국 사찰 분황사에 순례자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건소가 문을 열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 이하 비구니회)는 2월 27일 인도 분황사에서 ‘부다가야 보건소’ 개원식을 개최했다. 개원식에는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과 비구니회 임원진, 인도 분황사 주지 붓다팔라 스님, 건립불사를 후원한 백천문화재단 관계자와 현지 주민 등이 참석해 건립불사 마무리를 축하했다.

분황사 경내에 위치한 부다가야 보건소는 514m² (약 155평)에 2층 규모로 1층에는 진료실과 치료실이 마련됐다. 2층은 직원들을 위한 숙소로 활용될 전망이다. 비구니회는 지역민들의 열망을 반영, 지역 청소년들의 방과 후 수업을 지원하고 여성들의 취업훈련과 문화공간, 도서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추후 한글학교와 재봉, 사찰요리 교실도 추진할 예정이다.

분황사 주지 붓다팔라 스님은 환영사에서 “여러 법우들이 마음을 모으고 원력을 쌓아 세운 이 보건소는 2050년 무

백천문화재단 후원으로 건립
청소년 방과후 학습 지원 등
지역민 위한 문화공간 활용도
“약사여래불 상주 도량될 것”

렵에는 소형병원을 거쳐, 무료 간호대학과 의과대학으로 자라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작은 원력 하나가 희망의 씨앗이 되고 뭇 생명들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의 자양분으로 자라날 것”이라고 발원했다.



전국비구니회는 2월 27일 인도 분황사에서 ‘부다가야 보건소’ 개원식을 개최했다.

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증일아함경〉의 한 소절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본각 스님은 “부처님은 병자를 잘 간호하고 치료를 돕는 것은 대단히 큰 공덕을 쌓는 일이며, 병자를 돌보는 것 자체가 부처님을 간병하는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고 하셨다”며 “분황사 보건소는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병자를 돌보는 큰 공덕을 쌓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는 부다가야 성지에 세워진 조계종 최초 사찰 분황사에 주민과 순례자들을 위한 보건소를 개원,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게 돼 기쁨이 충만하기 그지 없다”면서 “전국비구니회와 백천문화재단은 분황사 보건소 개원 이후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약사여래불의 손길이 지속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비구니회원 사찰과 스님들의 정성을 모은 보건소 운영기금 3만 달러를 붓다팔라 스님에게 전달했다. 이밖에도 분황사 문화센터에 재봉틀 5대와 컴퓨터 2대도 기증했다.

동참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고 부다가야를 찾는 많은 순례자들에게 의료적 도움을 주는 의료기관으로 발전하도록 부처님 가피를 내려달라”면서 “지역주민과 인연된 모든 세계인이 아픔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참된 불제자가 돼, 대자대비 광명 속에서 생명의 실상을 증득하게 해달라”고 발원했다.

이어 동참자들은 〈자애경〉과 〈축복경〉을 합송하며 보건소의 원활한 운영을 서원하는 것으로 개원식을 마무리했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보건소 후원 : 국민은행 208601-04-073935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02)3411-8103

포교원, 강원도 순례로 신행문화 확산 염원

3월 7일, 등명낙가사서 정동진역 포교 신도단체 100여명 동참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순례 프로그램을 통한 신행문화 확산을 염원하며 강원도 순례에 나선다.

포교원은 2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포교 · 신도단체 대표 및 실무자 간담회’에서 3월 7일 진행될 강원도 순례 계획을 공개하고 단체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포교원이 진행할 강원도 순례길은 ‘강릉 해맞이길’이다. 이는 포교원이 가장 최근 개발한 순례길로 보현사에서 인월사까지 걷는 제1코스와 등명낙가사서 정동진역까지 걷는 제2코스로 구성됐다.

3월 7일 걷게 될 순례길은 강릉 해맞이길 중 제2코스다. 관음보살의 전설이 깃든 등명낙가사에서 입재식을 봉행한 후 등명해변, 정동진 해변, 정동진역까지 순례하게 된다. 약 3.7km로 2시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순례에는 포교사단과 중앙신도회, 대불청, 대불련, 전국여성불자회, 전법단 등 포교원 산하 포교 및 신도단체에서 100여 명의 회원들이 동참 할 예정이다.

포교원은 2023년에는 ‘강릉 해맞이길’을 시작으로 전북과 충청을 포함한 7개 순례길을 추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순례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 포교 콘텐츠로 활용하고 지역의 새로운 관광상품으로도 개발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포교부장 선업 스님은 “포교원은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는 지속적인 순례 프로그램 개발해 전법 교화의 원을 세울 것”이라면서 “포교 및 신도단체가 적극적으로 동참, 순례가 또 하나의 수행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포교원은 2021년, 순례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첫해 ‘화엄사 어머니의 길’ ‘천은사 상생의 길’을 개발했다. 2022년에는 ‘허응당 보우의 길’ ‘창원 용지호수의 길’ ‘제주 관음순례길’ ‘경주 천년미소의 길’ ‘부산 해수관음의 길’ ‘원주 치악산 사유의 길’을 선보였다.

임은호 기자



이병노 군수 “담양에 명상센터 건립 추진”

2월 27일 진우 스님 예방서 밝혀

담양군이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명상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2월 27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명상센터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군수는 “건립 부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해 명상센터 건립을 추진하려 한다. 현재는 국비 신청을 추진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센터 건립과 관련된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불교계에서 협조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담양은 경관이 빼어나 바다가 없는 관광지자체 중 가장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곳이다. 이곳에 명상센터를 건립하면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치유할 것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조계종은 역점사업으로 종단 표준 명상프로그램 개발과 전국 각지 거점 명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튀르키예 향한 ‘Never Ending’ 자비 손길

선운사 등 성금 기부 잇달아
열암곡 부처님 기금도 답지

강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를 위한 불교계의 자비 손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한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한 기금도 답지되고 있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는 2월 28일 주지 경우 스님의 임명장 수여와 함께 자비 기금을 쾌척했다. 이날 주지 경우 스님은 임명장 수여와 함께 튀르키예 지진피해 지원금과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에 30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은 튀르키예 구호 기금으로 2000만원, 마애불 바로 모시기 기금으로 1000만원이 기탁된다.

진우 스님은 “튀르키예 지진피해라는 아픈 소식을 듣고 함께해줘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선운사는 본사 중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곳”이라며 “종단에서도 안심하고 든든하다. 세 번째 연임인 만큼 그간의 경험으로 잘 이끌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우 스님은 “지진 소식을 듣고 선운사 신도들과 십시일반 모아 참여했다”며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준비해서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월 28일 선운사 주지로 임명된 경우 스님이 튀르키예 구호 및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사업 기금 3000만원을 전달하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과 불암사 신도회는 2월 28일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튀르키예 구호 기금 1000만원, 마애불 바로 모시기 기금 10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일면 스님은 “어제 희생자가 5만 명이 넘어간다는 기사를 보아 안타까움이 크다”면서 “생명나눔실천본부와 불암사가 십시일반 손을 모아 지진피해 구호금을 비롯한 마애불 원력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튀르키예 구호성금과 마애불 바로모시기 원력 동참을 위해 원로위원이 발걸음 한 것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자리에 함께 예방한 불암사 신도회원들에게는 “스님을 잘 모시고 보필할 것”을 당부했다.

같은 날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도 튀르키예 지진피해 구호 성금으로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주지 현문 스님을 대신해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재무국장 현담 스님은 “종정 스님께서 문화신행 활동에 통도사가 모범이 돼야 한다고 늘 말씀하신다”면서 “통도사 경내에 설치된 이웃나눔함의 모금액과 사중의 힘을 모아 큰 뜻에 따르는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금으로 3000만 원을 2월 28일 쾌척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신도들이 마음을 모았다”면서 “불자들의 원력이 모인 만큼 이재민들에게 큰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광주 문빈정사 주지 석장스님**은 2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튀르키예 구호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튀르키예는 6.25한국전쟁 당시 참전국으로 우리나라와는 형제와 다름없다. 그런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른 척할 수 없다”면서 “여러 곳에서 구호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중 호남권에서는 처음으로 문빈정사가 기금을 전달했다. 마음을 내어준 문빈정사 사부대중에게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신성민 · 임은호 기자

2023년 대한불교원효종 분한신청(종도확인), 종회의원 선거인단 선출공고

삼보에 귀의하옵고

대한불교원효종은 오랜 기간 동안 종권다툼으로 인하여 분열과 혼란으로 대내외적으로 종단의 명예가 실추되었는바, 이런 역경을 딛고 대한불교원효종의 정통성을 되찾고 원효성사의 법맥을 이어가기 위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신심을 내어주신 스님들의 원력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비합3003 임시종정선임 결정(대구고등법원 2020라388 결정, 대법원 2021마5232 결정)에 따라 이종윤(원호) 스님을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으로 결정함에 따라 종단의 안정을 되찾아 가게 되었습니다.

종단 혼란의 중심에 있던 김윤철(향운), 손영채(우석) 스님이 위촉, 임명한 임원, 의원 등 모든 직책은 법적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종단의 정상화를 위하여 우선 종회를 구성하여야 하는바, 이에 종회의원 선출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종도 확인업무를 시행하오니 착오 없이 확인업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윤철(향운), 손영채(우석) 스님 측의 모든 업무가 만료되었음에도 종도 스님으로서의 확인 절차를 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확인된 종도 스님들로 종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예정인바, 확인 절차를 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확인기간 : **2023년 3월 2일(목) ~ 4월 3일(월)**
   (공고일로부터 1개월. 위 기간 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우편물은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2. 확인범위 : 사암등록증. 주지 또는 대표임원 임명장. 승려증
3. 접수장소 :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총무원(경북 경주시 배리2길 34-7)
4. 접수시간 :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5. 전화번호 : 임시총무원 054)745-3400 / 팩스 054)745-3400
   H.P 010-9388-3883, 010-5428-4040

제출 구비서류

1) 사진 3매(3×4) 사진은 원효종 가사와 장삼을 수하시고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신상명세서(서식 총 – 2) 일반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필수기재
   총무원에서 3회 이상 전화를 해서 확인이 안 될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4) 사미.구족계첩, 도첩, 수계증, 승려증 사본 등 본 종단 종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1통
5) 사찰등록증, 주지임명장

주의사항

1. 구비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을 경우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2. 모든 제출서류는 발급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구비서류는 본인이 직접 총무원을 방문하여 접수하시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4. 신상명세서는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필수).

2023년 3월 2일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이종윤(원호), 임시총무원장 김두환(일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해원(해정)

민추본, 정전협정 70주년 '평화기념 대법회' 연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월 28일, 2023 추진 사업계획 발표
6월 임진각 봉행…대북사업 원동력
평화순례길 걷기로 평화메시지 전달
연내 남북불교 교류 대표회담 추진
태효 스님 "남북 관계 선도 조직"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이하 민추본)가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남북한 평화기원 대법회를 봉행한다. 한반도 내 평화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통해 희망적 분위기로 전환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민추본은 2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3년 추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민추본은 2023년,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6월 초 임진각에서 '정전협정 체결 70년 전쟁종식 평화기원 대법회'를 봉행한다.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촉구하기 위한 불교계의 실천 활동을 통해 평화 문제에 대한 불교계의 사회적 역할을 선도, 제고하기 위함이다.

법회에 앞서 3~5월을 평화기원기도 주간으로 정하고 행사도 진행한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와 함께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평화 기원 타종, 연등회 문화마당 평화부스 운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전 70주년 평화기원 금강산 평화순례길 걷기도 열린다. 2021~22년 스님들의 금강산 순례길을 조명, 발굴하기 위한 금강산 평화순례길 연구사업 성과에 이어 순례길을 일부 걷는 시범행사로 진행된다. 걷기 행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기원과 금강산 관광 재개의 염원을 모아 금강산 평화순례길 사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고성 접경지역에서 추진될 예정이며 학술토론회 등 다양한 부대사업도 열린다.

태효 스님은 "평화기원 대법회를 통해 종단의 평화 기조를 전달하고 조계종 37대 집행부, 민추본의 2023년 대북사업과 평화활동을 견인하는 원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면서 "불교계의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망이 담긴 평화의 메시지를 통해, 올해를 평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추본 본부장 태효 스님

숙원사업인 문화재 복원에도 힘쓴다.

남북불교 교류 최대 성과로 평가받는 금강산 신계사 복원 16주년을 기념하는 e-book 사진전이 10월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대화와 교류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북불교 교류의 필요성과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e-book 사진전은 언택트 형태로 진행된다. 한정된 공간과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전시에서 탈피, 온라인을 이용한 폭넓은 관람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강산 및 금강산 사찰의 사진뿐 아니라 금강산 신계사 복원의 역사적 의미가 담긴 e-book 사진전은 조계종과 민추본, 그리고 평화통일 도량 홈페이지에서 올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북한 지역 일제강점기 8대 본산 관련 문헌조사에도 착수한다.

해방과 함께 남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북쪽 지역에는 총 9개 본산에 400여 개 말사, 1600여 명의 스님과 500만 불교도가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의 사찰 대부분은 전쟁으로 파괴돼 현재까지 복원되지 못하고 문헌상 이름으로만 존재한 상태다.

이에 민추본은 보현사(묘향산), 법흥사(평남), 패엽사(구월산), 성불사(정방산), 석왕사(강원도 고산) 등의 현존 사찰과 영명사(평양), 유점사(금강산), 귀조사(함흥) 등의 소실 사찰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북한 내 8개 본사와 관련한 자료 취합 및 일제강점기 지도와 구글 위성지도를 통해 소실 이전의 정확한 규모와 위치 등을 파악해 향후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태효 스님은 "남북간 화해 분위기 조성 시기와 미래 통일에 대비해 먼저 북한 내 8대 본산을 중심으로 현시점에서 취합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 복원이 가능한 시점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문화재 보수·복원 기술 전수에도 힘쓴다. 북한 전역에 흩어진 불교 문화재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 기술 지도를 통해 북한의 문화재 보수 및 복원 능력 배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대규모 북한 문화재 복원 사업에 앞서 북한 내 보존이 시급한 불교 문화재를 중심으로 보존처리와 복원 기술 전수를 겸한 교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1차로 탑과 불상 등 야외 석조 구조물의 기술 전수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금속, 목재, 종이 등으로 확대 실시한다. 2002~2003년 실시한 '북한사찰 및 민족문화재 단청불사 협력사업' 선례를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심 높은 민족문화유산과 연계해 사업의 현실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내부 조직 강화를 위해서도 적극 나선다. 2021년부터 시작한 평화통일도량 조직사업 3년 차를 맞아, 지난해 다소 주춤했던 후원사찰 결연사업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남북불교 교류 대표회담은 지속적으로 북의 문을 두드릴 계획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남북불교계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들 간의 만남을 통해 정체된 남북불교 교류의 물꼬를 트는 상징성 높은 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북불교계 관계 정상화 및 남북불교 교류사업 전반을 주요 의재로, 2023년 중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일본 불교계 교류사업, 제주 4.3항쟁 75주기 평화순례, 평화통일교육사업, 남북 불교문화유산교류 연구위원회를 발족, 간토학살 100주기 추도 및 일제 강제동원 역사 순례, 평화통일도량 3사(寺)순례 등이 연내 지속된다.

태효 스님은 "창립 이래 종단의 남북교류 사업을 담당하는 창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온 민추본은 앞으로도 변화된 환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보다 새롭고 근본적으로 성찰, 발전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종단의 남북관계를 선도하는 조직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엄중히 새기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염불소리가 이 땅에 울려 퍼지도록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6월 '호국위령대재' 조계종 행사로 확대"

이상철 신도회장, 군불총 창립 23주년 법회서 밝혀

호국원광사서 300여 명 동참
군포교 활성화 정진 다짐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봉행됐던 조계종 군종교구, 국군불교총신도회의 호국위령대재가 올해부터는 조계종 종단 호국행사로 확대된다.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이상철, 이하 군불총)는 2월 25일 서울 용산 호국 원광사에서 창립 2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사진>

이날 이상철 군불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군불교 진흥과 함께 6월 '호국위령대재'를 대표 호국행사로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 회장은 "군불총은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를 통해 장병들에게 개인적으로는 올바른 인생관을 정립시키고, 나아가 투철한 국가관과 호국의지를 고양시킴으로써 군의 정신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는 현역 학생 불자 및 자녀,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함으로써 불자로서 자긍심 고취는 물론 청년불자 인재 육성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6월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되는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불교적 가치를 담은 호국보훈 행사로서 조계종단 차원에서 확대해 추진코자 한다. 군불총은 범종단적 군불교 동참과 신행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불자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기획실장 성화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군불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부대중을 치하했다. 진우 스님은 "군에서 계를 받으면 평생의 불자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군 불교는 한국불교의 희망"이라며 "신심이 있는 곳에 부처님의 가피가 있다. 우리는 이 가피를 믿고 군 불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욱 정진하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군종교구장 능원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군불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교구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군불총을 중심으로 군불교의 발전을 위해 정진할 때 진정한 군불교의 성공을 통해 한국불교의 중흥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능원 스님은 "군불자들이 보다 당당하게 자긍심을 갖도록 육해공군의 군승법사들과 교구가 함께 다각도로 연구하고 뒷받침하겠다"면서 "오늘 우리의 결의와 소망이 우리의 정성어린 원력과 정진으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진하자"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법회에는 신도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불자들에 대한 표창과 상장 등이 수여됐다.

또한 군불총은 병사와 신도회원 자녀 16명과 사관생도 15명 등 총 31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사노위, 변희수 하사 2주기 추모기도

2월 27일, 서울 보신각 앞서 기도회
"국방부, 올바른 답 내놔야 할 것"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 조치 된 후 스스로 세상을 떠난 변희수 하사의 2주기를 맞아, 이를 추모하는 기도회가 열렸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는 2월 27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추모 기도회를 봉행했다. 변희수 하사는 2016년 대한민국 육군 하사로 임관해 복무하다 대한민국 군 최초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군은 이를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2020년 강제 전역시켰다. 변 하사는 성별 정정 후 복무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강제 전역 취소 소송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2021년 10월 대전지방법원은 군의 강제 전역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일, 육군은 변 하사의 사망 구분을 사적인 이유로 죽었다는 '일반사망'으로 정했고 이에 대해 올해 1월 3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를 상대로 변 하사의 순직 심사를 다시 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이날 사노위 스님들은 염불을 외며 변 하사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시경 스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군인이라는 직업을 자랑스러워했던 고인은 성별 정정 후 복무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사회적 약자들은 끊임없이 존재를 드러내고 우리 사회에 함께 살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제는 국방부가 올바른 답을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은 평등하기에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강조한 시경 스님은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변희수 하사는 지금도 군에서 당당한 군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면서 "사노위는 성소수자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동국 발전 항상 응원"

이사장 성우 스님 이임식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고불이임식이 열렸다.

동국대는 2월 28일 교내 정각원에서 '제41대 이사장 성우 스님 고불이임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성우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이사장 이임을 부처님께 고하고 학교 발전을 기원했다. 성우 스님은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이곳에 계신 동국가족과 불교계의 지대한 사랑과 무한한 관심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국대는 윤성이 제19대 총장의 고불이임식도 봉행했다. 윤 총장은 "부처님의 가호묘지력으로 총장 재직 중 건학위원회가 출범해 삼보를 외고하고 정법을 호지하며 모교 발전에 진력을 다할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 신성민 기자



평택 보국사 주지 무상당 법현종사
진산식 및 대웅전 낙성법회

꽃피는 춘삼월에 열리는 아름다운 모임에 참석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일제의 간악한 마수에 시달리는 조국을 불보살님의 가피에 힘입어 도우려는 김대정월 창건주님의
'나라 돕는 절(輔國寺) 정신'을 이어받아 평택시민과 경기도민 그리고 주한미군의 귀의처가 되게 하려는
원력으로 정진하고 있는 즉문즉설 저잣거리 수행전법사 법현스님의 경기도 전통사찰 제26호 보국사 주지 진산과
대웅전 낙성법회에 제방의 스님, 전법사님들과 불자님 그리고 이웃종단,이웃종교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 **때** : 2023년 3월 18일(토) 오후 2시~4시
■ **곳** : 장등산 보국사 안마당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621(전화:031-666-8370)
■ **일** : 1)대웅전 낙성식 및 축하
2)무상법현(無相法顯)종사 주지 진산식 및 축하
3)운산당대행대종사 추모차례

무상당 법현종사 진산식 및 대웅전 낙성법회 준비위원회





불교중흥을 위한 사부대중의 마음을 상징하는 부처님상을 모시고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대림정사터를 참배하고 있다.

‘위대한 열반’ 시작된 길을 따라 걷다



노덕현 기자의

‘상월결사, 붓다의 길을 걷다’

③ 부다가야서 바이샬리까지

인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안거를 위해 바이샬리 인근의 벨루와라는 마을로 가셨다. 대나무숲이라는 뜻으로 우리말로 죽림촌이라 불리는 이곳에서 부처님은 마지막 안거를 보내셨다. 안거가 끝나자 부처님은 바이샬리에 있던 대중들을 모아 놓고 ‘3개월 후 열반에 들리라’ 고 선언하시며 그 자리에서 계정혜 삼학을 닦을 것을 당부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자등명 법등명’ (自燈明 法燈明)을 설하셨다. 이는 중생과 세상을 구제한 부처님 자신에게조차도 귀의하지 말고 그 진리에 귀의하라는 열반의 실질적인 법문이다.

3주차로 접어든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부처님의 후대를 위한 가르침이 절실히 새겨진 곳, 부처님이 위대한 열반의 여정 중 가장 중요한 곳, ‘바이샬리’ 를 향해 나아갔다.

현재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부처님이 걸은 길을 따라 걷고 있다. 특히 라지기르부터 바이샬리를 거쳐 오는 3월 8일 쿠시나가르까지 가는 여정은 ‘위대한 열반’ , ‘완전한 열반’ 으로 일컬어지는 그 여정과 닿아 있다.

21일차인 3월 1일에 도착한 바이샬리는 부처님께서 마지막 하안거를 보내신 곳이고, 3개월 후 열반하실 것을 말씀하신 곳이며,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을 설하신 곳이며, 여성 출가를 허락하신 곳이자, 삼처전심 다자탑전분반좌의 가르침과 유마경의 설법지, 근본사리탑 8개 중 1개가 있고, 부처님 입멸 후 100년 후 제2결집이 이뤄진 곳이다.

진리에 의지하며 정진하다

‘자등명 법등명’ 가르침이 서려있는 곳에서 순례단은 불법(佛法)을 등불로 삼아 정진했다. 법 앞에 부처님 자신조차 귀의처가 아닌 가르침에 개개인의 존귀함을 따르고 수행공동체로서 의식을 함께 나누며 정진하고 있다.

순례단의 스승인 회주 자승 스님도, 순례단을 지원하며 궂은 일을 하는 운영지원단의 스태프들도, 취재하는 기자와 안내하는 경찰들도 예외는 아니다. 모두가 각자 맡은 역할의 본분에 충실하며, 법에 의지해 자신의 자리에서 정진하고 있다.

회주 스님은 대중이 함께 세운 청규를 지키기 위해 숙소에 갈 때까지 빨래를 하지 않고, 순례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한다. 순례단 개개인은 행여 다른 이들의 행선에 방해가 될까 걸음이 힘들어도, 열조차 흐트러뜨리는 것을 경계한다. 새벽 2시, 도량석과 종송 소리에 천근만근인 몸을 이끌고 새벽예불에 동참한다. 5kg으로 지친 상태에서 이운하기에 힘든 작은 부처님도 서로가 나눠 이운한다. 부처님이 특정인이 아닌 ‘진리’ 인 법에 귀의하라는 그 가르침을 오롯이 이어가기 때문이다.

행선에서 비구니 스님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날 부처님 이운은 비구니 스님들이 나눠 진행했다. 오히려 비구니 스님들은 ‘여성’ 이라는 별개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비구니조인 6조 조장 묘수 스님은 “비구니라고 해서 다르게 보지 않았으면 한다. 부처님 제자로 비구와 비구니, 우바이와 우바새는 같은 마음”이라고 했다.

3조 조장 법원 스님도 “부처님께서 회향을 위해 마지막으로 들리시며 하신 ‘어떻게 불자들이 행동하고 살아야 할지’ 에 대한 가르침을 걸음마다 화두로 삼았다”고 말했다.

전날까지 부처님을 이운한 재가불자를 대표해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도 “본분에 충실하고자 하고 있다. 회주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가 본분에 충실하면 그 것이 불교중흥”이라고 했다.

3월 1일 순례의 회향은 부처님께서 열반 후 8등분 된 사리를 바이샬리의 리차비족이 봉안한 근본사리탑터에서 진행됐다. 부처님이 전한 가르침, 그 숭고한 불법이 현재 전해지지 않는 인도에서 부처님이 남긴 사리는 파트나 박물관에 유물로 있고, 근본사리탑터는 기단부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이날 순례에 대해 순례단장 원명 스님은 “최후의 안거를 하시고 마지막 열반지를 향해 나아가신 바이샬리에 도착한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곳에서 비구니 교단이 형성되기도 하고,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유마거사가 등장했듯이 출가자 일부만의 법이 아닌 사부대중의 법으로 불교가 이제는 다함께 고민하고,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럴 때만이 인도불교처럼 한국불교가 사라지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상월결사 정신에 담긴 함께 불교를 걱정하고, 함께 전법 포교를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종호 스님이 회향지에서 부처님 전에 올린 발원문은 이러한 안타까움을 담아 처절한 반성과 중흥을 위한 사부대중의 마음을 모을 것을 호소했다.

“회주 자승 비구를 비롯한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 순례대중은 발원하옵니다. 쇠잔해가는 불법이 중흥하도록 하고, 부처님 가르침이 온 세상 사람들의 의지처이자 나침반이 되도록 하옵소서.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사르나트, 보드가야, 영축산을 거쳐 400여 km를 걸어 이 곳 바이샬리에 도착하였습니다. 불법의 중흥은 세상을 이익되게 함에 있고, 우리 모두의 이타 실천행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여지이다. 온 세상이 투쟁과 갈등, 다툼과 불화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발원합니다. 부처님, 순례 21일째로 순례단이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내고 기운내어 환희롭게 이 순례를 잘 회향하도록 가피 내려 주시옵소서.”

인도 천민에게 부처님 가피는 ‘교육’

부다가야에서 바이샬리로 가는 여정에서 순례단은 한국불교가 인도를 변화시키는 현장도 목도했다. 바로 2월 23일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다. 이날 순례단은 아침공양을 위해 이른 새벽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머물렀다.

1994년 2월 마을 주민들이 땅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JTS에서 건축비를 지원하여 불사를 시작한 수자타 아카데미는 처음부터 부처님 성지와 가까운 위치에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니었다. 인도의 여러 마을 중 가장 좋지 않은 쓸모 없는 땅을 기부받으니 그 곳이 부처님의 흔적이 남은 전정각산에 자리하게 됐다.

전과정이 무료인 수자타 아카데미는 영어와 수학 등 기초교육을 담당한다. 처음에는 120명의 불가촉천민 학생으로 학교를 시작했지만 29년이 흘러 어느덧 1000여명의 학생들이 문맹 극복에 도움을 받고 있다.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는 순례단의 방문에 앞서 총책임자인 보광 법사가 나와 있었다. 그녀는 “전정각산을 중심으로 15개 마을에서 저희가 마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며 “옛날 부처님께서 수자타 여인으로부터 우유죽을 공양받으셨다. 이제 그 후손들에게 저희가 감사한 마음을 다시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로 29주년이 된 수자타 아카데미에는 현재 6명의 한국 활동가가 살고 있다. 한국에서 머나먼 곳이지만 부처님 은혜를 갚는다는 일념 하나로 이 곳 주민들을 돕는데 여생을 바치고 있다.

수자타 아카데미는 불교가 표방하는 차별없는 세상, 모든 생명이 존귀한 삶을 실천하고 있다. 그 예가 바로 화장실 청소다. 인도인들에게는 화장실은 매우 더러운 공간으로 인식된다. 그렇기에 화장실을 청소하기 보다는 화장실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들판에서 용변을 보곤 한다. 학교가 커지다 보니 여러 계급 아이들이 섞이게 됐고, 학교 내에 있는 화장실 청소의 경우 불가촉천민 아이들이 맡을 수 밖에 없었다.

보광 법사는 “브라만 계급인 교장 선생님부터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다. 이후에 학교 선생님을 시작으로 차례로 순번을 돌아가며 청소를 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주번을 정해 한국학교처럼 아이들이 나눠 청소한다. 자연스럽게 계급에 대한 인식도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자타 아카데미에 심어진 망고나무의 망고를 수확하는 날에는 전교생들이 함께 이를 맛본다고도 했다.

교직에 있던 아내와 함께 은퇴 후 이곳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돕고 있는 정동표 씨는 “아이들을 돌보는 삶이 행복하다. 정부 인가학교지만 여기 아이들 중 공부를 더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있다. 원하는 아이들은 상급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립학교에서 35년간 교직에 임한 정충래 순례단 8조 조장(동국대 이사)은 “한국전쟁 이후 우리가 교육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듯이, 결국 이 불가촉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근본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 지역민들에게는 부처님 가피가 바로 교육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순례단 공양시간에 수자타 아카데미를 둘러본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도 “종단이 못하는 일을 법륜 스님이 한다”고 이들의 활동을 치하하기도 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의 선두에서 순례단을 이끌고 있는 부처님의 뒤로 아침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자등명 법등명 설법의 장소

여성출가, 재가법사 상징터

바이샬리 가는 3주차 여정

따뜻한 부처님 가르침 따라

한걸음 한걸음 정진 또 정진

수자타 아카데미, 날란다大

교육의 중요성 새삼 깨달아



순례단이 나바 날란다대학을 뒤로 행선에 나서고 있다. 인도 국영 나바 날란다대학은 1951년 날란다대학터 인근에 세워졌다.



순례단의 부처님상을 안고가는 비구니 스님들의 미소가 자애롭다.



자승 스님이 인도 마을 주민들에게 염주와 단주 등을 전하고 있다.

날란다 대학서 求法 원력 새기다

3주차 순례에는 구법(求法)의 상징과 같은 성지를 찾아가는 여정도 있었다. 바로 날란다 대학이다.

지혜의 상징인 ‘연꽃이 있는 곳’ 의 나란타(那爛陀)로 음사되는 인도 날란다 대학은 불교학의 중심지로 불교를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꿈의 장소였다. 수많은 구법승들이 이곳을 향해 길을 떠났다. 5세기부터 12세기까지 7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천 명의 승려와 학자 등 1만여 명이 머물렀던 날란다 대학을 순례단이 찾았다.

2월 26일 라지기르의 숙소에서 출발한 순례단은 약 16km를 걸어 ‘나바 날란다 대학(Nava Nalanda Mahavihara)’ 에서 아침공양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아침공양은 ‘Ruin of Nalanda’ 로 표기되는 옛 날란다대학터 인근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도정부가 운영하는 ‘나바(新) 날란다대학’ 에서 순례단에게 특별히 공양을 올리고 싶다는 요청을 보내 전날 공양장소가 변경됐다.

나바 날란다대학은 인도 초대 대통령 라젠드라 프라삿드 박사가 1951년 옛 날란다대학의 명성을 되살리고자 발의하여 날란다대학터 옆에 세워졌다. 불교전문대학으로 다수의 석·박사 과정학생들이 인도 고대사와 불교학을 공부하고 있다.

나바 날란다대학에서 준비한 공양은 단촐했지만, 보여준 정성은 뜻깊었다. 강당을 비우고 비탑 학장과 교수들이 정문까지 나와 순례단을 맞이했다.

비탑 학장은 “한국에서 100여 스님과 재가자들이 직접 걸어 불교학 터전이었던 이곳에 방문하신 것은 최초”라며 “이 뜻깊은 순례에 공양을 올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부처님은 길에서 나시고, 길에서 법을 전하셨으며, 길에서 열반에 드셨다. 평생 길을 걸으신 부처님은 아난에게 “그대들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러야 한다.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귀의처로 삼아 머물러야 한다”는 지금의 불교를 있게 한 위대한 설법을 하셨다. 3주차의 순례는 그 위대한 설법을 되짚어 보는 여정이었다.

‘자등명 법등명!’

“사회 필요치 않는 불교가 무슨 필요있나”

출가재일 발원문

일체중생의 근기 따라 깨달음으로 이끄시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 지성으로 귀명하옵니다. 우리 상월결사 인도순례자들은 부처님 전에 모여 출가하신 날의 감격과 환희를 떠올리며 저희들의 서원을 담아 발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혹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출가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중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출가하셨습니다.

부처님! 지금까지 저희들은 욕심과 자신만의 견해에 사로잡혀 화택과 같은 집에 묶여 살아왔습니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부처님 출가의 길을 따라 장애를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를 서원합니다.

세상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신 부처님!

저희는 지금부터 하루하루 출가의 의미를 되새기겠습니다. 나태하고 안주하기보다 높이 비상하겠습니다. 망설이고 두리번거리기보다 진일보하겠습니다. 조그마한 나에 갇혀 살기보다 큰 나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발원 공덕으로 저희들의 삶과 일체 중생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소서. 이 순례의 길 끝에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어 걸림이 없이 살게 하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
출가재일 앞두고 서릿발 경책

인도=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처님은 삼계의 모든 중생을 인도하여 가르치신 위대한 스승이지만, 태어나면서의 삶이 그렇지는 않았다. 전륜성왕의 길과 출가자의 길에서 부처님은 출가를 택했고 이후 성도하니 출가한 순간의 의미가 그만큼 크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요한 의미만큼 부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이 출가재일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은 남달랐다. 특히 순례단의 스승인 회주 자승 스님의 경책과 격려로 좀 더 특별한 출가재일을 맞이했다.

회주 자승 스님은 2월 26일 저녁예불 후 다시 대중 앞에 섰다. 회주 스님이 순례단 대중 앞에서 대중생활의 주요한 대소사를 알리기 위해 말한 적은 있지만 이날은 조금 달랐다. 출가재일을 앞두고 방일해질 수 있는 순례단의 마음을 다잡고, 순례의 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스님은 예불이 끝나자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이어 자승 스님은 차분하게 불교의 현실을 지적해 나갔다.

“10년 전 쯤 〈동아일보〉 칼럼에 ‘수녀님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신부님, 목사님,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도 있는데 딱 꼬집어서 수녀님이 줄어든다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의 요체는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성직자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밖에서 보았을 때)호화호식 하고 산다는 것 아니겠는가. 수녀님들이 사회 어두운 곳에 손길을 뻗치고 있는데 그 수가 줄어드니 국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래 전 읽은 한 칼럼에 대한 소개로 시작된 자승 스님의 경책은 단지 순례단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전체로 향하고 있었다.

회주 스님은 “불교의 비구, 비구니도 사회 어렵고 힘든 곳에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 수행자들은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에 필요하지 않는 불교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열심히 기도한들 현재 사회는 스님들이 줄던 말던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회주 자승 스님은 2월 26일 저녁예불 이후 대중들을 경책했다. 다소 들뜰 수 있는 시기, 스승인 회주 스님의 서릿발 같은 경책은 들뜬 대중의 마음을 다시 차분하게 만들었다.

2월 26일 저녁예불서 경책 내려
“불교, 안일함에 사회 기여 못해
이젠 사회 기여하는 수행자돼야”
순례단, 출가재일 발원문 발표해



2월 27일 출가재일을 맞아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대표로 발원문을 낭독했다.

자승 스님의 경책은 이어졌다. 스님은 “우리는 사찰을 지켜나갈 후손들이 필요하지만 사회에서는 어둡고 힘없는 곳에 돌봐줄 손길이 절실하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놓치고 있다”면서 “우리들의 안일함이 잘못이다. 출가하고 여러 인연으로 인해 주지하는 사람은 주지하면서 근심걱정 없이, 선방에서 정진하는 사람은 한철 보내며 근심걱정 없이 살고 있다”고 경책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사회는 불교에게 바라는 게 없게 됐다. 이를 타개하려면 사회에 기여하는 수행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승 스님의 말 속에는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불교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출가자로서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다. 자승 스님은 “출가재일을 앞두고 우리 순례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자승 스님은 순례단의 묵언 수행에 대해서도 엄히 지적했다. 스님은 “구업을 짓지 않기 위해 하는 수행이 바로 묵언 수행”이라며 “수행은 지켜야지, 목에 묵언이라는 푯말을 걸고서 똑같이 앉아서 히히덕 거리고 있으면 그게 무슨 묵언 수행인가”라고 순례단을 비판했다.

인도순례단에서는 2월 26일 묵언표를 받은 조석주 불자까지 총 6명의 스님과 재가자가 묵언수행을 하고 있다. 사르나트에서 회주 자승 스님에게 덕조 스님과 노현 스님, 백금선 불자 등 3명의 출재가자가 묵언표를 받은 후 묵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들은 회주 스님 재가 후 묵언하고 있다. 순례가 19일차에 접어들며 대중생활 속에 이러한 발심도 다소 무뎌지기 마련, 스님은 대중이 들뜬 시점에서 가르침을 내렸다.

자승 스님은 “묵언을 하겠다는 사람이 스스로 말 섞이는 자리를 피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해야 묵언이지, 떠들어 대는 자리에 앉아 같이 웃고 틈 나는대로 휴대폰 열어 카톡 다하고 하면 묵언 수행을 무엇하러 하는가”라고 말했다.

스님의 가르침은 마음이 흔들릴 때 어깨를 때리는 장군죽비와 같았다. 회주 스님의 경책에 순례단의 분위기는 숙연해졌다.

훌륭한 스승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가르침을 끝내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해야 할 방향을 알려주고, 따뜻한 격려로 용기를 북돋는다. 자승 스님은 묵언 중 피치 못하게 의사를 전할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는 각 조장에게 문자 등을 활용한 필담으로 의사를 전하라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스님은 “주변에서도 묵언수행을 하는 이들을 도와달라. 다시 심기일전하여 수행 정진하자”고 대중에게 따뜻한 어조로 당부했다.

엄한 경책을 날린 회주 스님은 다시 대중들의 마음이 방일할까, 보통 예불 이후 삼배의 예로 끝내던 것을 일배만 받고 끝냈다.

순례단을 이끄는 스승의 경책이 있던 차라 순례단의 2월 27일 행선은 달랐다. 이른 새벽부터 출가재일 특별 발원문을 함께 낭독하며 마음을 모으고, 회향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출가의 의미를 되새겼다.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대표로 순례단은 “부처님께서는 미혹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출가하셨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중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출가하셨다”며 “저희는 하루하루 출가의 의미를 되새기겠다. 이 발원 공덕으로 일체 중생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소서”라고 발원했다.

“순례단, 온갖 病魔 구도열로 극복 중”

순례단·운영지원단 의료팀 기자간담회

초기에는 장염 증세 단원들 많아
익힌 음식으로 교체하며 감소세
원만회향 목표로 상부상조 나서

대장정 중반부에 접어든 상월결사 인도순례, 한때 70여 명이 치료받을 만큼 엄중한 상황도 있었지만, 그 고비를 넘어 후반부로 향하고 있다. 수많은 한국 불자들의 관심과 애정 때문일까. 상월결사 인도순례단(회주 자승)이 2월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 현황과 순례단의 의지를 전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명숙 운영지원단 의료팀장은 “초기 물집과 관절염, 장염 등으로 6~70여 명이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는 30여 건 수준으로 치료건수가 감소한 상태”라며 “장기간의 순례 일정으로 인하여 기초체력 저하로 인한 회복이 우려되지만 의료팀이 만전을 기하고 있는 만큼 불자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전했다.

후문에는 사찰 스님이 아프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 불자들이 안부를 묻는 문자를 수없이 많이 보낸다고 한다. 순례단 스님들은 본인이 아픈 것을 게재하지 말아달라고 기자들에게 요청할 정도다. 그만큼 순례단의 순례 여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이 뜨겁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순례 초기 순례단을 힘들게 한 것은 이른바 ‘물갈이’로 일컬어지는 장염 증상이다. 설사와 복통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 이들도 다수 나왔다. 하지만 순례단이 회주 자승 스님 지시 하에 끓이고 익힌 음식으로 전체를 교체 후 환자 수가 대폭 감소했다.

물집과 염좌 등의 문제는 행선 과정과 성지마다 있는 숙소 휴식 등에서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변인 종호 스님은 “한국의 불자들께서 무엇보다 순례단의 건강을 많이 걱정한다고 들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출발하기 전부터 OT를 하면서 이 상황을 설명을 드렸고,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 대변인 종호 스님(사진 오른쪽)과 김명숙 운영지원단 의료팀장이 순례단의 건강과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은 출발 전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을 위해 파상풍, A형 간염, 장티푸스 등 필수 예방접종을 전원 맞도록 했다. 여기에 70% 수준의 순례단원이 말라리아 예방접종 등도 맞았다. 때문에 순례단에서는 질병 외 식수와 음식, 기온차, 체력 등의 문제만 남은 상황이다.

순례단의 남은 일정은 24일. 19일차인 27일은 3년간 진행된 국내 순례에서는 회향 시점과 같다. 그렇기에 정신적으로도 지칠만 하지만 오히려 구도열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현지 분위기다. 순례가 중반부에 접어들자 미리 아쉽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김명숙 팀장은 “순례인 만큼 어려운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부분이 크다. 순례이기에 의료 도움을 받지 않고 순례를 원만회향하겠다는 순례단 내부 의지가 크다”며 “불자로서는 참으로 감동스러운 부분이지만, 의료인으로서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의료 지원을 강화해 순례 이후에도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대변인 종호 스님은 “회주 스님의 경우 순례단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텐트 주위를 돌면서 순례단의 안전과 건강을 기도를 하신다”며 “회주 스님부터 순례단이 서로 서로 챙겨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북 돋고 있다. 불자들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순례단 의료팀이 발바닥에 물집이 생긴 순례단원을 살피고 있다.

끝으로 종호 스님은 “순례단 개개인이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성지와 각 마을에서는 벅찬 감동으로 순례를 하고 있다”며 “순례에 열심히 임하는 만큼 마음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상월결사 인도순례 운영지원단 의료팀과 연계하여 2월 21일과 22일 부다가야에서는 동국대 경주병원팀이 의료봉사를 통해 상월결사 정신을 인도 현지에서 실천했다. 3월 8일과 9일 부처님 열반지 쿠시나가르에서는 동국대 일산병원팀이 연계해 순례단과 지역사회에 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인도=노덕현 기자

동국대, 날란다大 MOU…공동 교육·연구 약속

2월 24일 印날란다대서 협약식
“한국, 인도 불교학 발전 기대”
‘순례’ 주제 국제학술대회 개최
상월결사 인도순례 의미 되짚어
한국·인도 수교 50주년 기념도

동국대와 인도 날란다대학이 불교학 진흥을 위한 학술 교류 사업을 추친키로 했다.

동국대는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동국대 신임 총장이 2월 24일 인도 비하르(Bihar) 주 라즈기르(Rajgir)에 위치한 날란다 대학(Nalanda University)을 방문해 수나이나 싱(Sunaina Singh) 총장을 만나 양 기관의 학술교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월 2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상월결사 인도순례단으로 도보순례 중인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을 비롯해 정각원장 진명 스님, 황순일 불교대학장, 김용현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대학은 △학생·교수·연구자 교류 △공동 교육·연구, 공동 컨퍼런스·심포지엄 등 학술교류 △출판물 및 학술자료 공유 등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은 “오늘 MOU를 계기로 한국과 인도 불교학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윤재웅 신임 총장은 “동국대와 날란다 대학의 학술교류가 활발해져 두 대학의 불교학이 발전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수나이나 싱 날란다대학 총장은 “아시아와 인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불교학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동국대와 협력하고 소중한 관계를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약에 앞서 오전에는 날란다 대학 오디토리움에서 ‘불교 전통에서 순례의 중요성’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도 개최됐다.

이번 협약식과 학술대회는 한국불교학 진흥과 세계화를 위해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기획한 사업으로, 한국과 인도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이뤄졌다. 또한,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과 순례단이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부처님의 깨달음의 발자취를 좇아 1167km를 도보 순례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도 담겼다. 순례단 2월 26일 날란다 대학터를 방문해 그 옛날 구법의 열기를 되새겼다.



(왼쪽부터) 수나이나 싱 날란다대학 총장과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윤재웅 동국대 신임 총장이 협약식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부로 총 2부로 진행된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불교 순례의 역사와 의미 등을 살펴보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1부에서는 △이거룡 선문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교수의 ‘힌두교와 불교전통에서 순례’ △황순일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의 ‘순례와 불교의 아시아 전파’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정덕 스님의 ‘한국불교에서의 순례’가 발표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2부에서는 △광신 홍콩대 불교학연구소 교수의 ‘묘지명을 통해 본 중국의 인도 순례승 의정’ △게오르기오스 할키아스 홍콩대 불교학 연구소장은 ‘북서히말라야의 밀교순례, 순례의 현대적 의미에서 본 시킴(sikkim)’ △브라이언 소머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의 ‘산티아고 순례길, 순례의 서구적 전계’가 소개됐다.

한편, 날란다 대학은 5세기에서 13세기 사이 세계 최초 불교종합대학인 고대 날란다 승원 계승을 위해 2010년 국회 입법을 통해 설립된 공립대학이다. 2014년 9월1일 개교했으며, 대학원 과정으로 현재 32개국에서 온 학생 700여 명이 재학 중이다. 불교학, 심리학, 비교종교학 등 학과가 개설돼 있다. 신성민 기자

범어사성보박물관, 특별전 '삼국유사: 기록하다' 개막

3.1절 104주년 맞아 3월 1일 개막식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해
집필 동기 '호국' 강조도 특별전 취지
진본 외 인출본, 영인본도 함께 선보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범어사(주지 보운) 성보박물관이 3월 1일 성보박물관에서 특별전 '삼국유사: 기록하다' 개막식을 개최했다.

특별전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기원하고, 〈삼국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 태평양 지역목록(이하 유네스코 아 · 태 기록유산) 등재를 기념해 마련됐다. 아울러 3.1절 104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이번 특별전은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하게 된 동기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기획했다. 또한 범어사성보박물관은 특별전을 통해 〈삼국유사〉에 담긴 역사와 민족정신을 강조하고 의상대사, 일연 스님, 원효 스님이 남긴 발자취와 호국불교의 정신을 다시 한 번 조명한다.

개막식에는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 성보박물관 관장 환응 스님을 비롯해 범어사 국장 스님들과 양맹준 前 부산시 문화재위원장, 범어사 신행 단체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특히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인각사(麟角寺) 주지 호암 스님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개막식은 축하 공연으로 시작을 알렸으며 개회에 이어 〈삼국유사〉의 유네스코 등재 추진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삼국유사〉 유네스코 인증서 수여식과 공로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공로패는 최영호 동아대 교수, 김귀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본부장, 이정은 국립해양박물관 선임학예사, 이현주 범어사 성보박물관 부관장이 받았다.

주지 보운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삼국유사〉는 한국인의 정신문화를 관통하는 역사서이자 세계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귀중한 유산인 세계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목록으로 등재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이번 특별전은 일연 스님께서 남긴 기록들 사이에 생생한 인물들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전해야 할 역사를 망라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3월 1일 성보박물관에서 특별전시 '삼국유사: 기록하다' 개막식을 개최했다.

관장 환응 스님은 "호국불교라는 가치를 조명해보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고 뜻깊은 3.1절을 맞아 오늘 개막을 하게 되었다"며 "전시를 통해 〈삼국유사〉의 가치와 고승대덕 스님들의 호국정신을 만나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삼국유사〉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목록 등재사업은 2018년 9월부터 군위군에서 등재를 계획하고 2019년 군위군과 삼국유사 소장 기관인 연세대학교 박물관, 범어사 성보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등재 추진을 위한 연구 진행을 한국국학진흥원에 위탁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와 전국학술대회 등 등재를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2022년 2월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했고 4월 국내후보로 선정돼 2022년 11월 26일 최종 등재됐다.

특별전은 1부 기록을 남기다, 2부 나라를 지키다, 3부 역사를 전하다로 구성됐다.

△1부 '기록을 남기다'에서는 〈삼국유사〉에 담긴 기록에 대해 소개한다. 〈삼국유사〉에는 다양한 건국설화, 불교 전래 과정, 사찰 창건과 관련된 설화 및 고대 시가(詩歌)라고 할 수 있는 향가도 수록되어 있다. 특히 권4 '의해(意解)' 편에 수록된 고승의 전기를 소개하고 의상대사와 원효대사 등 그들의 진영을 함께 전시한다. 이 외에도 권3 '탑상(塔像)' 편과 권5 '감통(感通)' 편에 수록된 스님과 일반 사람들이 마주한 불 · 보살들과의 다양한 일화가 기록된 부분도 함께 소개된다.

△2부 '나라를 지키다'에서는 〈삼국유사〉를 지키고, 기록으로써 나라를 지킨 이야기에 대해 소개한다.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 스님과 집필 장소인 인각사(麟角寺)가 기록된 부분을 '삼국유사 범어사본(本)'을 통해 소개한다.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기록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호국정신을 기저로 삼은 관련 전적들을 전시한다. 또한 우리의 이야기, 〈삼국유사〉를 지키기 위한 후손들의 노력으로 전해진 인출본, 영인본도 함께 선보인다.

△3부 '역사를 전하다'에서는 〈삼국유사〉를 전하고, 나라를 지켜 역사를 전한 고승들에 대해 소개한다. 이번 전시에는 임진왜란 시기에 승장(僧將)으로 활약하며 부산진성(釜山鎭城)을 축조하는 등 부산과 인연이 있는 사명대사, 전쟁 이후의 범어사를 재건한 묘전대사의 진영 등을 마주하며 그들이 전하려 했던 뜻을 기린다. 마지막으로 삼국유사의 기록을 후대에 전하고자 했던 오성월 스님과 관련하여 삼국유사 5권의 맨 마지막 부분에 스님께서 〈삼국유사〉를 범어사에 기증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부분을 소개하고, 당시에 제작된 범어사 전경도(全景圖)와 선사상(禪思想)을 진작시키기 위해 간행된 선문촬요(禪門撮要)도 선보인다.

전시는 3 · 1절을 맞아 의병장 고광순(1848~1907)이 사용한 태극기, '불원복(不遠復)' 태극기로 마무리 된다. 특별전 '삼국유사: 기록하다'는 6개월간 이어지며 삼국유사 진본은 3개월 동안 제한 전시된다.

삼광사, 금강불교대학 수료식 및 입학식

수료생 86명, 입학생 179명
삼광한글학교 졸 · 입학식도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영제)가 2월 25일 지관전에서 '금강불교대학 34회 수료식 및 36회 입학식'을 봉행했다.

이번 해 수료생은 불교학과 중급과정 35명, 교법사 과정 51명으로 총 86명이며, 입학생은 교법사 과정 42명, 중급과정 65명, 초급과정 72명으로 총 179명이다.

이날 행사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과 천태종 원로위원 춘광 스님, 학장 영제 스님을 비롯해 김차수 총동문회장, 윤종갑 지도 교수 등이 동참했으며, 행사는 △개회선언 △삼귀의 및 반야심경 △법어봉독 △학사보고 △수료증 및 교법사증 수여 △상장 및 상품전달 △동문상 수여 △입학 허가 및 신입생 선서 △훈사 및 치사 △ 축사 △ 발전기금 기증 △ 축가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졸업을 맞는 불교학과 및 교법사과 학생들이 금강불교대학의 발전을 기원하며 발전기금 총 600만 원을 전달했다.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상월원각대조사님께서 금불대를 설립하신 것은 교육 불사를 통해 종도들의 소양을 기르고 지식과 지혜를 고양하여, 어디서나 청정하고 밝은 자아로 자리이타와 동체대비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다며 "배움의 공덕은 개인의 삶을 밝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우주 법계를 행복하게 하는 근원"이라고 강조했다.

학장 영제 스님은 "부처님의 불법을 공부하고 마음을 닦는 수행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삼보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건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금불대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악을 버리고 선을 실천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과정이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강불교대학은 1973년 8월 상월원각 대조사가 불교중흥과 인재양성을 위한 원력의 실천으로 시작됐다. 1983년 3월 4일 서울 성룡사가 천태학과 38명과 불교학과 130명을 맞아 제1회 입학식을 열고 개교했다. 삼광사는 이후 1987년 12월 금강불교대학 부산분교를 설립하고 1988년 3월 13일 불교학과 163명을 맞아 제1회 입학식을 봉행했다. 부산 금강불교대학은 1990년 제1회 수료식에서 불교학과 124명을 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불교학과 중급과정 3629명, 교법사과 166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한편, 삼광사는 2월 25일 지관전에서 삼광한글학교 제30회 졸업식 및 제31회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초등학력 인정반 20명, 중등학력 인정반 22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했으며, 문예반 30명, 초등인증 20명, 중등인증 20명이 입학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2기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출범

부산 어린이 불자 30여 명 새 출발



연등회와 팔관회의 보급과 계승을 위해 활동할 선재동자 문화전승단이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보운)는 2월 26일 범어사 휴휴정사에서 30여 명의 어린들로 구성된 '제2기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선재동자 문화전승단은 부산 지역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문화전승단으로 불교 대표 문화인 연등회와 팔관회의 가치와 보급, 계승을 위해 함께 활동한다.

출범식에는 지도법사 눌은 스님(범어사 포교국장), 범어사 어린이 법회 지도법사 벽해 스님(범어사 홍보과장), 김진희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운영회장을 비롯한 운영요원과 학부모,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어린이 등이 참석했다.

출범식에서는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어린이를 대표해 박시연 학생이 발원문을 낭독했다. 이어 눌은 스님이 인사말을 통해 선재동자 문화전승단의 역할과 활동 등을 설명했으며, 운영요원 및 활동 소임자들의 소개도 이어졌다. 눌은 스님과 벽해 스님은 2기로 새롭게 시작하는 어린이들을 소개하며 환영의 의미로 이름표를 직접 목에 걸어주었으며 준비한 오색 염주를 선물했다.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어린이들은 발원문을 통해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고 저희 선재동자 문화전승단이 앞장서서 부산불교 발전의 초석을 이루겠다"며 "오늘 가지는 이 마음 변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서원했다.

눌은 스님은 "오늘부터 여러분은 선재동자 문화전승단이다. 선재동자는 공부를 위해 53선지식을 찾아다닌 분"이라며 "앞으로 여러분도 선한 일에 성실했던 선재동자처럼 부산에 있는 어린이 불자를 대표해 불교문화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재동자 문화전승단은 출범식을 시작으로 전통등 만들기, 부산연등문화제 및 부산연등회 연등행렬 등에 동참하고 에코파크 성지 체험 프로그램과 유적지 탐방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문인協, 치유의 숲길 나무심기



부산불교문인협회(회장 차정연)가 2월 25일 부산 승학산 등산로에서 '홍매화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치유의 숲길 조성을 위해 진행된 이번 홍매화 나무 심기는 부산 사상구 승학산 약수암 신도들과 함께 진행됐으며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원 등 40여 명이 동참했다. 홍매화 나무심기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이며, 회원들은 이번에 36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승학산 등산로는 반딧불이 있는 청정지역으로 산책하기 좋은 올레길과 연결되어 시민들의 쉼터로 알려져 있다. 또한 낙동강과 노을로 아름다운 경치를 선사해 시민들에게 치유를 안겨주는 장소이다.

차정연 회장은 "홍매화는 1월의 한파와 칼바람 속에서도 꽃순을 올리고 피어내어 우리들의 일상에 새로운 용기를 주는 꽃이다. 나도 예전 힘든 시절에 약수암 길목에서 한파 속에 피어있는 홍매화를 보며 용기를 얻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부터 한 그루 한 그루 심은 홍매화가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날까지 홍매화를 심고 가꾸려 한다"며 "무엇보다 치유의 숲길 가꾸기에 함께한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원들의 열정에 감사의 마음을 올린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범어사, 3.1운동 104주년 기념

3.1운동 유공비 앞서 만세삼창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보운)가 3월 1일 범어사 3.1운동 유공비 앞에서 '3.1운동 104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는 주지 보운 스님을 비롯해 국장 스님들과 신행단체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 3.1유공비는 범어사 명정학교와 지방학림 학생들을 비롯해 범어사 스님들이 주축이 되어 일으켰던 부산 만세운동을 기억하고자 건립되었다"며 "유공비에는 모든 이들의 이름과 숭고함을 기록할 수 없지만 추모법회를 통해 자주독립을 이루었던 과거 인연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흔적 없는 무명 고혼을 위로해 민족정신을 계승할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조계종부산聯, 승려연수교육 개강

3월7일~4월4일 매주 화,
'선으로 본 대승기신론'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원허)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인증과정인 승려연수교육 '선으로 본 대승기신론'을 개강한다.

강사는 용학 스님(전, 범어사 승가대학 강주)이며, 교육기간은 3월 7일 부터 4월 4일 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부터 5시까지 총 5회로 진행된다. 장소는 부산 안국선원교육관(교대로16번길 27) 중강당이며 교육대상은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이다. 인증기관을 통해 교육을 이수한 스님들은 종단이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한 것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증점수 30점이 부여된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녕 관룡사, 제5기 불교대학 졸업식

2월 25일, 총 65명 졸업



경남 창녕 관룡사 불교대학(학장 정안)이 2월 25일 경내 대웅전에서 '제5기 불교대학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총 65명이 졸업했다.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은 발전기금을 모아 전달했으며, 학장 정안 스님은 발전기금을 불우이웃돕기로 회향했다.

시상식에서는 조계종 포교원장상에 김미숙, 김애란, 창녕불교사암연합 회장상에 박숙희, 학장상은 전분남 외 12명이 선정됐으며, 개근상은 윤재순 외 8명이 수상했다.

학장 정안 스님은 "졸업이 끝이 아니며 새로운 시작과 넓은 세계로 나가는 출발점"이라며 "시작과 끝이 없는 무심의 세계에서 끊임없는 정진과 배움으로 살아가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교대학 학사 일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포교에 앞장서고 자비 사상을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통도사, 가사불사 · 생전예수재 입재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2월 27일 경내 설법전에서 '불기 2567년 생전예수재 및 가사불사 입재식'을 봉행했다.

통도사는 49일 생전예수재 기간 동안 前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과 통도사 율주 덕문 스님이 법문하며 회향식은 4월 16일 오전 8시에 봉행한다.

생전예수재 기간 동안 통도사는 가사불사를 진행하고 불자들이 공양올린 가사는 4월 9일 이운식 후 승보공양 올린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는 "예수재는 사람이 병을 얻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과 같다"며 "업장을 미리 닦고 공덕을 지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참여한 모든 대중들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고 물러남 없는 정진으로 잘 회향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인사말에서 "미리 공덕을 닦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생전예수재와 가사불사에 두루 동참하고 복된 불자들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도사는 이날 불자체육인 인재양성을 위해 불자 체육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생은 경남체육고 단거리부 신의진 학생을 비롯한 5명이며 장학금은 각 100만 원씩 총 500만 원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인도 아삼 내 대학에 한국어학교 개교

(사)세상을향기롭게, 1년 과정



사단법인 세상을향기롭게(이사장 정여)가 2월 20일 인도 아삼주 디부르가르대학교(Dibrugarh University, Vice-Chancellor, Prof. Jiten Hazarika)에 '한국어학교'를 열었다.

디부르가르대 한국어학교는 2학기 1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6개월마다 신입생을 모집해 2년 후 총 60명이 수료할 예정이다.

세상을향기롭게 세종지부가 한국어학교 총괄운영과 지원을 담당하며 한글 교육을 위해 박희선 씨가 교수로, 비카스(Vikas) 씨가 강사로 활동한다. 세상을향기롭게 공익활동 협력파트너인 보라히 재단(Borahi Foundation, Director, Pratul Kumar Bora)은 한국어학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약속했다.

개교식에는 비스와지 페구(Biswajit Pegu) 디부르가르 지역 대표와 한국어학교 관계자를 비롯한 대학생 전원이 참석했다. (044)862-7104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전북 봉축위원회 대규모 연등축제 예정

불기 2567년 봉축 행사 논의
가족 UCC 공모전 등 행사 다채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라북도 봉축위원회가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라북도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금산사 주지 일원,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가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 봉축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2월 27일 전북불교회관 보현사 2층 강의실에서 열린 이날 봉축위원회 회의는 사단법인 불교문화보존회 설립에 대한 보고, 불기2567년 봉축위원회 구성, 불기2566년 봉축결산보고, 올해 봉축행사 계획안 심의,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봉축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과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부원장 지홍 스님, 총무국장 현진 스님을 비롯한 보문종, 용화종 등 각 종단대표,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등 각 신행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봉축위원회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봉축행사 일정과 약 1억 4천여 만 원의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봉축위원장 일원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된 연등축제가 되지 못했다"며 "이제 코로나로 인한 위험성이 많이 해소돼 그 어느 해보다 알찬 연등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는 (사)불교문화보존회의 발족에 따라 불교문화보존회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의 주관으로 봉행될 예정이다.

이번 봉축행사는 4월 29일 기원탑 점등식을 시작으로 거리연등 장엄, 군부대와 경찰청 위문, 교도소 재소자 법회에 이어 예전과 달라진 대규모 연등축제로 예전과 많이 달라진 색다른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

장소도 전주시청 노송광장에서 전라감영으로 바뀌게 되며 단순한 연등축제가 아닌 일반시민과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열린다.

불교연합합창단, 청소년 댄스팀 공연, 지역 퓨전 국악단 및 가수들이 출연하는 식전행사와 유명가수들이 출연하는 뒤풀이 공연으로 다함께 즐기는 연등축제가 될 전망이다.

눈에 띄는 행사로는 청소년 댄스 UCC공모전, 부처님 생일축하 가족 UCC 공모전, 어린이 큰 잔치 등 연등축제를 모든 계층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로 승화시킬 계획이다.

행사장에서는 사찰음식과 명상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며 연등 만들기, 인경체험, 소망 번 쓰기 같은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봉축 기간 동안에는 전주시내 백제교 등 주요 교량에 LED 연등이 불을 밝히게 된다.

진안 쌍봉사, 지역 어르신에 나눔

밑반찬 세트 100가정에 전달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월 25일 쌍봉사에서 진행된 이번 나눔 봉사활동에 참가한 봉사자들은 무말랭이무침, 섬초 · 배추무침, 메추리알, 곤약조림, 미역국으로 구성된 밑반찬 세트를 만들었다. 이날 만든 밑반찬은 진안군 지역의 홀몸어르신들과 형편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 100가정에 전달됐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이번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으로 3년째 따뜻한 마음을 모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많은 이웃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 사람들 간의 상호 이해와 공감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란다"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찬을 받은 한 어르신은 "맛있는 반찬을 받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다. 봉사자들의 정성어린 봉사와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따뜻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신 반찬들은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보경 스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완도에 해수관음상 조성 추진

장보고 대사 염원 담은 랜드마크
건립 타당성 모색 학술대회 개최



전남 완도군이 장보고 대사의 염원이 담긴 불교 랜드마크 해수관음상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완도군(군수 신우철)과 목포대학교 호남문화콘텐츠연구소는 2월 23일 완도군 생활문화센터에서 '관음신앙과 해수관음상, 그리고 완도 장보고' 란 주제로 '완도 해수관음상 건립 타당성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를 개최했다.

9세기경 완도를 중심으로 활동해 동아시아 해상무역을 석권한 장보고 대사가 관음신앙에 의지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진행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정병삼 숙명여대 명예교수의 '관음신앙의 불교사적 의의와 해수관음' 에 대한 기조발표에 이어, 조범환 서강대 사학과 교수의 '관음신앙의 해양사적 의미와 장보고' , 신선혜 호남대 교양학부 조교수의 '전남의 관음신앙과 완도' , 강희정 서강대 동아연구소 교수의 '해수관음의 전통과 새 시대의 관음상' , 송화섭 前 중앙대 교수의 '동아시아 관음성지의 남해관음과 완도 청해진' 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 정기총회

2월 24일 성주사서 정기총회 개최
차기회장 법안스님 만장일치 추대
명칭 변경 등 안건 심의 · 의결
故 박수철 유족에 위로금 전달



창원불교연합회(회장 정인)는 2월 24일 창원 성주사에서 불기2567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차기 회장에 창원 성주사 주지 법안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 제7대 회장으로 추대된 성주사 법안 스님의 임기는 2년으로 3월 1일부터이며 취임식은 3월 10일 성주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7대 회장에 추대된 법안 스님은 수락사를 통해 "스님들의 기대에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스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해서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가 일취월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천웅사 성우 스님, 반야사 혜명 스님의 감사보고에 이어 2022년 결산 및 2023년 사업계획안이 통과됐다. 또 올해 봉축행사 계획과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 명칭 변경의 건 등 주요 안건을 심의 · 의결했다. 지난해 창원시가 창원특례시로 승격됨에 따라 창원불교연합회의 공식명칭도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로 변경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는 지난해 12월 별세한 故 박수철 창원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유족에게 위로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창원특례시불교연합회 7대 회장에 추대된 법안 스님은 1980년 범어사에서 덕명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82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994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 제11대, 제12대, 제13대, 제15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2005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2011년~2013년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장, 2012년~2014년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 2012년~2016년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 2012년~2016년 대한불교조계종 결사추진위원회 위원 등 종단의 요직을 역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북불교환경연대(준), 생태방생

군산시 회현면 만경강 일대서
철새 먹이주기 볍씨 약 90kg



전북불교환경연대 준비위원회(위원장 남궁선)가 새만금과 만경강 주변에서 월동준비 중인 철새들을 위한 먹이주기 생태방생을 진행했다.

전북불교환경연대는 2월 25일 큰 기러기, 쇠기러기, 청둥오리, 노랑부리저어새, 말똥가리 등 겨울철새들이 월동하고 있는 군산시 회현면 금광리 만경강 일원에서 철새 먹이주기 생태방생을 진행했다.

이날 생태방생 활동에는 고창 미소사 회주 종범 스님, 미소사 주지 대우 스님, 미소사 불자들과 전북불교환경연대 회원 20여 명이 동참했다.

집결지인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에서는 오동필 새만금생태조사단장의 현재 새만금의 생태환경과 올 겨울을 이곳에서 나고 있는 철새들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이 있었다.

종범 스님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먹이주기 장소인 회현면 금광리 만경강변 농지에 볍씨 약 90kg을 곳곳에 놓아두었다.

종범 스님은 "새만금과 만경강은 다양한 생명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다. 특히 겨울 철새들이 월동을 마치고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기를 바라며 오늘 철새 먹이주기 활동에 동참한 불자들이 이웃에도 널리 알려 생활 속에서도 생태환경을 생각하는 생활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주연 불교환경연대 사무총장은 "울산과 부산 낙동강 큰 고니 먹이주기 생태방생에 이어 오늘 새만금 만경강에서 전북불교환경연대 준비위원회와 미소사가 함께 생태방생을 하게 됐다" 며 "뭇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생태방생이 전국의 사찰에도 많이 알려져서 곳곳에서 생태방생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가족과 함께 참가한 문소희 불자는 "언론에서만 접하던 새만금을 직접 와보고 환경활동가들이 노력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생태환경에 대해 실감하는 하루였다"며 "가족들과 함께 생태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리 환경을 살리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前 스리랑카 대통령, 대구 사원 방문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前 스리랑카 대통령이 2월 25일 대구 스리랑카 사원(주지 완사 스님)을 방문했다.

국제포럼 참석을 위해 지난 목요일 입국한 시리세나 전 스리랑카 대통령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찾는 스리랑카 대구사원을 찾은 것이라고 밝혔다.

평소 스리랑카사원과 이주 근로자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함께하는 세상(이사장 은장권)' 은 스리랑카 복지기관과 대구 스리랑카 사원 후원을 위한 기금을 시리세나 前 스리랑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시리세나 전 대통령은 "한국은 코이카를 통하여 스리랑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앞으로 활발한 교류로 양국 관계가 돈독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배철완 대구지사장



신란 탄생 850주년 대기념전 개최

3월 25일부터 일본 교토국립박물관
국보 11건 등 총 180건 성보 모여
"후손 증언 모은 매우 중요한 자료"

박영빈 객원기자



신란스님이 만년까지 직접 교정을 보던 〈교행신증〉을 설명하는 연구원.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일본불교의 최대종단인 정토진종(淨土眞宗)의 종조, 신란상인(親鸞上人)의 탄신 850주년을 맞아 정토진종과 교토국립박물관이 함께 역대급 특별 기념전을 개최한다. 지난 2월 23일 일본의 '아사히 신문' 은 오는 3월 25일 개최될 특별전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일본만의 고유한 색채를 가진 다양한 불교교학이 탄생한 가마쿠라 시대. '가마쿠라 신불교' 라고도 불리는 이 시기 정토신앙을 강력하게 주장한 신란상인의 탄생을 기리는 역대 최대규모의 특별전이 열린다.

신란을 종조로 삼는 정토진종과 교토국립박물관 측은 오는 3월 25일부터, 교토국립박물관에서 '신란 - 생애와 명보(名寶)' 라는 이름의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신란 탄생 850주년을 기념하여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정토진종의 주요한 10개 분파가 소장한 성보들을 대여받아 더욱 그 의미를 더한다.

신란은 내전과 가뭄 등으로 오랫동안 격동하던 시대에서 태어난 인물이다. 9세에 출가하여 당시 주류였던 귀족중심의 불교를 따랐지만, 대중과는 격리되어 중생을 구제하지 못하는 현실에 산문을 내려온다. 신란은 당시 전수염불(專修念佛)을 가르치던 고승 호넨(法然)의 문하로 들어가 오직 아미타불의 본원을 믿고 염불만으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구제한다는 가르침을 전파했다. 이후 기존 불교계의 탄압을 받아 강제로 환속 당해 유배를 떠났지만 스스로 비승비속이라는 입장에서 염불의 가르침을 곳곳에 전파했다. 신란의 가르침은 이후 일본불교에서 중요한 사상적 변환을 이끌었으며, 가마쿠라 신불교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전시회에선 국보 11건, 중요문화재 70여점을 포함한 총 180건의 성보들이 모였다. 이중 주목받는 전시품은 신란의 증손자인 카쿠뇨(覺如)스님이 신란의 33주기를 맞아 만든 그림 전기다. 이 전기는 신란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거나, 일화를 아는 전국의 신자들과 스님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려진 것으로 전한다.

교토국립박물관 측은 "신란은 생애 다양한 저술과 편지로 자신의 사상과 가르침을 전했지만, 자신에 대한 자전적 기록은 매우 드물다. 신란의 후손이, 사후 얼마 되지 않아 남은 증언들을 모아 만들었기에 이 그림은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동본원사판의 그림 전기는 전체 수리작업 후 최초로 대중에 공개되는 것이기에 또 그 가치를 더한다.

또 주목받는 전시품은 신란이 직접 정토진종의 가르침과 신앙을 체계화한 저술인 〈교행신증(敎行信證)〉이다. 신란이 친필로 남긴 원고와 직제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필사한 2종의 판본 등 신란 당대의 판본 3종이 최초로 한 자리에 모인다. 특히 친필원고에는 만년(晩年)까지 거듭해서 교정과 연구를 이어나간 흔적이 역력하게 남아 신란의 구도열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특별전을 담당한 교토국립박물관의 우에스기 토모후사 연구원은 "신란은 스스로를 '어리석은 중(愚禿)' 이라 자칭했다. 자기 자신이 그 모습 그대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타력의 가르침을 만난 신란의 생애나, 그 고민에 마주한 결과인 신란의 가르침과 만나는인연이 되길바란다"며 특별전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法, 5년 전 동굴서 기적 생환 소년 사망에 위령제

조난 시 명상으로 공포 이겨내 화제
유해 태국 운구 후 불교 장례 결정

지난 2월 16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 은 태국 사원에서 봉행한 위령제 소식을 전했다. 위령제 대상은 영국 유학 중 돌연사한 자국민 소년이다.

태국 치앙라이 주 왓 프라 탓 도이와오 사원에 2018년 동굴 조난사고 생존자들이 함께 구출 되었던 '뚜앙페치 돔 쁘롬텝' 의 위령제 및 추모식을 위해 모였다. '돔' 은 2018년 6월 동굴에서 2주간 고립되어있다 극적 생환한 12명의 소년 중 한 명이었다. 당시 조난된 소년들은 코치의 지도에 따라 불교 명상을 하며 배고픔과 공포를 이겨냈다고 밝혀 이목을 끈바 있다. 사망한 돔은 수색작업 중 사망한 태국 해군 사만 쿠난(37)을 추모하는 뜻에서 단기 출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영국 유학 중 돌연사 한 '뚜앙페치 돔 쁘롬텝' 의 위령제를 봉행했다. 사진출처 = 데일리메일

BBC뉴스 보도에 따르면 '돔' 은 영국 레스터셔에 있는 학교 기숙사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튿날 사망했다. 부검이 이루어졌으나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태국 언론은 돔이 머리에 부상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돔의 시신을 인도 받지 못한 돔의 부모는 위령제에 사진과 그가 아끼던 신발과 옷으로 그를 대신했다. 함께 생환했던 축구팀 친구들은 돔의 영혼이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의식을 행했다.

2018년 함께 구조된 '쁘라차크 수탐' 은 추모사를 통해 "돔은 국가대표가 될 것이라며 지켜봐달라고 말했었다. 영국으로 떠나기 전 돔에게 '네가 돌아오면 그땐 너의 사인을 받아둬야 하는거 아니냐' 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함께 축구에 대한 꿈을 이루자고 했는데 만약 다음 세상이 있다면 함께 뛸 수 있길 바란다. 잘자 내 사랑하는 친구야 우리 12명은 언제나 함께야"고 덧붙였다.

돔과 함께 무 빠 유소년 축구팀에서 활동하던 친구들은 돔의 유해가 태국으로 무사히 운구되어 불교 장례식이 거행될 수 있도록 돕기로 결정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돔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브룩하우스 칼리지 축구 아카데미' 에 장학금을 받고 입학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법당 질주하는 마이크로 드론

日 진언종 사찰서 드론 레이스 개최
지역 행사로 확고히 자리매김 염원



법당에서 열리는 경기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참가자들. 사진출처=테레아사 보도화면 캡쳐

장엄한 법당을 가로질러 나는 빛나는 물체. '마이크로 드론' 이라고 불리는 초소형의 드론이다.

다양한 색으로 빛나는 드론들이 법당과 경내 주변을 질주하며 '드론 레이스' 가 진행됐다. 2월 23일, 일본의 '테레아사 뉴스' 는 사찰에서 열린 이색적인 경기에 대해 보도했다.

경기장으로 이용된 사찰은 900년 역사의 샤카인(釈迦院). 진언종 소속의 고찰로 지역 신행활동의 중심점으로도 유명하다. 최근 이 사찰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드론 레이스로 전국에서 유명세를 얻고 있다.

드론 레이스란 손바닥 너비의 초소형 드론인 마이크로 드론을 일정 구간에서 조정하며 속도를 경쟁하는 경기이다. 샤카인에서는 올해로 3회째 드론 레이스가 개최됐다. 사찰이 소재한 히로시마현 후츄(府中)시는 시정사업으로 드론을 이용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 지역의 역사성이 깊은 사찰이 드론 경기장으로 이용되는 것 또한 이와 관련된 이유다.

샤카인의 주지 후지이 쇼코 스님은 "아무래도 속도가 빠른 것이 주가 되기에 정밀한 조정이 어렵고, 법당 여기저기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난다. 간혹 촛대나 탑 등에 충돌하면 가슴이 철렁하긴 하나, 30g정도의 소형 드론들이라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것은 없다"며 웃어 보였다. 사찰을 경기장으로 쓰게 된 것에 대해서는 "나 자신이 취미로 드론을 조종하고 있고, 다른 국대 드론 레이스에도 참가하고 있다"며 "사찰과 드론이라는 상반된 이미지를 통해 지역의 활성화와 대중에게 다가가는 불교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드론 레이스는 특히 일본 전국에서 19명의 참가자가 집결, 경기는 페이스북 라이브 등을 통해 생중계 됐다. 본존불이 모셔진 수미단을 시작점으로 사찰의 마당과 불단 주변을 돌며 공중에 걸린 표적지를 통과하는 것으로 점수와 순위가 매겨졌다. 주지인 쇼코 스님은 전체에서 5위를 차지했다.

쇼코 스님은 "3회째 진행되면서 지역은 물론, 드론 레이스계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다. 처음엔 드론 매니아들만 모이던 경기에서 지역 주민들이 관람을 오는 등 매년 발전이 거듭되고 있다"면서 "꾸준한 정기개최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행사의 하나로 확고히 자리를 잡겠다"는 목표를 내비쳤다. 박영빈 객원기자

북런던 불교센터 "경영 안정화" 호소

COVID-19 장기화…불사금 모연

북런던 불교센터가 경영 안정화를 호소하며 불사금 모연을 시작했다.

지난 2월 21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 은 영국 런던 북부 이슬링턴에 있는 도심 불교 포교원 '북런던 불교센터' 의 경영 지원 호소 및 성역화 불사 모연 소식을 전했다.

북런던 불교센터의 라트나프라바 이사장은 "도심 포교원은 대출을 받아 개원했고 매달 5,000 파운드(한화 약 8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원리금 상환으로 지출했다. 그러나 COVID-19의 장기화로 모든 수입원이 줄어 대출금 상환 및 불교센터 운영에 심각한 경영난이 찾아왔다"면서 "우리 센터가 입주한 건물은 포교원이기도하며 명상지도사, 상담사, 요가 선생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거주지이기도하다. 이번 불사금 모연을 통해 불교센터의 경영 안정을 이루고자 한다"고 불사 동참을 독려했다.

북런던 불교센터의 목표 불사금은 75,000파운드(한화 약 12억)이다. COVID-19 이전 센터는 서점, 3개의 법당, 2개의 상담실, 1개의 다목적 강당을 통해 상담, 요가, 명상, 기공 수업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 대여 수입에 운영을 지속할 수 있었다. 센터 운영진과 회원들은 센터 건물에 대한 담보 대출금을 갚아 성역화에 성공해 고정 지출을 줄여 안정적인 운영과 포교를 위한 무료 불교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북런던 불교센터는 올 여름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북런던 불교센터 불사금 모연 포스터. 사진출처=북런던 불교센터

라트라프라바 이사장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수입원이 상당히 감소했다"면서 "만약 우리가 대출금 상환이라는 고정 지출을 없앨 수 있다면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풍성해질 것이다. 물론 정말 낮은 가격이나 무료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기에 포교 활동에 더욱 유의미한 결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요크 불교센터라는 이름으로 개원한 이 도심 포교원은 유럽불교공동체 중 하나인 '트리라트나(Triratnam, 삼보회)' 소속이다. 트리라트나의 오랜 회원이자 포교원장인 샤카파다(Shakyapada)는 "트리라트나 불교는 아시아에서 시작된 불교의 관습과 경전을 서양인에게 친근한 방식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다양한 장르로 그려본 십이지 열두 동물
〈十二支〉

무우수갤러리 기획전 K-ART Ⅵ
십이지展:
열두 동물로 살펴보는 한국 문화 코드

서울 무우수갤러리 3월 30일까지
단청문양 등 전통재료 · 기법부터
아크릴 · 스프레이의 현대회화까지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조이락, 진달래 꽃비 내리다, 40.5x51cm, 비단에 석채, 2023

십이지(十二支)를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무우수갤러리가 3월 30일까지 'K-ART Ⅵ. 십이지展: 열두 동물로 살펴보는 한국의 문화 코드'를 연다.

이번 전시는 곽수연, 조이락 등 한국화가, 불화작가, 민화작가, 조각가, 팝아티스트로 구성된 13명의 작가가 민화, 한지화, 비단채색화, 수묵화, 도자, 조각, 팝아트로 표현한 십이지의 열두 동물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단청문양 등 전통재료와 기법을 활용한 작품부터 아크릴과 스프레이를 활용한 현대회화까지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다.

올해의 십이지 동물인 토끼는 사람에게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동물로, 약하고 선하지만 영특한 동물의 상징이기도 하다. 조상들은 밤하늘의 달을 보며 방아를 찧고 있는 토기의 모습을 그리며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기도 했다. 토끼를 그린 김경현의 작품 '화(和), 48×66cm, 광목위에 수묵채색, 2023'도 둥근 달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김경현 작가는 "달의 이칭인 토월(兎月)은 달 속에 토기가 살고 있다는 오래된 민간설화에서 유래됐다. 그리고 옥토끼는 달에 살면서 떡을 찧거나 불사약을 만든다고 전해진다. 이처럼 토끼는 장생불사적 이미지로 불려왔다"고 토끼를 그린 과정을 설명했다.

"'만오천불도'를 그리기 시작하던 엄동설한, 하이얀 비단 바탕에 부처님 가득할 때 문득, 고개 들어 창밖을 내다보니 연분홍 진달래꽃 만발하네. 아득한 시간 바삐 가던 저 소야! 언제쯤 그 걸음 멈추려나! 2023 입춘 날에."

소를 그린 조이락의 '진달래 꽃비 내리다(40.5×51cm, 비단에 석채, 2023)'는 작가노트의 '만오천불도'를 연상케 하는 수많은 부처님상을 배경으로 십이지의 하나인 소가 진달래 꽃비 속을 걸어간다. 천상계인지 인간계인지 알 수 없는 시공속을 걸어가고 있다. 그림은 재료로 석채를 써서인지 익숙한 탱화의 느낌도 있으며 또 다른 십우도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십이지의 하나인 소는 2천년 이상 우리 민족과 함께해 왔다. 농경사회 속에서의 소는 귀중한 재산의 상징이었다. 또한 주인을 끝까지 따르고 지키는 우직함과 부, 길조, 의로움, 자애 등의 상징이기도 하다. 또한 '십우도(심우도)' 속의 소는 깨달음의 상징으로도 그려지고 있다.

양을 그린 김정현의 '인연(41×21.5cm, 비단바탕, 석채, 분채, 2023)'은 단청문양으로 양을 그렸다. 김정현 작가는 "한국에서 전통건축물에 채색하는 것을 단청(丹靑)이라고 한다. 나는 다양한 단청 문양 중 금문을 부단히 좋아한다. 금문은 비단의 무늬로 다양한 패턴과 각종 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종 모양들이 서로 얽혀있는 형상이다. 아주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다. 복잡한 듯 질서정연하게. 마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서로가 없으면 완성되지 못하는 인연들. 다양한 색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이 된다. 우리네 인생처럼."이라며 단청을 쓰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 선조들은 선사시대부터 여러 가지 생활문화나 종교를 표현하기 위해 동물상징을 많이 사용했다. 건국신화의 중요한 모티프 중 하나도 동물이다. 단군의 어머니로 나타나는 곰, 호랑이의 도움으로 살아난 고려시대 왕건의 6대조 호경장군, 해동 육룡 조선의 '용비어천가' 등은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이해하고 한국민속학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십이지의 열두 동물은 우리 민족 신앙의 원형이자 우리 문화의 근간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콘텐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예로부터 한국인은 해가 바뀔 때마다 그 해가 무슨 띠의 해이며, 그해의 수호동물이라고 할 수 있는 십이지의 동물이 지닌 상징성과 의미를 찾아 새해를 예점하기도 했다.

또한 그 해에 태어난 아이의 운명과 성격을 묶어서 해석해보기도 하고, 남녀간의 궁합을 보기도 했다. 이러한 풍속은 세대를 거듭해 전승되어 오늘날까지도 이어오고 있다. 한국인의 생활과 관념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십이지 열두 동물은 한국인의 삶과 우주를 이해하려는 독특한 접근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십이지신은 땅을 지키는 열두 신장으로, 십이신장 또는 십이신왕이라고도 한다. 〈약사경〉을 독송하는 불도를 지키는 신장이라고 전해온다. 이들은 12방위에 맞추어 호랑이 · 토끼 · 용 · 뱀 · 말 · 소 · 원숭이 · 닭 · 돼지 · 개 · 쥐 · 양 등의 얼굴과 사람 몸의 모습을 보인다.

한국의 십이지신앙은 약사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선덕여왕 때 이미 밀본 법사가 〈약사경〉을 독송해 병을 고쳤다는 기록이 있다. 김유신 장군도 〈약사경〉을 호지하는 이인(異人)과 교분을 나누었다고 전한다.

십이지신앙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까지는 밀교의 영향으로 호국적 성격을 띠었으나 삼국통일 이후 단순한 방위신으로서 그 신격이 변모했다. 즉 탑을 만들 때 그 기단부에 십이지신상을 조각했는데, 경주 원원사지에 있는 삼층석탑이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조형예술로서 십이지신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 원원사탑이 건립된 8세기 중반 경덕왕 때이다. 이것은 탑이 불교건축에 있어서 구심점으로 인식된 삼국통일 이후의 일반적인 경향에 따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전시를 기획한 양효주 학예실장은 "십이지를 보다 다채롭고 재미있게 이해하고자 다양한 장르로 전시를 구성했다.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열두 동물이 갖는 상징성과 각자의 수호 동물을 알아보며 신년을 유쾌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02)732-3690.

국립중앙박물관 3월 큐레이터와의 대화

중근세관 고려실 '고려시대 불교문화'
불교회화실 '부처의 세계를 보다' 등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은 매주 수요일 야간개장 시간(오후 6시~9시)에 큐레이터의 상세한 해설을 들으며 전시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마련한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운영한다.

3월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특별전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를 비롯해 상설전시실 곳곳에서 문화유산과 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주제로 구성된다. 특별전시실에서는 3월 19일 막을 내리는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의 마지막 큐레이터와의 대화가 진행된다.

선사고대관에서는 '삼국시대 장식대도', '고구려 고분벽화 이야기', '유물로 보는 백제의 대외교류', '신라 이사금 시기에서 마립간 시기로의 사회변동' 등 삼국시대 각국의 사회 · 문화상을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근세관 고려실 '고려시대 불교문화'에서는 고려의 불교문화가 남긴 문화유산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 알아 볼 수 있고, 대한제국실에는 '유리건판과 궁궐사진'이라는 주제를 마련해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으로 남겨진 자료와 그 활용에 대한 설명을 들려준다. '개화기의 신문물'에서는 대한제국 시기 서양에서 들어온 새로운 기술과 문물의 수용에 대한 해설이 이어진다.

서화관 서화Ⅱ실에서는 전시중인 고사인물화를 주제로 구성된 '우리 그림 속 옛 이야기'가 준비되어있고, 불교회화실 '부처의 세계를 보다'에서는 불화가 그려내는 이상세계를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지난해 개편하여 개관한 조각공예관 청자실에서는 '도자문화의 시작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도자문화의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며 전시실을 둘러볼 수 있다.

그 밖에도 'AR 내비게이션으로 만나는 박물관', '젊은 세대가 바라본 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교육상자-도자기' 등 상설전시실 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주제의 큐레이터와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관람객과 박물관의 소통 공간인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20명 이상)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에 예약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큐레이터와의 대화' 관련 리플릿은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관람정보-전시해설-큐레이터와의 대화' 자료실에서 e-book, PDF 형태로 제공한다. (02)2077-9000.

박재완 기자


중근세관 고려실 '고려시대 불교문화' 청녕사년명동종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1~3/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한국불교사:4세기고구려의수용에서1900년대종단개혁까지한국불교1700년의구슬을꿰어내다	정병삼 지음	푸른역사
2	생전예수재(의미,유래,공덕)개정판	포교원포교연구실	조계종출판사	7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논리	김성철	오타쿠
3	알기쉬운불교강좌(상)	대안	혜성출판사	8	불교입문(조계종신도교재1/입문)*2017년개정판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4	예수님은법받은미륵존여래불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9	부처님의마지막발자취(초기불전003)대반열반경	각묵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5	한글아함경*재개정판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10	화엄경을머금은법성게의보배구슬	김성철	오타쿠

책세상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으로 되돌리는 불사"



초기불교 경전백선
한국붇다와다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
해피스님 편역/3만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는 우리네 삶의 이야기이다. 삶에 대한 부처님 해석에 대해 공감과 동의 그리고 신뢰를 일으켜 뒤따르는 사람들로 구성된 종교가 불교이다. 삶에 대한 부처님의 해석을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삶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알고 봄이기 때문에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삶은 향상으로 이끌리게 된다. 하지만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가치들에 따라 부처님의 해석은 감춰지기 시작해 지금에 이른다. 그만큼 배워 알고 실천해도 삶이 바르게 향상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유행하는데, 으뜸 종교인 불교가 정체성을 상실케 되는 과정이다. 이슬람 제국 지배 이후에 인도서 불교가 되살아나지 못한 원인도, 작금의 한국불교 현실을 초래한 원인도 대개 이런 정체성 상실을 주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렇다면 정체성 상실은 불교 신자가 불교를 모르는 한국불교 현실을 직시한 다른 표현이라고 하겠다. 껍데기는 불교 신자이지만, 알맹이는 불교가 아닌 다른 것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토대는 불교를 아는 불교 신자 양성이라고 해야할 것인데, 특히 부처님께서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으로 되돌아 가야하는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란 목적을 가진 이 책은 부처님께서 생전에 설한 가르침으로의 4부 니까야에서 발췌한 6장 100개의 경으로 구성되었는데, 오로지 불교 신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편집했다.



책을 편역한 해피 스님

4부 니까야서 발췌한 6장 100개 경
불교신자 정체성 회복키 위해 편집
빠알리원전, 한글 읽기 발음과 번역
추가로 세 개 수행경전 별책 준비중

이 책은 △제 1장 깨달음의 자리에서 설해진 근본 가르침(6개경) △제 2장 사실과 깨닫고 실현한 법(17개경) △제 3장 깨달음의 재현과 제자들의 깨달음(10개경) △제 4장 분석과 용어정의(11개경) △제 5장 신행과 향상하는 삶(37개경) △제 6장 수행과 지도(19개경)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상세한 재산 경' 은 배움의 재산을 말하는데, '처음도 좋고 중간에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법들과 온전하고 완전하게 청정한 범행을 선언하는 가르침을 많이 배우고, 만족하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써 이어보고 견해로써 잘 꿰뚫는 것' 이다. 부처님 생전에 직접 설한 가르침이 말에 의해 익숙해져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이 책이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에서 이 책이 시도하는 독송은 매우 중요한 신행이다. 이런 신행을 이끌기 위해서 책은 세가지 형태로 경을 싣고 있다. △빠알리 원전 △우리말 읽기 발음 △우리말 읽기 번역(해피스님) 등이다.

이외에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포살과 초기불교, 백팔배를 함께 실었다. 포살은 포살경이 설명하는 포살 실행 의식이고, 초기불교 108배는 한국불교의 전통적 신행인 108배에 초기불교 경전이 말하는 포괄적 실천 44가지를 적용해 구축한 신행 방법이다. 지난해 7월의 안거 때 두 개의 경을 시작으로 아침 독송을 시작했는데, 1년반 동안 독송을 확장해 100개의 경이 되었다.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100개의 경으로 편집한 것은 아니다. 1년반 동안의 독송과 해설 과정에서 신행의 필요에 맞춰 보충하다보니 100개의 경으로 완성됐는데, 추가적으로 세 개의 수행경전을 별책으로 준비중이다.

책을 편역한 해피 스님은 "스리랑카 불교를 중심으로 한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발음을 우리말로 옮겨 현재로서는 최선의 표기를 했다. 또한 기존 니까야 와는 다른 부처님 설한 내용을 그대로 드러내도록 노력한 것이 이 책의 큰 특징"이라며 "100개의 모든 경이 원전과 발음과 저자의 해석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불교수행 깨달음 상담에 적용한 사례 묶어



세상에는 밝음만 있다
박종욱 지음
사단법인통섭불교원 펴냄
2만 원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중독 등 마음의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내담자들은 고통을 호소하며 심리치유를 위해 상담소를 방문하며 도움을 요청한다.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은 중생의 고통과 번뇌를 해소하는 최초의 상담가였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상담은 곧 진리였고 깨달음의 장이었다.

신간 〈세상에는 밝음만 있다〉는 불교 수행으로 얻은 깨달음을 상담에 적용한 사례를 엮은 책이다.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됐다.

우선 1장은 '출생과 어머니와 사별' 을 담아 어릴 적 경험과 불교에 귀의한 인연을 소개했다. 2장 '성전암의 2주' 에서는 저자가 수행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상관(實相觀)에 대한 설명을 정리했다. 3장 '어둠은 없고 밝음만 있는 체험과 본성의 마음을 알다' 에서는 저자가 경험한 깨달음의 내용을 정리했다. 4장은 '유형별 상담사례' 로 수행으로 얻은 깨달음을 1000여 내담자에게 적용하고 그 가운데 77개의 사례를 엮어 정리한 내용이 담겼다. 사례는 접촉성 피부염, 혈압, 암, 탈모, 축농증 등 신체적 문제부터 비롯해 우울증, 가족 불화, 게임중독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까지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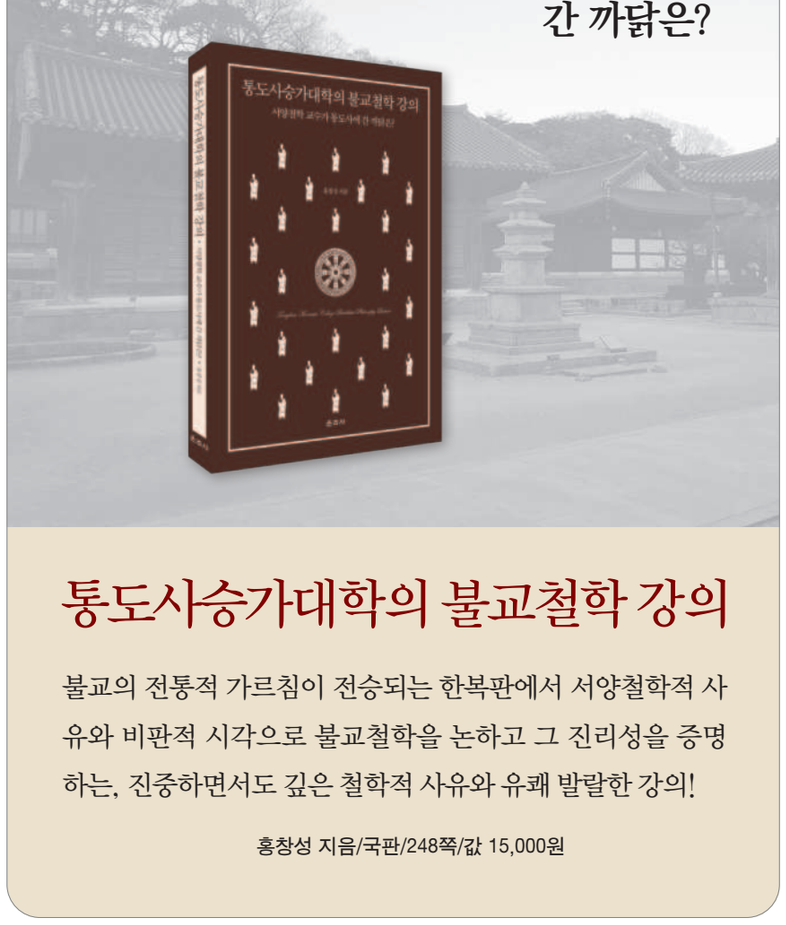
저자, 우주 전모 관찰하는 실상관법 수행
1천여 내담자에게 저자의 수행 경험 적용
77개의 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해서 정리해
사례는 신체 문제부터 심리 문제까지 다양

저자 박종욱 교수〈사진 위〉는 찾아오는 내담자에게 '참 나의 속성인 순수한 밝음' 을 강조했다. 이 내용은 저자가 수행한 실상관의 결과로 얻은 깨달음이며, 실상관은 우주의 전모(全貌)를 한꺼번에 관찰하는 수행법이다.

저자는 "현상세계는 우리의 오관으로 인식할 수 있고 오온(五蘊)과 같이 늘 변하므로 무상한 불완전한 세계"라며 "실상세계는 참 나와 같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불변한 완전 세계이며 오관으로 인식할 수 없는 세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간은 누구나 잘할 수 있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본래 갖고 있는 완전한 실상이 바로 '참 나' 임을 깨닫게 하면 문제를 바로 보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저자는 1936년 4월 경북 성주에서 출생했다. 경북대 경영학 박사이며 영진전문대 경영학과 교수와 부총장을 역임했다. 경북대, 대구공업대, 계명문화대, 대구대 등에서 강의했으며, 한국불교대학서 '생명의 실상' 과 '세상에는 어둠 없고 밝음만 있다' 를 주제로 강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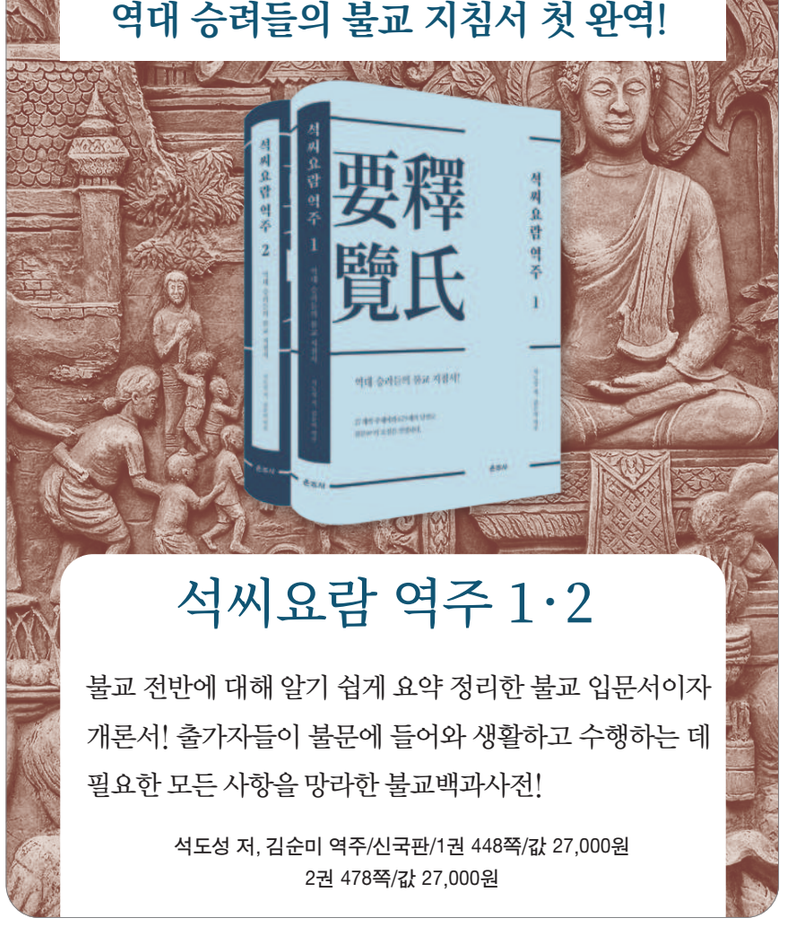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승가대학의 불교철학 강의

불교의 전통적 가르침이 전승되는 한복판에서 서양철학적 사유와 비판적 시각으로 불교철학을 논하고 그 진리성을 증명하는, 진중하면서도 깊은 철학적 사유와 유쾌 발랄한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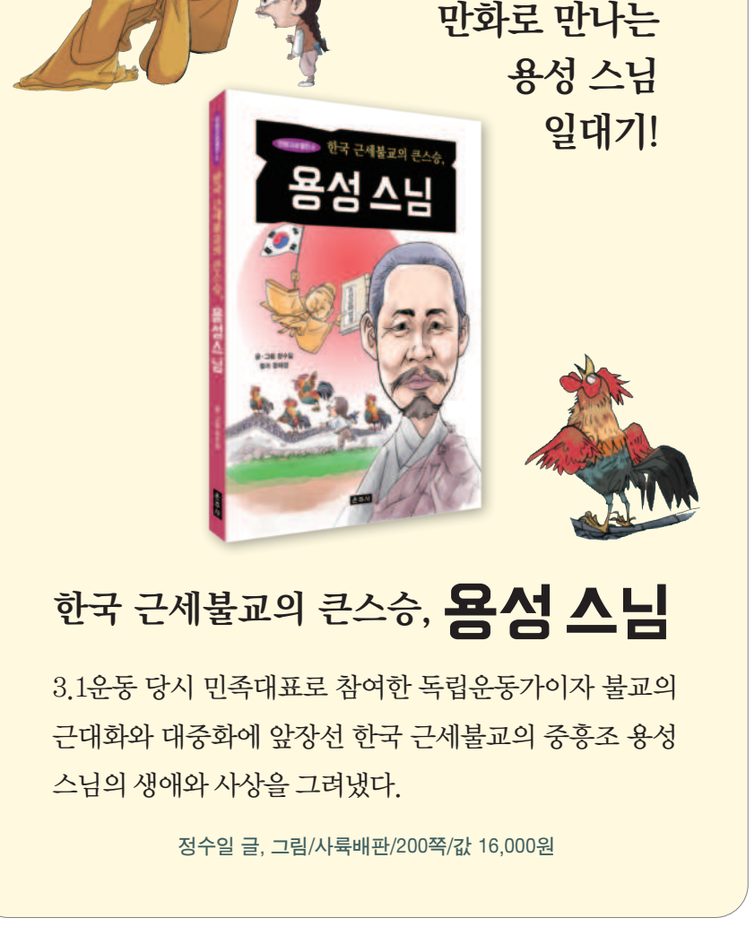
홍창성 지음/국판/248쪽/값 15,000원



석씨요람 역주 1·2

불교 전반에 대해 알기 쉽게 요약 정리한 불교 입문서이자 개론서! 출가자들이 불문에 들어와 생활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항을 망라한 불교백과사전!

석도성 저, 김순미 역주/신국판/1권 448쪽/값 27,000원
2권 478쪽/값 27,000원



한국 근세불교의 큰스승, 용성 스님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로 참여한 독립운동가이자 불교의 근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선 한국 근세불교의 중흥조 용성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그려냈다.

정수일 글, 그림/사륙배판/200쪽/값 16,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기도의 완성 두 날개는 '간절함'과 '정성'



불교기도문
동명 지음
불광 펴냄/1만7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누구나 살면서 간절할 때 한번쯤은 기도를 한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기도 의식'을 행하지 않을 뿐이다. 어려운 일에 부닥치거나 삶의 중요한 시기에 놓이면 누구라도 자연스레 보이지 않는 대상을 향해 손을 모은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 어떤 기도는 이루어지고 다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바람을 현실로 이루는 기도의 비밀은 무엇일까? 시인이자 출가 수행자인 동명 스님(금강정사 총무,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아사리)에 따르면 기도가 이루어지는 데는 몇 가지 필수요소가 있다고 한다. 저자는 책 서문에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는 이미 기도하고 있다. 다만 마음을 모아 집중해 기도하지 않으면 온갖 염원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힘을 잃게 된다. 우리가 기도문을 작성해서 따라 읽으며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책에 나온 기도문에 자신만의 서원을 굳건히 담아서 기도해 보길 바란다. 명심할 것은 기도를 완성하는 두 날개가 '간절함'과 '정성'이라는 사실이다. 매 순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다. 핵심은 말로만 바라는 게 아니라 온몸과 마음을 다해 정성껏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도를 생활화해 매 순간을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항상 깨어 있는 마음으로 간절히 생각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기도는 성취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평소 기도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 왜 자신의 기도는 매번 이루어지지 않는지 답답한 사람들을 위한 실용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삶'을 만들어 가는 데 더없이 안성맞춤인 책이다. 특별히 일상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배어 있지 않은 한국 불자들에게 꼭 필요한 기도 안내서이자 필수 소장서이다.

기도하는 것도 수행, 살며 사랑하며 기도를

불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공덕(功德)'이라는 말이 있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선한 행동을 하거나 자비를 베풂으로써 얻게 되는 무언가를 뜻한다. 자고로 공덕을 많이 쌓아야 다음 생에 좋은 세상서 태어나고 깨달음을 얻어 복(福)을 누리게 된다고 한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기도하는 행위 역시 공덕을 쌓는 일이다. 왜 그럴까? 불교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와 다르다. '나'의 건강과 부와 행복을 바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가 아닌 것, 모든 존재(생명)의 행복을 함께 기원한다. 기도를 이루는 과정도 다르다. 절대적인 힘에 완전히 기대어 단박에 소원을 성취하려는 것이 보통의 기도라면, 불교 기도는 자신의 바람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춤 없이 노력하리라는 다짐이 골자다. 그래서 '~~해주세요'라는 말보다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쓴다. 말하자면, 초월적인 힘에 도움 받되 주체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것이 불교 기도의 본질이다. 알다시피 불교의 최종 목표는 깨달음과 해탈이다. 이를 위해 불자들은 부지런히 참선 명상 하고 염불을 한다. 그러면서 빈다. '나와 남이 동시에(自他一時)' 깨닫고 해탈하기를. 혼자서 수행하든 여럿이 함께 수행하든 어떤 종류의 수행을 하든, 이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불교 기도도 마찬가지다. 나를 넘어 우리를 향한다. 이 점에서 불교기도 역시 공덕을 쌓는 또 하나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다.

> **"깨어있고 간절히 생각행동할 때 기도 성취"**
> **기도 습관 없는 불자들에게 필요한 안내서**
> **불교의 기도, 자신발원 이룰 때까지 꾸준히**
> **일상서 특별 순간까지 불교 기도문 총 망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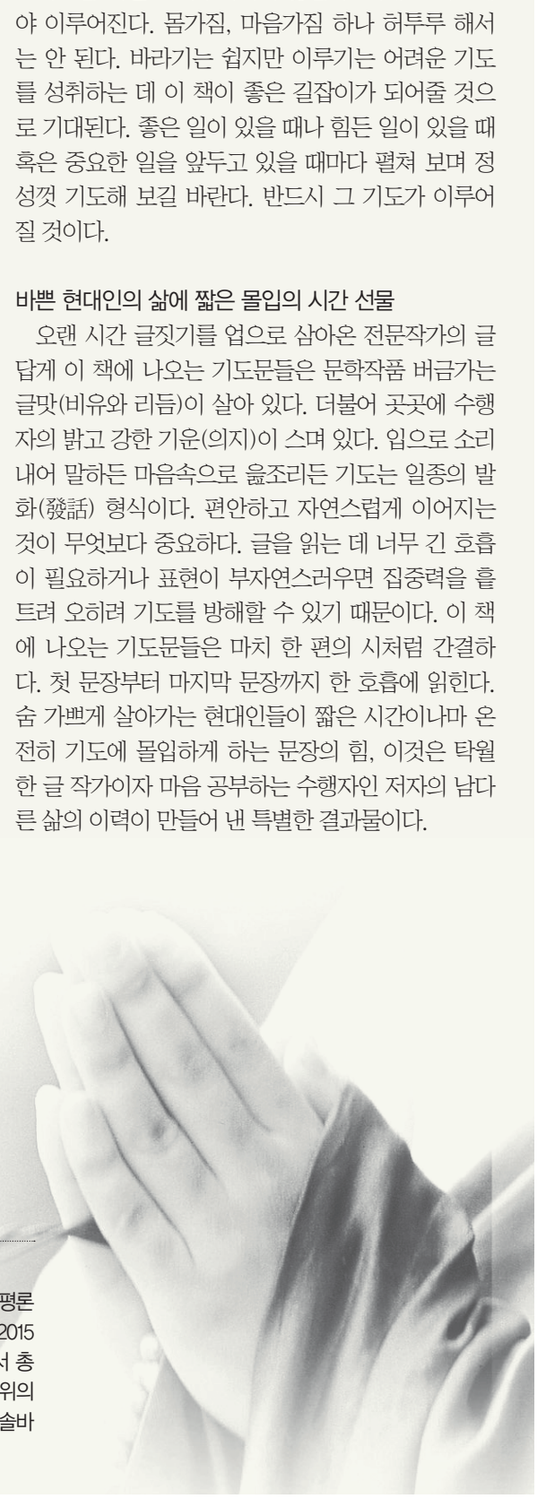
불교 기도에 관한 인식 180도 달라졌다

'기도' 하면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먼저 떠올린다. 그만큼 기독교 신자들이 자주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모든 종교에는 기도하는 전통이 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한국불교에도 기도하는 수행 전통이 있다. 다만 여타의 불교 수행처럼 기도 역시 사찰 같은 특별한 공간서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처럼 여겨져 왔다. 그런데 최근 명상의 유행과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불교 수행이 생활 전반으로 확장되면서 불교 기도에 관한 인식도 180도 달라졌다. 집이나 사무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 기도를 일상의 수행으로 삼아 실천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더불어 일상에서 활용할 만한 불교기도 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책 〈불교 기도문〉은 이런 대중의 갈증을 해소하는 단비 같은 책이다. 남녀노소 현대 불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읽고,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기도집으로서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는 매일의 삶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생활 기도문, 2장에는 생애 특별한 순간을 위한 기도문, 3장은 연중 주요 절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기도문, 4장부터 마지막 7장까지는 불자로서 신행 수행할 때 유용한 여러 가지 정진 기도문과 법회 기도문을 담았다. 각 기도문에는 연결 지어 되새겨 볼 만한 짧은 부처님 말씀(법구경 외)을 함께 실었다. 내용만이 아니라 형식면에서도 대중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했다. 어려운 불교 용어 대신 일상 언어를 사용했으며, 평소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버스나 지하철 혹은 카페 등서 꺼내 볼 수 있도록 한 손에 잡히는 작은 판형으로 제작했다. 또한 백색 종이에 은박으로 장식해 차분함과 고요함을 시각화한 표지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맑아지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기도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대로 기도해야 이루어진다. 몸가짐, 마음가짐 하나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 바라기는 쉽지만 이루기는 어려운 기도를 성취하는 데 이 책이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혹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펼쳐 보며 정성껏 기도해 보길 바란다.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바쁜 현대인의 삶에 짧은 몰입의 시간 선물

오랜 시간 글짓기를 업으로 삼아온 전문작가의 글답게 이 책에 나오는 기도문들은 문학작품 버금가는 글맛(비유와 리듬)이 살아 있다. 더불어 곳곳에 수행자의 밝고 강한 기운(의지)이 스며 있다.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든 마음속으로 읊조리든 기도는 일종의 발화(發話) 형식이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글을 읽는 데 너무 긴 호흡이 필요하거나 표현이 부자연스러우면 집중력을 흩트려 오히려 기도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 나오는 기도문들은 마치 한 편의 시처럼 간결하다.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한 호흡에 읽힌다. 숨 가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짧은 시간이나마 온전히 기도에 몰입하게 하는 문장의 힘, 이것은 탁월한 글 작가이자 마음 공부하는 수행자인 저자의 남다른 삶의 이력이 만들어 낸 특별한 결과물이다.



▲저자 **동명 스님**은?

시인이자 조계종 교육아사리이다. 1989년 계간 〈문학과 사회〉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하고, 1994년 〈세계일보〉 신춘문예 문학평론 부문에 당선해 시인이자 문학평론가로 20여 년간 활동했다. 2010년 지홍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서 사미계를 받았으며, 2015년 중앙승가대를 졸업한 후 구족계를 받았다. 북한산 중흥사 총무, 중앙승가대 수행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광명시 금강정사서 총무 소임을 맡고 있다. 출가 전에 〈해가 지지 않는 쟁기질〉 〈미리 이별을 노래하다〉 〈나무 물고기〉 〈고시원은 괜찮아요〉 〈벼랑 위의 사랑〉 등의 시집과 기행 산문 〈인도 신화 기행〉 〈나는 인도에서 붓다를 만났다〉 등을 펴냈으며, 출가 후에 선시 수상집 〈조용히 솔바람 소리를 듣는 것〉을 펴냈다. 1994년 제13회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했으며, 2022년 제13회 대원불교문화상을 수상했다.

경전 정수 모아 용수보살의 〈중론〉 수증 이론으로 재구성



입중론강해
월칭 조송/법존 역강
지엄 한역
운주사 펴냄/2만5천원

대승불교에서 공(空)과 중도(中道)를 설한 가장 중요한 논서인 용수보살의 〈중론〉. 이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인 월칭 보살의 〈입중론〉이 중국불학원 원장을 역임한 법존법사의 상세한 해설을 담아 한국 최초로 온전히 번역되었다. '〈중론〉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을 가진 〈입중론(入中論)〉은 티베트 불학원서 필수교재로 수학하는 오부 논서 중 하나로, 특히 지혜와 공덕면에서 매우 중요한 논서로 평가받고 있다. 달라이라마 존자도 이 논을 중시해 늘 곁에 두고 매일 독송한다고 알려져 있고, 불학원에서 수학하는 학승들도 필수적으로 이 논의 게송을 암기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그만큼 티베트불교에서 이 논서가 중관사상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극히 중요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정식으로 이 책이 일반에 소개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입중론〉의 원문 전체뿐 아니라 이에 대한 해설까지 포함된 책이 처음으로 나왔다.

〈입중론〉을 지은 월칭 보살은 용수-제바-불호로 이어지는 중관사상을 계승해 귀류 논증의 학설로써 중관 응성파의 이론을 정립한 대학자이자 고승이다. 이 책을 번역한 지엄 스님은 일찍이 오명불학원서 〈입중론〉을 공부하면서 이 논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 논서가 한국에 번역 소개되면 티베트 중관사상이 한국 불교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던 중에, 중국 근대 고승으로서 티베트 논서를 다수 번역한 법존 법사의 〈입중론강기〉를 만나 이 책 속에 〈중론〉의 도리가 간략하게 잘 설해져 있음을 파악하고 번역을 시작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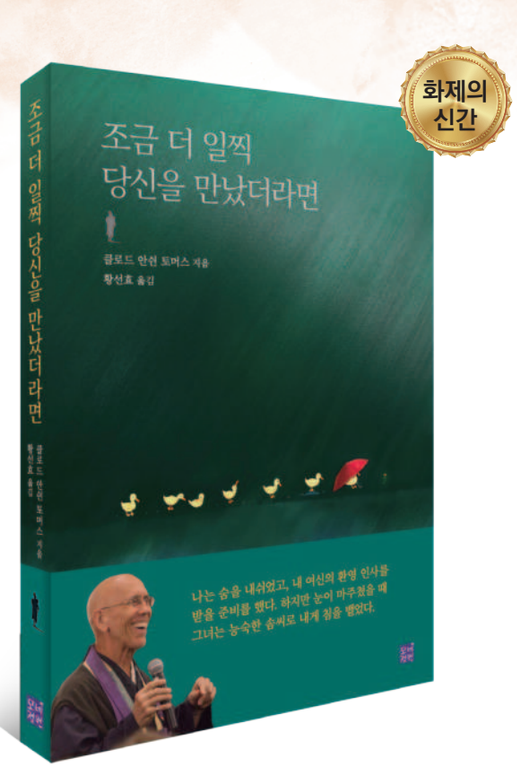
이 책에서 월칭 보살은 모든 경전의 정수를 모아 용수보살의 〈중론〉을 수증 이론으로 재구성하고, 대공성의 반야교의를 천명함과 아울러 상견(常見)과 단견(短見)에서 벗어나 현현(顯現)과 공성(空性)이 둘이 아님을 체득하고, 세속제(世俗諦)와 승의제(勝義諦)가 쌍운해 구경의 과(果)로써 대원만을 증오(證悟)하는 도리를 밝히고 있다.

> **티베트불학원 필수교재 오부 논서 중 하나**
> **지혜와 공덕면에서 중요 논서로 평가받아**

이 책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 좀 더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입중론〉 구성은 〈화엄경 십지품〉에 의거한다고 밝힌다. 그러면서 이 논은 '공종정견'과 '수행차제'의 심오함과 광대함 두 가르침을 고르게 해석한 것이라 하고, 초지(初地)로부터 불지(佛地)에 이르기까지 차제에 의거해 배열했는데 매 지(地)마다 보살의 수행 성취 공덕을 서술했고, 이공(二空)의 이치는 반야바라밀에 입각해 널리 해석했다고 한다. 이어 〈중론〉은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하고 답한다. 그 다음은 세간에서 벗어나기를 구하고, 보리심을 발하며, 보살행을 수행하고, 무상불과 또한 마침내 성취하는 날이 있음을 알고 관해야 한다. 다음은 마땅히 원만한 사람 몸 얻기 어렵고, 불법은 듣기 어려우며, 오탁악세에 대승법을 듣는 것은 더욱 희유함을 사유하라고 한다. 또 〈반야경〉을 인용하면서, 반야를 배우는 것은 세세생생 행하여도 다함이 없다고 하였다. 세세생생 대반야가 있는 곳에 태어남을 얻고, 선지식의 반야법문 설하심을 만나 일체 반야를 배움이 점차 증가하는 인연을 구족하고, 선지식을 기꺼이 가까이하며, 정법을 즐겨 듣고 보살행을 즐겨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이 법을 듣는 자는 응당 희유심을 낼 것이며, 항상 삼업이 인과에 수순하는지를 관하고, 불법의 오계와 십선을 닦으면 곧 인천복보(人天福報)를 잃지 않을 것이며, 최소한 임종 시에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중근기의 사람이 이 공덕을 극락왕생에 회향하면 곧 정토왕생의 수승한 성취를 얻게 되고, 상근기는 세세생생에 불법을 만나 대보살께 섭수되고, 최후에 반드시 불타의 수기를 입어 성불하고 중생을 제도하게 된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 복덕 일체가 원만한 최상근자는 금강승에 의지해 현신으로 성불하게 되니, 이들이 수승한 중의 수승한 사람이라고 밝힌다. 그러나 말세에 복덕이 원만한 근기를 얻기는 어렵기에 다만 출리심, 보리심으로써 '심심혜'와 '광대행'을 여법하게 수행하고 세세생생 항상 대보살께 섭수되어 구경성불의 성취에 이르는 것이 〈입중론〉을 듣는 자에게 응당 있어야 하는 종취(宗趣)라고 한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마음으로써 〈중론〉을 배운다면 종카빠 대사, 월칭 논사의 공덕이 후세인의 수행 성공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백금남 소설 **아디카야의 검** ⑧



▶한줄요약
조실스님이 아디카야의 검에 대한 전설을 이야기한다. 아디카야의 검은 부처님 당시 부처님이 난타의 수행을 돕기 위해 남긴 것이라는 것.

붓다가 난타 수행 돕기 위해 남긴 칼은?

뉴델리에서 며칠 ①

-제가 알기에 암자에 불이 나고 바로 떠났다고 하던데…?

역시 조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종정이 꾸었다는 꿈이 떠올랐다. 종정이 꾼 꿈. 그곳에서 보았다는 난타? 그 난타가 아들의 얼굴로 변하더라고….

고개를 갸웃하는데 조실의 음성이 뒤늦게 들려왔다.

-금어스님이 돌아가신 후 아들의 소지품을 뒤지다가 그가 혹시 스리나가르로 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스리나가르라고 한다면 그 성물이 있는 곳이고 그것을 찾아 떠난 것 같다 그 말씀이군요?

-맞소이다.

문득 종정 예하가 꿈속에서 보았다는 지안 금어의 아들이 생각났다. 갑자기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황 자체가 꼭 뭔가 꾸며놓은 것 같지 않은가.

종정의 꿈. 스리나가르에 있다는 성물. 금어스님의 죽음. 스리나가르로 떠났을지도 모른다는 금어스님의 아들…. 아들이 아버지를? 에이 설마….

그러면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이렇게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종정 예하도 금어스님이 불에 타 돌아가셨다는 걸 아시는지요?

조실이 머리를 끄덕였다.

-이지안 스님이 종정 예하의 근영을 그린 적도 있고 해서….

-그랬군요. 그럼 금어스님의 아드님이 그 성물을 찾아 스리나가르로 갔다는 것도 말씀드렸나요?

-그랬소. 예사롭지 않다고 하자 웃으시면서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만 하더이다.

나는 시선을 떨구었다.

그럼 전혀 우연은 아니다. 언젠가부터 부처님을 그리지 않고 칼만 그리고 있었다고 하지 않는가.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종정이 그런 말을 들었다면 스리나가르의 성물을 떠올렸을 것이 뻔하다. 그러다가 그 성물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자 이지안 금어를 자연스럽게 연관시켰을지 모른다. 아버지가 죽은 뒤 아들이 성물을 찾으러 떠나자 자연스럽게 아들을 연관시켰을 것이다. 그럼 그것은 종정 예하의 뇌가 그려낸 시나리오다. 그런 생각을 하며 나는 조실을 향해 입을 열었다.

-사실 이곳으로 온 것은 금어스님의 죽음 때문에 온 것은 아닙니다. 이곳 조실스님께서 보낸 이상스러운 밀봉과 메일 때문에….

조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소. 스리나가르의 그 성물을 말하고 있다는 걸.

-그렇습니다. 저희 신문사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 그 성물에 대해서 상세히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 성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알고 있긴 한데 피상적인 것이라….

-궁금하군요.

-그 성물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소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이 난타와 손타라의 전설이지요.

-난타와 손타라? 저는 그저 부처님이 아난타에게 남긴 성물이라 알고 있는데요.

종정이 꿈에 난타를 보았다는 말을 떠올리며 내가 그렇게 말하자 조실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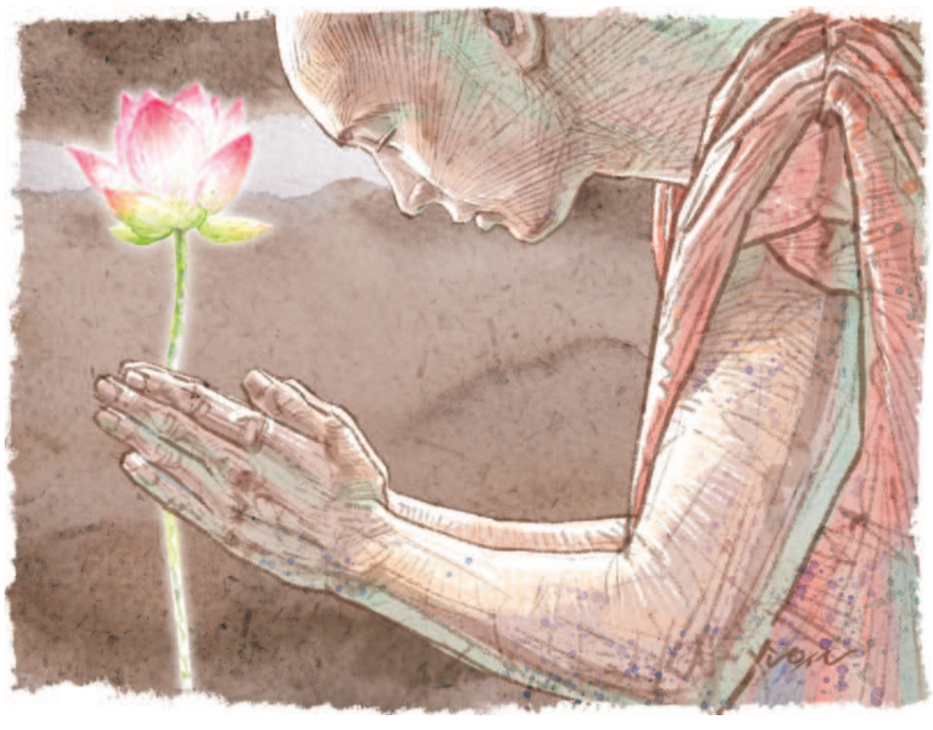
-법의 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절에 가면 심검당이 있고 그 칼이 취릉검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취릉검에 대해서는 취재한 적도 있고 해서 그것이 법의 칼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사실 부처님이 아난에게 전했다는 그 칼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는지라….

그랬다. 부처님이 칼을 남기셨다는 말은 들어보질 못했다. 기자 생활을 그렇게 했어도 그런 칼이 있다는 말은 들어보기가 처음이었다. 그런 칼이 정말 인도에 있었다면 왜 몰랐는지 모를 일이었다.

사찰에 가면 심검당이라는 전각이 있기는 하다. 거기 모셔진 칼이 취릉검 즉 취모리검이다. 그러나 그 칼은 석가모니 붓다가 직접 남기신 칼은 아니다. 법의 칼이라고 하지만 선승들이 구족해야 할 지혜의 작용을 '검'에 비유한 상징적인 것이다. 고래의 기록을 살펴봐도 주로 중국의 선승들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벽암록〉 제100칙에 보면 파릉 화상의 취모검에 대한 기록이 있다.

어떤 스님이 파릉 화상에게 질문한다.
-어떤 것이 취모검입니까?
파릉 화상이 대답한다.
-산호의 가지가지마다 달이 달려 있구나.
擧. 僧問巴陵.
如何是吹毛劍.
陵云.
珊瑚枝枝撐著月.

그 외에도 여러 곳에 기록이 보이는데 〈선어록〉에도 있고 〈유마경〉에도 있다. 〈임제록〉, 〈증도가〉, 〈연등회〉는 물론 〈조당집〉에도 보인다. 부처님이 남기셨다는 칼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불교의 전문적인 지식이 짧아서일지 모르지만 내가 알기에 부처님께서 남겼다는 설은 어디에도 없다. 곳곳에 선승들이 반드시 구족해야 하는 지혜 작용을 활인검(活人劍)에 대해서 표현해 놓았을 뿐이다. 두껍기로는 철위산 위의 무쇠와 같고, 얇기로는 쌍성선(双成仙)의 몸에 걸친 비단 같다고 노래하는 이도 있다. '광채가 만상을 삼켰다' 라고 노래하는 이도 있지만 부처님이 남겼다는 칼에 대해서 노래한 곳은 없다.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뒤늦게 조실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렇소이다. 나도 취릉검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곳으로 오니까 부처님께서 남기셨다는 칼이 존재하더만요. 그래서 그 칼이 취릉검이 아닌가 했었는데 알고 보니 사연이 있더이다.

-사연?

-그렇소이다. 사연이 있어도 모진 사연이 있더이다.

-궁금하군요. 좀 전에 난타라고 했나요?

-그렇소. 난타. 난타라고 한다면 부처님의 이복동생 아니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소이다. 부처님의 이복동생이지요.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고국을 찾았을 때 그는 막 결혼했던 참이었다고 하오.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소.

나는 무슨 소린가 하며 송 서화가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도 고개를 갸웃하는 눈치였다.

그런데 정작 오오스마 기자와 심 작가는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조실스님의 말이 사이를 두었다가 이어졌다.

-부처님이 고국을 찾자 부처님의 거룩함에 대부분 출가의 염을 일으켰는데 유독 난타만이 출가를 거부했다고 하오. 그래 특별히 부처님이 그를 제도하셨다는데 그때 부처님이 난타의 수행을 돕기 위해 남긴 것이 지금 스리나가르에 묻힌 칼이라는 것이오.

비로소 왜 종정 예하의 꿈에 난타가 출현했는지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성물이 난타와 관계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종정 예하는 이지안 금어의 아들이 왜 암자에 불을 질렀는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난타와 연결되었을지도 모른다. 종정이 금어스님의 아들을 처음 봤을 때의 인상이 그만큼 강렬했을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조실스님이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따지고 보면 그 양반의 죽음도 그 성물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

-관련?

말이 이상하여 내가 중얼거리듯 되물었다.

-그렇다는 말이외다.

-예?

-그 성물로 인해 이상한 그림에 미쳤으니까.

-이해가 잘되지 않는군요.

어찌 그렇지 않겠냐는 듯 조실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성물 때문에 그분이 이상한 그림에 미쳤다니요?

나는 익히 들은 말이었지만 멍하니 조실스님을 쳐다보며 물었다.

조실스님이 잠시 눈을 감았다. 어디서부터 그 대답을 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표정이었다.

조실스님은 계속해서 눈을 감고 있다가 잠시 후 눈을 떴다. 어느새 입가에는 풀썩 쓰러지는 듯한 한숨이 물려 있었다.

-처음엔 우리도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오. 이곳에서 좀 떨어진 암자에 주석했는데 아드님과 함께 머물렀소.

-그랬군요.

-금어스님의 아들 이름이 이석원이오. 보름에 한 번씩 양식을 가져다주곤 했었는데 하루는 가보니 그 양반이 이상했었소.

-금어스님이요?

-지안 스님 말이외다.

-이상하다니요?

내가 눈을 빛내며 물었다.

-수행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양반의 정신상태가 여느 때 같지 않았단 말이오. 나이가 많기도 하였지만….

-이상한 행동을 보였나요?

내가 나직이 되물었다.

조실스님이 고개를 주억거렸다.

-바로 스리나가르에 묻힌 칼 이야기를 엉뚱하게 자주 하는 것이오.

-무슨 인연이 있나 보군요?

-그걸 어이 알겠소. 가끔 작업을 하다가도 그 성물 이야기를 하고는 했는데…. 어느 날부터 부처님은 그리지 않고 그 성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이오.

-부처님을 그릴 곳에 칼을 그렸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소.

조실스님의 대답을 들으며 나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왜요?

-글쎄…? 사람들은 나중에 그를 미쳤다고 했소. 미쳤다고 할 수밖에. 부처님의 존상을 그려 달라고 하면 칼을 그려 주었으니까.

나는 다시 고개를 갸웃했다.

금어가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는 게 아니라 칼을 그린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터이지만 부처님 대신에 칼을 그렸다면 정상은 아니다. 지혜의 검이 곧 부처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에 다가가려는 방편이지 본질 그 자체는 아니다. 그런데 칼을 그렸다? 왜?

부처님은 신앙의 대상이라 성배의 대상이 되지만 칼이 성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부처님이 모셔질 자리에 칼이 모셔진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였다.

-절에 심검당이라는 전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부처님이 계실 자리에 칼이 앉는다는 건…. 허허 아무튼 그랬소이다. 그러다가 화재로 돌아간 것이요.

-아들이 불을 내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던데? 무슨 이유가 있을 테지요?

내가 물었다.

조실스님이 고개를 내저었다.

-모르오.

이외에도 그의 음성이 단호했다.

금어가 그리라는 부처님의 존상은 그리지 않고 그 대신 칼을 그려대니 혹시 아들이 그러지 않았겠느냐는 그런 대답을 기대하고 있었던 나는 "네?"하고 나도 모르게 되물었다. 〈계속〉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박희승의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❺ 세계적인 명상 붐과 한국불교의 과제 3



▶한줄요약
불교의 정견 없는 치유 명상은 목적지를 잃은 배와 같다.

“치유 명상 붐은 깨달음 명상 알릴 기회”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유래한 불교 명상법을 배워간 서구의 명상가들은 명상을 과학화하고 프로그램화하여 세계적인 치유 명상 붐을 일으켰다.

서구의 치유 명상 붐은 인류를 위해 좋은 일이다. 불교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면이 많다. 명상의 본산이라 할 불교계에도 깨달음 명상을 알릴 시절인연이 도래한 것이다. 특히 영국의 식민지 경험으로 영어가 보급되었던 미얀마, 스리랑카 등 남방 상좌부 승가에게는 위빠사나 명상을 서구 세계에 전파할 기회가 열렸다. 중국의 강점으로 해외로 망명한 달라이라마의 티벳불교에도 명상 붐은 좋은 인연이 되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 부정적인 면도 있기 마련이다. 세계적인 치유 명상 붐은 불교계, 특히 한국불교에 기회이자 위기다.

왜 불교에 위기인가? 불교의 깨달음 명상은 불교의 존재 가치이자 본질적인 자산인데, 치유 명상가들은 불교에서 깨달음은 버리고 명상 방법만을 가져다 상품으로 만들고 프렌차이즈식으로 보급하여 시장을 독점해버렸다. 불교의 깨달음 명상은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비유하자면, 불교계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에서 손님을 빼앗기고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것은 마치 불교가 탄생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져 버린 현상으로 비유할 수 있다. 브라만교의 숙명론적인 윤회설을 중도의 깨달음으로 혁신하여 대안의 승가 공동체로 출발한 불교는 이후 사방으로 전파되어 인류의 4대 종교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정작 불교가 탄생한 인도에서는 카스트제도의 기득권을 완고하게 구축한 브라만세력이 부처님을 하나의 신으로 포섭하고 이슬람 침략자들이 불교도에 박해를 가하자 인도의 불자들은 브라만(힌두)교에 흡수되거나 사라져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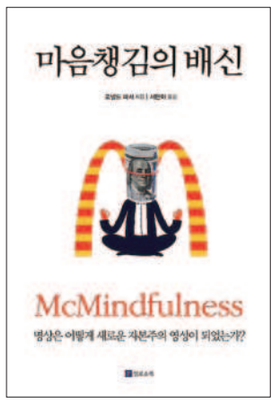
만약, 세계적인 명상 붐에 대하여 불교계가 불교의 깨달음 명상과 치유 명상의 같은 점과 차이점에 정견을 세우고 바르게 안내하지 못한다면, 치유 명상 붐에 깨달음 명상이 흡수되거나 같이 세속화되어 불교 명상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조계종 새 총무원장 스님이 취임하여 명상 포교 종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만시지탄이나 조계종은 불교 명상 중에서 가장 빠른 수행법인 간화선 전통을 간직하고 있으니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간단치 않다.

이제부터 치유 명상의 문제와 과제를 살펴보자.



미국 명상을 대표하는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Insight Meditation Society(통찰명상협회) 명상센터.



간화선 수행자 로널드 퍼서 교수의 저서 〈마음챙김의 배신〉 표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Insight Meditation Society(통찰명상협회) 명상센터 명상홀 천주교 수도원을 인수하여 명상센터로 만들었다.

서구 치유 명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

서구의 치유 명상이 서양인들에게 폭넓게 보급되어 눈부신 성공을 구가하는 때에 미국의 한 불자 교수가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는 책을 출간하였다. 미국에서는 〈McMindfulness(맥마인드풀니스)〉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는데, 한국에서는 〈마음챙김의 배신(필로소픽)〉이라 번역 소개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 로널드 퍼서 교수다. 그는 흥미롭게도 한국불교의 태고종 스님에게 간화선을 공부하는 재가 수행자다. 퍼서 교수는 이 책에서 “지금 서구에서 유행하는 ‘마음챙김 명상’은 불교에서 배워왔지만, 불교를 버리고 명상 테크닉을 통해서 현실에 순응하고 마음의 평안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상품화된 명상”이라 신랄하게 비판한다.

퍼서 교수는 〈마음챙김의 배신〉에서 마음챙김 명상가들이 불교 명상에서 삼매, 마음챙김(알아차림) 등을 수련하고 배워가서 사용하면서도 불교에 대하여 고마워하지도 않고 불교를 버렸다고 비판한다. 즉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위해 명상법을 안내하셨는데, 마음챙김 명상가들은 불교 명상에서 배웠으면서도 불교는 버리고 명상만 가져가 과학이라 포장해서 대중들에게 명상을 상품으로 만들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마음챙김 명상가들이 말하는 상품화된 명상은 바른 명상이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만연한 스트레스와 정신 불안을 치유하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이러한 명상은 마치 치통이 나면, 원인을 진단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진통제를 먹어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려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붙인 이름이 ‘맥마인드풀니스’, 햄버거와 같은 마음챙김이다. 집 밥이나 식당에서 일상적인 식사가 아니라 간편식인 햄버거와 라면 같은 것으로 끼니를 떼우면 임시 방편으로 배를 채울 수는 있으나 결국 영양 결핍으로 건강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불교 존재 가치 없는 명상법**
> **인도에 불교 없는 것과 같아**
> **돈벌이 수단 세속화된 명상**
> **동체대비 원력행 되진 못해**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챙김 명상은 현대인들이 직면한 사회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는 눈을 감게 하고 오직 내면의 스트레스 감소와 불안한 마음을 치유하는 명상 기술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마음챙김 명상은 기업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기업에서 하는 명상은 깨달음이나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근로자의 스트레스 감소와 생산력 향상에 목적이 있다. 이것은 깨달음을 위한 명상이 근로자들의 정신 건강과 일을 잘 하기 위한 도구로 수단화되어 버린 것이다. 기업의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명상을 통해서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덜 받고 일을 잘 하여 생산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은 기업이 해고나 업무상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스트레스를 개인의 문제로 내면화시켜 참고 견디는 힘을 키우게 하는데 명상을 이용하게 만든다. 숭고한 가치의 명상이 기업 생산력 증대를 통한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마음챙김 명상은 급기야 학교는 물론 군대에까지 광범하게 활용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등 여러 긴박한 전투 현장에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평정심으로 승리하기 위해 마음챙김 명상을 가르치고 있다. 서구에서 마음챙김 명상은 이제 전쟁에서 적군을 많이 죽여서 승리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까지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마음챙김 명상은 부처님이 가르친 무아와 해탈로 가는 깨달음 명상이 아니라 자기가 더 건강하고 돈을 많이 벌어 잘 사는 이기적인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퍼서 교수는 비판한다. 이것은 곧 서구에서 마음챙김 명상이 자본주의 세속화에 완전히 순응하는 잘못된 결과라 진단한다. 그는 마음챙김 명상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퍼서 교수는 마음챙김 명상의 치유적인 기능은 분명 가치가 있지만, 현재의 한계를 인정하고 과장 광고를 없애야 하며, 개인의 내면 치유만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 보고 개선하여 공동체의 치유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서구 치유 명상의 문제

서구의 치유 명상은 불교의 깨달음 명상에서 배워가서 크게 성공하였다. 하지만, 치유 명상은 불교의 가치인 깨달음과 중도(팔정도)를 배제하면서 삶의 도구, 수단이 되어 버렸다. 누구나 명상을 하지만, 깨달음을 향한 지혜와 자비의 실천, 세상의 행복을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치유 명상이 수단화, 상품화, 세속화되어 간다는 비판을 불러 왔다.

실제, 서구의 명상가들 중에는 심각한 지탄을 받는 이가 있었다. 1980년대 미국에서 크게 이름을 날린 오쇼 라즈니쉬(1931~1990)가 그런 인물이다. 그는 인도 출신의 명상지도자인데 미국으로 건너가 불교의 여러 경전과 선어록을 강의하며 명상을 가르쳤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중심으로 오리건주에 자치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의 추종자들은 공동체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다가 지역 주민들과 충돌하자 살인과 생화학 테러를 자행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는 동적인 명상을 강조하며 나체 춤이나 집단 성행위 등을 명상으로 가르쳤다. 이것은 미국 사회에 큰 화제와 동시에 파문을 낳아 결국 사회 여론의 지탄을 받아 명상 공동체는 무너졌고 라즈니쉬는 인도로 추방당했다. 라즈니쉬의 명상과 공동체의 엽기적인 행각은 〈오쇼 라즈니쉬의 문제적 유토피아〉라는 다큐멘터리(넷플릭스)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라즈니쉬는 스스로 깨달았다고 자처했고, 그의 불교 경전과 선어록 강의 저서들은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였고 지금도 추종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는 자기 명예를 높이고 롤스로이스를 99대나 소유하는 사치와 욕망을 추구하는데 불교와 명상을 이용하였고, 그렇게 추종자들과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바로 명상을 안내하는 명상지도자가 명상을 수단화, 세속 상품화하면서 불교의 정견과 계율의 가치를 버렸기 때문이다. 불교의 가치인 정견과 깨달음이 빠진 명상은 현대인에게 스트레스 감소와 일시적인 마음의 평정심을 가져다주겠지만, 그것이 생활화되어 자기도 행복하며 남도 행복하게 하는 동체대비 원력행으로 나아가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불교의 정견 없는 치유 명상은 목적지를 잃은 배와 같다. 사바세계에서 생사 윤회라는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가려면 반야의 배를 타야 한다. 그런데 그 배가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 수 없는 배라면 참으로 곤란하다.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기보다는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안전하고 도움이 되지만,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배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서구의 치유 명상가들이 불교의 깨달음 명상을 수행하고 배워서 과학화, 프로그램화하여 서구 시민들에게 명상의 가치를 알리고 활용한 것은 크나큰 성과다. 그것은 마땅히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치유 명상의 한계를 바로 보지 못하고 그기에 안주하여 상품화와 돈벌이 수단으로 명상을 세속화한다면 그것의 문제와 한계를 알려주어야 한다.

다음에는 치유 명상의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한국불교의 간화선 명상에 대하여 알아보자.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지도교수 /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노재학의 한국산사 목조각 걸작 ❺ 완주 송광사 대웅전 목조 삼전패

▶ 한줄 요약
완주 송광사 대웅전 목조 삼전패는 보물인 부여 무량사 삼전패보다 더 오래되고, 더 크고, 더 완전하다. 크기 면에서 다른 삼전패를 압도한다.



왕실의 만수무강 축원한 오색장엄

전패, 세상에 기이한 보배

패(牌)는 불교의례나 유교의례에 사용하는 의례 장엄구의 하나다. 보편적인 패가 영가의 신위를 새긴 위패(位牌)다.

패 중에선 특별한 것도 있다. 불패와 전패, 원패가 그런 경우다. 불패(佛牌)는 불보살의 명호를 새긴 패이고, 전패(殿牌)는 왕과 왕비, 세자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패다. 원패(願牌)는 발원 내용을 새긴 패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시방삼보자존' 명 패는 불패에, 통도사 성보박물관의 '왕비전하수제년' 명 패는 전패에 해당하고, 안성 칠장사와 울진 불영사의 '우순풍조 국태민안' 명 패는 원패의 일종이다. 불영사 전패 뒷면에 묵서 기록이 있다. 전패와 불패를 일러 '세지기보(世之奇寶)' 라고 표현했다. '세상에 기이한 보배' 라는 의미다. 패는 대부분 나무로 만든 목조다. 현존하는 패는 대략 250여 점에 달한다. 그중 왕실의 무병장수를 축원하는 전패는 100여 점에 이른다.

전패는 왕을 상징한다. 왕의 진영과 다를 바 없었다. 조선시대 지방행정 관아에는 의전공간으로 객사(客舍)를 뒀다. 객사 구조는 가운데에 정당(正堂)을 두고 좌우에 익실을 대칭적으로 펼친다. 솟을삼문처럼 가운데 정당은 익실보다 더 높게 지었다. 객사 정당엔 반드시 궐패와 전패를 배치했다. 궐패엔 '궐闕' 자를, 전패엔 '전殿' 자를 새겼다. 평택 진위향교에서 실물을 소장하고 있다. 궐패는 왕이 있는 궁궐을, 전패는 왕을 상징했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궐패와 전패를 봉안한 객사에서 왕이 있는 궁궐을 향해 배례를 올렸다. 그 의식을 '망궐례(望闕禮)' 라 부른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병자호란 등 잇따른 전쟁을 치루면서 숭유억불의 조선사회에 불교사찰에 대한 재인식이 확산했다. 호국사찰의 중건과 망령천도 수륙재에 왕실 후원이 이어졌다. 사찰 중건과 불사 과정에서 왕실의 후원이 지속된 원당사찰, 혹은 호국사찰을 중심으로 왕실을 상징하는 전패가 법당의 불단 위에 모셔졌다. 그 과정에서 17세기 들어 삼전패(三殿牌) 형식이 확산하고 정형화됐다.

객사에 배치한 궐패와 전패는 비석 모양이거나 사각형 형식으로 비교적 간단하고 소박한 형태였다. 불교 법당 안으로 들어온 전패는 경전을 모신 경패나 15세기 석보상절 발행 원패, 범종에 새긴 위패, 명나라 전패 등과 흡사한 형태로 정착했다. 법당 안으로 들어온 전패는 불패와 마찬가지로 삼전패 형식으로 보편화됐다.

삼전패, 세자-왕-왕비 만수무강 축원 패

삼전패는 세자-왕-왕비의 세 사람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패다. 축원 패를 한 사람 씩 독립적으로 제작한 삼전패 형식이 대부분이지만, 특수하게는 하나의 패에 세 사람을 동시에 새겨 축원하기도 했다. 사정이 여의치 못한 경우엔 삼전패 대신 법당의 창방이나 평방에 묵서 형식으로 새기기도 했다. 삼전에 대한 장수축원 전패는 목조각, 탱화, 법당 묵서, 범종의 양각 새김, 불서 속 목판 판화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현전하는 삼전패 형식들을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삼전패: 완주 송광사 삼전패, 부여 무량사 삼전패, 상주 북장사 삼전패, 순천 선암사 삼전패, 원주 구룡사 삼전패, 안동 봉황사 삼전패, 평창 월정사 삼전패, 보은 법주사 삼전패 등

△하나의 전패에 삼전 축원을 새긴 사례: 예천 용문사 전패('황상삼전하수만세'), 평창 월정사 전패(*위 삼전패와 다른 전패)

△법당의 창방, 평방에 묵서로 새긴 사례: 안동 봉정사 극락전, 구례 화엄사 원통전, 강화 전등사 약사전 등

△탱화 속 전패: 대구 파계사 아미타설법도, 상주 남장사 극락보전 삼장보살탱 등

△동종: 순천 선암사 소장 보성 대원사 부도암 동종에 새긴 전패, 담양 용흥사 동종, 여수 흥국사 동종, 완주 송광사 동종 등에 새긴 '주상삼전무량수복' 내용의 발원 전패.

△불서 속 전패: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월인석보 (1459년) 내 불경간행 발원 적은 전패

국내 최대 소조불상 · 삼전패 보유

250여 점에 이르는 목조 불패, 전패, 원패 중에서 보물로 지정된 것은 부여 무량사 삼전패가 유일하다. 2015년 보물로 지정했다.

삼전패는 무량사 전패 묵서명에서 '만수패(萬壽牌)' 라 기록하고 있다. 무량사 삼전패는 1654년에 철학, 천승, 도균 세 스님이 제작했다. 전패의 크기는 높이 150㎝, 폭 53.5㎝에 이르는 대형 전패다. 전패 중에 유일하게 보물로 지정한 이유도 제작시기, 제작자가 분명하고 삼전패의 형식성과 예술성, 규모에서의 대형성 등을 판단한 결과였다. 형태가 온전하고 정확한 제작시기와 제작자를 알려주는 묵서명이 있다는 사실은 불전 장엄구 삼전패의 편년과 양식연구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보물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완주 송광사 대웅전 목조 삼전패(1644~1649).

완주 송광사 삼전패, 현존 중 최대 크기
주상-228cm 왕비-212cm 세자-210cm
삼전패 중 유일 보물 무량사 삼전패보다
더 오래 되고 더 크고 더 완전해 가치 커



부여 무량사 목조 삼전패(1654).



좌측부터 울진 불영사 목조 원패(1678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목조 불패(17세기 후반), 평창 월정사 목조 전패.

그런데 더 오래되고, 더 크고, 더 완전한 삼전패가 현존한다. 완주 송광사 대웅전 불단 위에 봉안돼 있는 삼전패가 그것이다. 제작시기, 중수시기, 중수자를 밝힌 묵서명도 있고, 역사의 스토리텔링도 생생하게 담겨있다. 세자의 전패 뒷면 묵서명에 '중수삼전패(重修三殿牌)' 라 기록하고 있어 '삼전패' 라는 고유명사를 확인해준다. 삼전패는 5m가 넘는 한국 최대의 소조삼방불인 아미타불(530cm)-석가모니불(565cm)-약사불(530cm) 사이에 배치했다. 소조삼방불은 1638년부터 1641년까지 벽암 각성의 총괄 아래 4년에 걸쳐 조각승 청헌, 법령 등 17명의 화원이 협업으로 조성했다. 한국 최대의 소조불상 제작배경은 무엇일까? 배경에는 1636년에 시작된 병자호란이 있다. 병자호란 이듬해인 1637년 인조는 삼전도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을 당하며 항복했다.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갔다.

1993년 석가모니불 복장에서 불상 조성기가 발견됐다. 왕(인조)과 왕비의 만수무강을 축원하고,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 있는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의 조속한 환국을 발원하면서 삼존불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당대의 사람들에게 그 발원은 오죽 강렬하였을까? 불상의 크기에서 염원의 크기가 가늠된다. 삼전패도 그 발원의 연장선에서 제작된 것이다. 삼전패는 향좌측부터 세자-주상-왕비의 순으로 배열했다. 각 전패 중앙부 패액에는 주칠 바탕에 금니로 각각 '세자저하수천추', '주상전하수만세', '왕비전하수제년' 이라는 만수무강 축원 문구를 새겼다. 주칠 바탕에 금니 명문은 왕실 고유의 고귀한 채색원리다.

완주 송광사 삼전패는 먼저 크기에 있어 다른 전패를 압도한다. 주상의 전패는 228cm, 왕비의 전패는 212cm, 세자의 전패는 210cm로 현존하는 전패 중에서 최대의 크기다. 소조삼방불도 최대이고, 삼전패도 최대다. 주상 전패 뒷면에 '순치세유청조월재…順治歲有靑鳥月在…' 의 묵서 기록이 있다. '순치세(順治歲)' 는 청나라 연호로서 1644년에서 1661년까지의 시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전패 속 주상은 인조다. 인조의 재위기간은 1623년~1649년이다. 따라서 삼전패 제작 시기는 1644년에서 1649년 기간으로 압축된다. 부여 무량사 삼전패 제작시기인 1654년보다 앞선다. 현전하는 전패, 불패 250여 위 중에서 온전한 형식을 갖춘 삼전패로는 가장 크고 오래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자의 전패 뒷면에는 '건륭57년 중수' 라는 묵서가 있어 1792년 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드러운 무량사, 역동적인 송광사

전패는 삼단 구성으로 제작했다. 연화받침대와 몸통부인 패신, 머리 부분인 패두로 구성했다. 받침대와 패신, 패두는 여러 판재와 통나무 조각을 거멀쇠, 못 등으로 연결해서 만들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전패 곳곳의 이음새에 ㄷ자 거멀쇠가 박혀 있음을 알게 된다. 세 전패 중에서 왕의 전패를 보다 두드러지게 조각한 흔적들을 볼 수 있다. 크기부터 다른 두 전패보다 20cm 정도 크다. 왕비와 세자 전패의 받침대는 단순히 복련만 갖춘 데 비해, 왕의 전패 받침대는 앙련과 복련을 두루 갖춘 이단 형식으로 품격을 높였다. 패신과 패두 장식의 중심 소재는 용과 구름이다. 용이 구름 속에서 용틀임하며 휘몰아치는 기세가 대단하다. 왕비와 세자의 전패에는 황룡 세 마리를 표현하였지만 왕의 전패에는 황룡, 청룡, 백룡 등 다섯 마리를 조각하여 조형에 더 강력한 생명력을 불어 넣었다. 조형은 여러 판재로 엮어서 뒷면 바탕 골간을 만든 후 투각으로 입체감 있게 새긴 패신과 패두를 결구하여 본체를 만들었다. 본체를 연화 받침대에 끼워 고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형을 완성했다. 패신과 패두는 타원형에 가깝다. 다만 중간과 양 끝의 흐름을 중괄호처럼 뾰족하게 밖으로 빼서 조형에 우아한 곡선의 아름다움을 갖게 했다. 크기뿐만 아니라 조형의 예술성에서도 주목을 끈다.

송광사 삼전패는 조형의 측면에서도 보물로 지정된 무량사 삼전패와 비교대상이다. 무량사 삼전패의 중심 소재도 용과 구름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조형의 전체 분위기는 단정하고 차분하다. 잔잔하고 부드럽다. 하지만 송광사 삼전패에 눈길을 돌리면 상황이 다르다. 대단히 힘차고 역동적이다. 용, 구름, 보주의 붉은 빛 저마다가 일렁이며 기세등등하다. 서로 얽히고설킨 나선으로 소용돌이치는 기세가 폭풍이 휘몰아치는 거센 바다의 형세다. 한껏 고양되고 급팽창한 에너지가 폭발할 기세다. 너울대는 기운과 선들은 다채로운 색과 결합하여 더욱 변화무쌍하며 무궁무진한 운동에너지로 요동친다. 붉은 색과 청색, 노랑의 물결이 굽이치고 사이사이에 금빛과 초록의 선율이 휘감긴다. 혼연일체의 에너지 덩어리다. 조형 속에 국권회복의 역사의지가 담겨 있다. 조형에 역사 스토리와 종교, 예술, 의례가 결집해 있다. 한국산사가 간직한 목조각 전패의 걸작이다.

〈사진작가〉



송강범음범패전승회

수업형식 수료 1년 과정, (2년 코스)
개 강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오전 9시 시작
교육시간 매주 금요일 마다 오전 9시
교육내용 아침예불. 종성. 사물다루는 법(목탁. 요령. 북. 태징)
천도재 (49재의식), 천수바라, 사다라니, 도량게, 다게
수강자격 불교의식에 관심 있는 스님. 포교사 및 재가불자
교육장소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고목길 51-142 봉운사
문 의 사무총장 진효스님 010-5306-0856
은행 농협 351-1034-0234-33 송강범음범패전승회

매주 금요일 교육시간표

오전 9시 49재의식 진효스님
오전 10시 49재의식 진효스님
오전 11시 작법 진효스님
오후 1시 교양과목 태평소 대산스님
오후 1시 행사연습 진효스님
오후 2시 재능수업 북타법

송강범음범패전승회 회장 웅천 합장(合掌)

▣ 수업 시간표는 다가오는 행사 일정 또는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중요행사문의 – 윤달 생전예수재, 수륙재, 방생, 1000일 기도 회향법회, 점안식.
홈페이지 www.송강범음범패전승회.kr
회장 웅천스님 010-2370-2953 부회장 혜덕스님 010-9873-3320 강주 진효스님 010-5306-0856

SGBE 魚山

사과드립니다

지난 2월 6일 '불기2567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 진행 과정에 현대불교신문사가 제공한 열암곡 부처님과 해돋이 장면 합성 사진이 출처 소개없이 개시되어 귀사에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불기2567(2023)년 2월 23일
불기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 운영사무국

현대불교신문사 귀중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생활안내' '불자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불교인문학살롱

5 나의 간화선 실참기

▶**백경임 명예교수**는 이화여대 가정관리학과, 동국대 대학원을 졸업한 후 경희대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오리건 주립대학 교환 교수를 역임했다. 동국대 가정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다 정년퇴임했다. 불교적 관점에서 아동학 연구에 매진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구체적 조작기 아동의 부처님 개념에 관한 조사연구' '불교적 관점에서 본 수태 타태 출생' '불타의 재가아동관' 등이 있다.



세상 전체가 '나'임을 알았다



정년퇴직 후 위빠사나 등 명상수행 매진
유튜브서 현재 법사님 만나 간화선 수행
어떤 현상도 본질과 하나라고 체감되자
세상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해
역경은 모두 내 수행을 위한 작업이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내가 죽을 때 두려움 없이 편히 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그 준비를 해야 한다는 삶의 과제를 갖고 있었다. 오래전 병고를 겪으면서 이대로 죽는다면 다음 생 역시 몸은 병들고 마음은 괴로울 것이 자명하여 이대로 죽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 여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하셨는데, 부처님을 따르면서도 또 많은 불교수행법을 접하면서도 나는 이 근본문제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수행에 몸을 던지고 싶은 갈증은 있었지만, 평생을 교직에 몸담아 있었고, 맡은 일들과 일상이 시간을 휘감아 세월은 흘렀다. 드디어 기다렸던 퇴임이 나에게도 왔다. 이제는 메인 곳 없어 내가 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 때가 된 것이다. 65세 퇴임을 하고 나니 나는 이미 노보살, 늙음은 남의 눈에 띄지 않고, 편안하고 수행하기 좋은 여건이었다. 노년이라고 발목을 잡는 이런저런 일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진 직책도 내려놓고, 아이들에 대한 책임에서도 벗어났고, 아직은 내 몸 내가 가눌 수 있으니,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참으로 기대되는 좋은 나날들이었다.

어떤 수행을 할 것인가? 나에겐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간 회자된 간화선은 배울 곳이 마땅치 않을 뿐 아니라, 많은 시간을 보낸 후에 허탈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 내려놓았다. 수소문 후 요즘 유행하는 이런저런 남방불교 수행법을 체험해 보았다. 다 배워가는 재미가 있었고, 업장 정화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다가왔다. 그 가운데 알아차림에 역점을 두는 '쉐우민 수행법'에 몰두해 보기로 하였다.

쉐우민 수행법인 위빠사나는 행동의 일거수일투족과 마음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는 통찰수행법이다. 내 행동과 마음을 관찰하려니 아무래도 나와 거리를 두게 되어 자연스럽게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힘을 기르게 된다.

정기적인 수행모임에도 나가고 집중수행도 하면서 한 3년 몰두하다보니 알아차림이 깊어져 대부분의 행동이 내 의도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욕구에 의해 행동은 습관적으로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또 머리 속에서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잇속 빠르게 정리, 계산, 예측, 계획하고 있었다.

나의 에고가 잘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내가 살아온 습관의 관성(業)에 따라 행동은 자동발생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였다. 업(業)이라는 불교적 용어에는 의지라는 뜻이 내포돼있다지만, 나는 업에 따른 이 행동의 일어남에 의지라는 것이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오히려 행동의 주체가 없음을 알 수 있어 이것이 '무아(無我)'이구나 했다. 내 습(業)이 행동을 하게하지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는 것이 알아차려졌다.

나의 근본적인 두려움이 많은 방어를 만든다는 것을 알았고, 에고의 속절없는 이기심에 부끄러워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알아차림을 하다 보니, 언제나 허공에서 큰 눈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일상생활에서도, 걸어갈 때에도 눈이 나를 따라다녔다.

"내 마음이 허공에 이런 눈을 만들었구나, 내가 아무래도 잘못된 수행의 길로 들어선 것" 같았다. 상황이 걱정스러워 지도법사 스님께 여쭈어보니 "눈이 어디에서 보고 있는가"하고 물어서, 나의 오른쪽 위쪽에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오른손잡이냐"고 다시 물었다. 그렇다고 말씀드리자 "알아차리는 힘이 좋아서 그렇다"고 계속 수행하라며 오히려 격려해 주셨다.

안심을 하면서도 그것이 뭔지 몰라 답답함이 해소되지는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스님께서 "네가 너라고 알고 있는 네 몸이 너가 아니니, 너를 바라보고 있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려 알아차림 해보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어떠했을까?

유튜브의 출현으로 전 세계 영성가들의 법문이 넘쳐나는 신세계가 열렸다. 내가 공부할 시점에 이런 시대가 도래한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하여 나는 새로운 스승을 만났고 오래전 내려놓았던 간화선 수행을 새로 참구하게 되었다. 새로 만난 법사님은 해박한 동서양의 지식으로 막힘없이 간화선 수행의 요체를 일러주셨다. 깨달음을 근간으로 하는 이 수행법을, 경험을 기반으로 역설하시니 믿음이 갔다. 나는 이 가르침에 나를 던져보기로 하였다. 유튜브의 그 많은 법문에 빠져 살기를 한 얼마간은 정말 행복한 나날이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이렇게 큰 내면적 기쁨을 주었다. 성장하기 위해, 참구하기 위해 삶을 사는 것이 확실하게 느껴졌다. 유튜브나 줌을 통한 비대면 공부는 자연스레 대면 수업으로 이어졌고, 드디어 실참의 집중수행 기회가 왔다. 법사님과의 첫 집중 수행이었다.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고 "'네' 하고 대답하는 것이 무엇인가?"하는 화두가 주어졌다. 언제적 간화선 수행인가? 그 옛날 대학생 때 해본 화두 참구, 이제 일흔이 넘어 재도전이라니! "네"하고 대답하는 내 소리를 따라 내면으로 내면으로 참구해 들어갔다. 답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면은 어둡고 깊고 답답하였다. 체기인 듯 답답함이 이어지는데, 이튿날 오후 갑자기 온 세상에 에너지가 꽉 차오르면서 모든 생명들이 생기에 넘치고, 모두 환희롭고 자비심이 넘치는 평등한 세상이라는 것이 느껴졌다. 에너지로 후끈한 벅찬 이 느낌은 내 마음이 만들어 낸 환상인가? 원래 세상을 이제야 바로 알아차리게 된 것인가? 법사님의 지도로 이 '에너지장 체험'을 수행의 한 과정으로, 환희로운 경험으로, 그러나 지나가는 경계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집중수행을 종종 이어오면서 이러저러한 맑음과 평등, 보살심 등의 감정이 올라오는 경험을 하였으나 지나가는 경계일 뿐이었다.

중요한 결정적인 체험으로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BTN 불교TV에서 법사님 강의를 듣는 데 "있던 물건이 없어져 안 보여도 없어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에서 확 시야가 열리면서 '본질'이 알아진 경우이다. 벌떡 일어나 걸으며 웃었다. 좀 싱거웠으나 확실했다. 그 이후 법문 듣기가 훨씬 편했다. '나'라고 생각했던 이 몸이 내가 아니고, 무한한 그곳이 내 고향임을 아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는 실마리라 하겠다.

우리 모두 다 한 뿌리이며, 다 이런저런 파도이며 바닷물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법문이 실감나게 알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욕심은 일었고,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중생이 부처'임을, '평상심이 도(道)'임을 알 수 없었다. 모든 현상이 파도임은 알겠는데, 나에겐 예쁜 파도, 좋은 파도, 나쁜 파도가 있는 것이다.

수행은 계속됐고 어느 때 점심식사 후 하루 중 가장 긴 4시간의 정진 때였다. 법사님께서 깨달음의 필요성을 역설하시고, 남은 3시간 제대로 참구하면 충분히 깨칠 수 있다고 하셨다.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독한 사냥개가 상대를 물고 절대 놓지 않듯이, 질문을 한 3시간만 물고 늘어지면 찾을 수 있다고 하셨다. 나는 3시간을 죽기 살기로 해 보겠다고 마음먹었다.

실제로 나는 지금 죽어도 현실적으로 큰일이 날 일도 없었다. 나는 사나운 사냥개가 본질을 강하게 물고 '네가 뭐냐'고 3시간을 버텨보고자 각오했다. '이것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대답하고 내 몸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이 생명 자체를, 사냥개가 단단히 물고 "너가 뭐냐"고 다그쳤다.

그러기를 한 10분이나 지났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도대체 이 승강이 하는 당체가 뭐지"하는 의문이 들어 상황을 짚어보았다. 본질은 이 몸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이것이고, 물고 늘어지는 쪽은 "너가 뭐냐"며 다그치는 그것이었다. 대답도 하고 온갖 작용하는 본질인 이것이나, '너가 뭐냐'고 묻는 그것이나 같은 생명 현상, 같은 성질이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어? 이상한데? 다 같은 작용인데 왜 대적하고 있지"하는 자각이었다. 내 몸을 다루는 같은 기능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아챈 것이다. 그러자 갑자기 사나운 개가 물고 있던 이빨을 스르르 빼는 것이다. 불현듯 맥락을 짚어보는데, 나를 움직이는 본질과 다그치는 개가 서로 바라보며 웃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형상화된 관념의 판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새로 조각이 맞추어지는 것이다. 이해 안 되는 것은 이 현상이다.

나의 무의식에서 관념들이 재조정되는 찰나인 것 같았다. 진동하며 재구조화되는 것이 이미지로 선명하게 보였다. 그러고 보니 치유나 깨달음, 모두 무의식의 재구조화인가보다. 긴장감 속에서 다시 찬찬히 맥락을 살펴보았다.

"그렇지!" 어떤 현상이라도 본질과 하나라고 체감되자 세상의 부정적인 면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였다. 내 인생 역경의 많은 상황들이 모두 내 수행을 위한 작업이었다. 힘든 투병생활도, 날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모두 날 위해 연극을 했던 것이다. 연극의 막이 내린 듯 '몰랐지' 하면서 웃는 것 같았다. 모두 고마운 스승들로 재조명되며 감사함에 울컥하였다. 장에서 소화가 되느라고 소리가 크게 났다. 온몸이 좀 더워지는 것 같았다.

'중생이 부처'라는 말이 받아들여졌다. 3시간이 어느새 훌쩍 지났다. 법사님께서는 '완전히 방점을 찍도록 하라'고 방향을 짚어주셨다. 생각만큼 기쁘지는 않았지만 편안하였다. 이제부터 수행 시작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 이후 죄책감과 수치심이 많이 사라졌다. 상담에서 치유하기 힘든 부분이 이렇게 한꺼번에 해결되니 기뻤다.

원래 도는 '언어도단 불립문자(言語道斷 不立文字)'이거늘, 드러낼 수 없는 것을 체험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보니, 나의 법상(法相)을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게 인격적 성숙을 기대할까 두렵다. 단지 내 수준의 체험을 전제로 시작했으니, 최근 얼마 전 경험으로 마무리할 일이다. 역시 집중수행에서 내면으로 진화두를 참구하는 중이었다. 가슴의 답답한 공간이 몸을 박차고 확 열리면서 이 세상 전체가 '나'라고 알아지며 서늘하였다.

그것이 나를 포함하고 있다고 알았는데 '내가 전체'임을 처음 알았다. 그러고 보니 내가 너무 소심하게 살고 있었다. 너무나 크고 대단한 존재인데 참 쪼잔하게 살았다. 보살심을 발원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넉넉해졌다. 처음 공부할 땐 체험이 법상(法相)이 될까 저어했다면, 이번에는 습에 의해 작아져 있는 나 자신을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그릇을 키우는 일이 남았다.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23-0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전화 한번에 끝! 자동이체로 전환하세요

불교의 현대화 1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2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 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3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kakao Ch 현대불교신문
NAVER 현대불교신문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양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2004-8212

손가락을 달이라 한다면…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⑨ 식심(識心)

〈원문〉

부처님이 아난에게 고하셨다.

"너희들이 연심(緣心)으로 법을 들으므로 이 법도 또한 반연(攀緣)된 것이라 법의 성품을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켜 옆에 사람에게 보여 주거든 옆의 사람이 손가락을 인해 달을 보아야 할 것이거늘 만약 손가락을 보고 달이라 한다면 이 사람이 어찌 달만 잃을 뿐이리요. 손가락까지 잃은 것이니라. 왜냐하면 손가락을 밝은 달이라 하기 때문이니라. 어찌 손가락만 잃었을 뿐이리요. 밝은 것과 어두운 것도 모른다 하리라. 그 까닭은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달의 밝은 성품이라 하기 때문이니라.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모르는 탓이니 너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만약 나의 설법하는 음성을 분별하는 것으로 너의 마음이라 한다면 마땅히 분별하는 음성을 떠나서도 분별하는 성품이 있어야 하리라. 마치 어떤 나그네가 여정(旅亭)에 기숙(寄宿)할 적에 잠깐 있다가는 문득 가는 것이요, 항상 머물러 있지 않거니와 여정 주인은 나그네가 아닌 주인이므로 떠나지 않고 머무는 것이니라. 이것도 그와 같아서 참으로 너의 마음이라면 갈 데가 없어야 할 것이거늘 어찌하여 음성을 여의고는 분별하는 성품이 없느냐?"

〈강해〉

부처님이 아난에게 연심으로 듣는 것은 법 자체가 아니라고 일러주신다. 연심이란 쉽게 말하면 보고 듣는 객관 대상에 대하여 분별하는 이런저런 생각이 일어나는 마음이다. 이 식심(識心)은 참마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마치 음식의 맛을 말로 설명해 주면 달다 쓰다 하는 맛에 대한 언어적 개념은 이해되지만, 말로 설명하는 것이 맛 자체는 아닌 것처럼 연심으로 법을 듣는 것은 법 자체가 아니라는 말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란 말은 경전 속에 설해진 부처님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다. '표월지 도해벌(標月指 度海筏)' 이라 하여 때로는 뗏목에 비유하기도 한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것은 달을 보라고 하는 것인데 왜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느냐?"는 문책은 중생의 미혹을 질책하는 말이다. 회광반조(廻光返照)라는 말이 있다. 밖으로 반연되는 경계에 끌려가지 말고 안으로 자신의 성품 자리를 비추어 보라는 말이다. 청매인오(靑梅印悟(1548~1623)의 〈십무익송(十無益頌)〉에도 "마음을 반조하지 않으면 경전을 보아도 소용없다(心不返照 看經無益)"는 말이 나온다. 또 임제록에도 "그대는 말이 떨어지면 곧 회광반조할 것이며, 더 이상 다른 데서 구하지 말 것이니 이 몸과 마음이 부처나 조사와 더불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른바 깨달음의 경지는 주객이 합일(合一)된 경지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없이 아는 지혜라 하여 무분별지(無分別智)를 얻게 된다고 한다. 무분별이란 달리 말해 지식의 경계가 아니라는 말이다. 청매의 또 다른 〈십이각시(十二覺詩)〉를 보면 깨달을 각(覺) 12개를 가지고 깨달음을 설명하고 있다. "깨달음은 깨닫는 것도 깨닫지 않는 것도 아니니 깨달음 자체가 깨달음이 없어 깨달음을 깨닫는 것이다. 깨달음을 깨닫는 것은 깨달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니 어찌 홀로 참된 깨달음이라 하리요.(覺非覺非覺無覺覺覺 覺覺非覺覺 豈獨名眞覺)"

부처님이 설법하는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아난의 참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서 분별하는 그 자체가 마음이라면 듣지 않고 분별하지 않을 때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냐는 뜻으로 말하면서 여행하는 나그네가 여정(여관)에 머물다 떠나지만, 집주인은 나그네가 아닌 주인이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는 비유가 참 묘하다. 중생이 생사의 윤회를 거듭하는 것은 모두 나그네 신세라는 말이다.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유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도를 깨달은 이를 고향을 찾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시불(詩佛) 왕유의 시에 고향 집 창가에 매화 핀 것 보았느냐고 묻는 시가 있다.

"그대가 고향에서 왔다니 / 응당 고향 소식 알겠군요 / 오던 날 우리 집 비단 창가에 / 매화꽃 핀 것 보았는지요 (君自故鄕來 應知故鄕事 來日綺窓前 寒梅着花未)"

〈반야불교연구원장〉

"밝은성품 운용은 그 성품 인식서 시작"



구선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⑨ 비상비비상처해탈법

〈법화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것 중 하나가 팔해탈이다. 팔해탈은 대적정문을 바탕으로 대자비문을 수행하는 것이다.

오늘은 8가지 중 비상비비상처해탈법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어보고자 한다.

비상비비상처해탈은 8선정의 과정이다. 비상(非想)이란 본성의 상태를 말한다. 비비상(非非想)이란 본성도 아니고 심 · 식 · 의도 아닌 것을 말한다. 본성의 간극에 머무르다 보면 밝은성품이 생성된다. 그때 생성되는 밝은성품의 형질이 비비상(非非想)이다. 심(心)과 식(識)의 바탕도 비비상(非非想)이다.

식의 바탕은 맑고 투명하다. 심의 바탕은 텅 비워져 있다. 이 상태는 본성도 아니고 심 · 식 · 의도 아니다. 밝은성품이 본성과 합쳐진 상태이다. 본성으로 비상(非想)을 관(觀)하고 밝은성품과 심식의 바탕으로 비비상(非非想)의 상태를 관(觀)하는 것이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이다. 비상비비상처정은 아나함과에서 이루어지는 수행이다. 비상비비상처정을 닦는 것은 진여심을 돈독하게 하고 생멸심을 제도하기 위해서다. 진여심은 본성, 각성, 밝은성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소유처정에서는 본성을 돈독하게 주시할 수 있는 각성을 증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반야해탈도가 행해졌다. 비상비비상처정에서는 밝은성품의 운용과 자시무명의 제도를 목적으로 해서 해탈도가 진행된다. 밝은성품의 운용을 통해 생멸연기의 원인 중 하나인 자연적 성향을 제도한다. 이 과정에서 몸의 제도가 함께 이루어진다. 심식의 바탕을 인식함으로써 자시무명의 원인을 제도한다. 이로써 심(心)과 식(識)의 생멸적 습성이 제도된다.

밝은성품의 운용은 밝은성품의 인식에서부터 시작된다. 본성의 간극에서 머무르다 보면 밝은성품이 생성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그렇게 인식한 밝은성품을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에너지들과 융화시켜가면서 밝은성품의 운용이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장부 순화와 뼈 순화, 신경 순화와 세포 순화가 함께 이루어진다. 식의 바탕을 인식하는 것은 본성의 간극과 밝은성품의 성향이 함께 활용된다. 본성의 간극으로 식을 비춰보면서 식과 본성 사이의 틈을 인식하게 되면 식의 바탕이 드러나게 된다. 식의 바탕은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고 밝은성품으로 몸을 이루고 있다. 이때 몸 부위가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층은 밝은성품의 층이다. 두 번째 층은 의지의 층이다. 세 번째 층은 외부 경계와 반응하는 층이다. 첫 번째 층은 미묘한 일렁임으로, 두 번째 층은 맑고 투명한 것으로, 세 번째 층은 생멸정보와 기쁨으로 채워져 있다. 세 번째 층의 생멸정보와 기쁨이 외부 경계에 반응하면 그때 식이 발현된다. 두 번째 층의 의지가 작용하면 이때에도 식이 발현된다. 이때에는 의도성이 작용해서 식이 발현된다. 첫 번째 층의 밝은성품이 두 번째 층과 세 번째 층을 통과하면 그 순수성이 훼손된다. 두 번째 층을 통과하면서는 의지의 분별로 인해 음기와 양기로 변화되고 세 번째 층을 통과하면서는 경계와 반응해서 탐 · 진 · 치로 변화된다. 식의 바탕에서 두 번째 층을 이루고 있는 의지가 자시무명의 흔적이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의지를 각성으로 전환시키면 자시무명의 습성이 제도된다. 의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밝은성품에 치중했던 성향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시무명이 시작되었다. 본성의 간극으로 식의 상태를 비춰보지 않으면 식의 바탕이 드러나지 않는다. 식(識) 자체를 통해서 그 바탕을 보고자 하면 세 번째 층만 인식될 뿐, 두 번째 층과 첫 번째 층은 인식되지 않는다. 밝은성품을 운용해서 몸을 제도하는 것은 4선정 이후에 이루어진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스님의 〈능가경〉 강설

⑨ 지금 그대로가 증득

찾으려는 마음을 버려라

사물이 실재한다고 느끼는 것은 특정 집단의 공감과 동의에 의해 그것이 가능한 일이지, 사물이 실재하여 그런 것은 아니다. 그 공감과 동의라는 것은 다시 시공간적인 제약을 둘 때만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사물은 시공간의 상태에 따라 아주 많은 변화를 가지기도 하고, 사물의 상태에 따라 시공간이 변하기도 한다. 그러니 현재에 대한 시각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따라서 그 물질에 대한 정보는 완전히 다른 사물로 변한다.

어디에 중심을 잡고 판단하느냐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중심이라고 정한다고 해도 그것을 정한 관찰자가 존재하므로, 정한 그 중심이 온전한 중심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구나 태양을 중심으로 삼는 것은 지금 그곳에 속해 있다는 이유 때문이지, 전체에 대한 중심을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가설을 세워 진실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으니 정작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았다 하여도 그것이 진실하여 그런 것은 아니다.

이처럼 사물 자체에 진실이 없다면 그 사물에 붙는 이름 또한 사실이어서 붙이는 이름이 아니라 임시로 붙여 소통으로 삼고자 함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질에 대해 단정하는 언어를 만들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꼭 그것이라고 만들 수 있는 물질도 존재할 수 없고, 꼭 그것이라는 이름도 붙일 수 있는 물질도 없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공(空) · 무상(無相) · 무원(無願)을 말하고, 어떤 때는 여실제(如實際) · 법성(法性) · 법신(法身) · 열반(涅槃) · 이자성을 말하며, 혹은 불생불멸 (不生不滅) · 본래적정(本來寂靜) · 자성열반(自性涅槃) 등의 명사와 이념을 말하기도 하네. 하지만 사실은 모두 약간 다른 언어 문자를 빌려와 진여 구경의 실상을 표현한 것일 뿐이네."

물질로 표현 못하고 언어로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지, 그것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언어로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 알게 모르게 그 언어에 대해 생각하고 견해를 가지며 자연스럽게 이미지화하려고 한다. 예를 들면 불교국가 어느 나라든지 가장 큰 법당에 들어가면 가운데 곱슬머리에 금빛으로 모셔져 있는 분이 계신다. 우리는 그 분을 부처님이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분이 부처님은 아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처님' 하면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리고 그 불상 이외에 다른 분을 부처님이라고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정말 그분이 부처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말하는 것이 곤란해진다.

부처님 열반 후 수백 년 동안 불상이 없다가 간다라 지방에서 유래해 만든 형상도 그분을 본떠 만든 것이 아니고, 그 의미도 그분이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미지화 되어 있는 그분을 부처님이라고 알고 있으면서 그분이 정말 부처님입니까 하고 묻는 말에는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가. 만약 어느 특정한 형상과 의미를 부처님으로 만들어 버리고 나면 수행을 한다는 것이 무의미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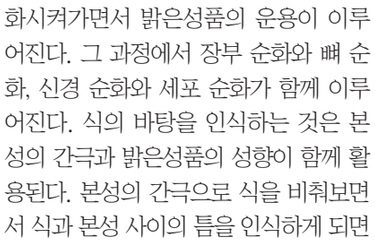
부처님은 특정한 형상이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님을 "모양으로 나타난 신체는 여래가 아니다. 음성도 또한 여래가 아니다."라는 말로 대신하셨다.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에 드실 때 당신을 형상화하는 불상을 만들지 말라고 유언까지 하셨다. 다만 탑을 만드는 것만을 허락하셨다. 그 탑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등대와 같은 것이므로 허락하신 것이다. 그 등대는 길을 잃은 자들이 그 등대를 보고 그곳에 도착해 가르침을 듣고 가르침에 의지하여 바르게 길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을 형상과 언어로 표현하고 단정하고 이미지화한다면 그것을 말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표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누구나 구할 필요 없이 증득하고,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야 한다. 지금 그대로가 바로 증득인 줄을 깨닫고, 다른 의심을 거두어들이면 끝이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법당서 본사 견본으로 …

소리비교 순간! 너무나 달라진 스님 염불소리에 혼란스러운 보살들이 법당으로 몰려오며 스님 염불소리다! 아니다! 테프 소리다! 확인하는 소동! …. 이때 비교만 하고 신속히 사라지는 이유 … 권한다고 다 사준다면 재벌이 따로 없기 때문! …. 비교시 장난감차이 확인!

20년간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1천여 사찰 시설했지만 고장없음, 만일 고장이 난다면 입소문 때문에 장사를 고만 두어야 함, 시설비 190만원 ~ 수 천만원까지 장기할부

전국을 다니며 시설함으로 귀 사찰을 부근을 지날때 견본으로 일단 소리만 비교
(귀 법당소리와 비교시 장난감 수준 차이! 소리비교비용은 커피한잔!)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무선마이크 4개, 본품들은 시중에 없음

원톱 시스템 다목적 방생용
한번에 최고의 성능을 구입하시면 절약 속에 후회가 없다는 뜻!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4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89만원

시중에 없음

염불시 마이크와 2m 멀리서도 소리 월등
스탠드 분리형

시중에 없음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가격 65만원
▣ 한국사찰 각종 "재" 전문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공희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26호 | 17 | 전면광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20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밑 주차가능 - 매가 : 40억
- 위치 : 경기 - 부지 : 450평 - 건평 : 약 100평 - 산 밑 주차가능 - 매가 : 30억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 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 터 다량 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344~43번지
- 대 지 : 500평
- 법 당 : 30평
- 요사채 : 20평
- 가 액 : 5억

010-3640-3128

암자 (급) 안내

- 위 치 : 경북 경주시 감포읍 (문무대왕릉 5분 거리)
- 공기 좋고, 바다뷰 일품
- 대 지 : 407평, 건평 1.2층 70평
- 주 택 : 1층 방 3개, 화장실 2개, 2층 큰방, 욕실, 법당
- 100m 지하수 완비
- 가 액 : 6억원(동해 용왕기도터)

010-3000-5359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남 김해시 내외로 11번길 3-19 (3-4층 복층 73평)
- 3층 : 법당 20평=고급 재질, 완벽한 시설, 스님방 1개, 넓은 주방, 화장실, 샤워장
  4층 : 아주 큰방 1개, 작은방 2개(살림 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 1천 5백만원, 집기 일체 무료
- 스님 노환으로 승직을 탈퇴합니다.
- 사용 중인 가전 전자제품 무료 제공

010-5458-2955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소재
- 대지 : 약 600평,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스님 노환으로 급매
- 집기류는 그냥 주고 갑니다.

꼭 하실 분만 연락
가액은 상담 후 결정

010-2366-2821

부산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온천장 시장 바로 인근
- 2층 약 50평(방, 친견실)
- 시설비 3천 2백만원(2개월 전 완전수리)
- 보증금 2천만원, 월7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010-3582-8975
010-5511-7000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 600평, 대웅전(53평)
- 부속 건물 :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 3억 8천만원

010-8957-808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 가액 : 3억 3천만원 (부동산 전화 사절)

010-5530-5866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 위치, 양쪽 계곡, 앞쪽으로 전망 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허가 득
- 가액 12억

010-5421-1536

사 찰 안 내

경기도 가평군 중미산 자락에 위치한 절입니다. 남향으로 전망 좋고, 법당도 넓고 깨끗하여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 1층 82.53㎡ (방 3개, 부엌, 거실), 2층 82.53㎡ (법당, 방, 베란다)
- 보증금 3천 월세 80만원, 권리금 없이 모든 시설 완비 (즉시 입주 가능, 직접 보실 수 있음)
-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 160

010-2551-3752

사찰 (급) 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
- 대지 200평, 임대부지 약 300평, 법당 10평, 산신각 2평 용왕각 6평, 요사채 20평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가액 : 일억 오천(조정 가능) 와서 보시고 결정하세요.

010-3757-3699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10억

010-6325-5112

사찰(급)안내

김해시 안동 6거리
창건 30년, 도량 270평,
매일 재개발로 들썩들썩
가액 11억
보상은 후임자의 몫으로

010-6898-9114

사 찰 안 내

- 위 치 : 충북 청주시 오창읍
- 대 지 : 1,787평, 극락전 : 30평, 미륵전 : 40평, 살림집 : 30평, 공양간 : 30평, 연못 50평 등
  야산 밑으로 공기 좋고, 햇볕도 잘들고 풍광이 아주 좋습니다.
- 매매 26억

010-4455-7151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 8백평
- 건물: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10억

010-4547-0023

사찰(급)안내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대지 143평
- 가액 : 1억 2천 (조정 가능)
- 당일 법회 가능, 현재 운영중입니다. 노스님 몸이 약하신 관계로 양도 법사님, 보살님도 인연 맺습니다.

010-4180-178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상대동 3층 중 2층
- 법당 34평, 삼존불, 신중탱화, 산신당, 방1개, 화장실
- 보증금 5백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절충가능)
- 몸만 오시면 됨

010-7476-9002

사 찰 안 내

- 위 치 : 경남 진주
- 대 지 : 약 50평
- 건물 3동
- 뒤에 배 밭이 있음
- 가 액 : 6천 5백만원

010-7506-8604

암 자 안 내

- 위 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4길 23
- 대지 102평, 2층 법당 15평, 1층 생활관 34평
- 가액 : 9천5백만원

010-4156-3779

생활안내 · 불자정보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디자인이 산뜻해 졌습니다.
글자 크기가 커졌습니다.

POINT 01 광고 가독성과 정보전달을 위하여 크기를 1.5배 키웠습니다.
POINT 02 불자정보 기본 5cm ➡ 6cm로 커졌습니다.
POINT 03 생활안내 기본 4cm ➡ 6cm로 커졌습니다.

문의 | 010-4648-8200

포교원안내

- 경남 밀양시, 5층 중에 2층, 70평
- 삼존불, 인등, 원불, 영가위패인등, 산신인등, 각방 에어컨, 방 4개, 냉장고, 세탁기 등 시설완비(시설비 1억 7천만원)
- 무료 주차장 약 50대, 병원, 은행, 마트 1분 거리, 시주 하시는 분 강력 추천, 비품대 확실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 보 5백만원, 월 43만원, 시설비 4천 5백만원

010-9424-477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건 물 안 내

- 청주 시청 앞 9층 건물
- 대지 141평, 건평 1,000평 대출 15억, 매매 15억
- 지하 1-2층 각 층 100평씩

1층 : 로비, 차고, 사무실 / 2층 : 연잎 한정식 식당
3층 : 생광석 찜질방 / 4층 : 식당 / 5층 : 사무실 임대
6층 : 불교 대학 / 7층 : 대웅전 법당
8층 : 사무실, 방송실 / 9층 : 아파트식 주택

최고의 인테리어 시설

010-5883-2255, 010-8569-6643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건천읍
- 평수 : 총 426평 대지110평, 전316평(포도밭) (건물조성 담장 가능)
- 인법당 : 18평 1동 (법당 1칸, 공양간 1칸, 스님 침실(화장실 포함 1칸)
- 매매가 : 1억 5천 충분한 의견 조율 및 절충가능
- 주위가 펜션조성지

010-9031-3570

사 찰 안 내

- 위 치 : 충남 금산 추부
- 대 지 : 280평, 임야 : 50평, 총 330평
- 삼성각 : 7평, 전통 기와 목조건물
- 법 당 : 22평, 경량골 철골
- 요사채 : 슬레이트 지붕, 블록, 방 5개, 거실, 주방, 화장실
- 대전 옥천 15분 이내(교통 편리)
- 뒤는 산, 앞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경치 좋은 곳
- 가 액 : 2억 5천만원, 대출 5천만원

010-3875-630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 금정로 미로시장 부근
- 2층 사무실 / 약 5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70만원

포교원 한번 구경 해보세요.
스님, 보살님 환영

010-7728-1885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 218쪽 |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 292쪽 |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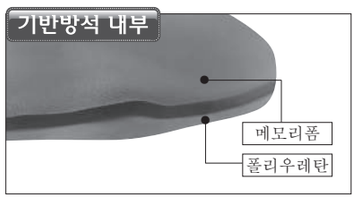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제품의 특징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426호 | 18 | 전면광고

자신의 죄와 업장이 산과 바다처럼 많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고 이 죄와 업장을 몸과 마음을 다해 참회하여 없애야 할 것임을 잘 알아야 하느니라.



부처님 말씀 읽기 -《계초심학인문》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영산범음집 3판 증보판

A4 320페이지 특수용지 2중 배접

1. 의식편-천도의식, 종사영반, 상용영반 관음시식, 구병시식
1. 해설편-의식문 자체가 한자로 되어있는바 전문(全門) 한글로 해석
2. 악보편-옹호게, 거불성, 산화락 등 바라춤, 각종진언 사물장단 수록

※※영산범음집 한 권으로 상용 재의식을 집전할 수 있으며 시종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게 되어있음 책의 마지막엔 지금까지 보시하신 스님과 사찰명단 수록

정가 50,000원 유튜브 '영산범음집'검색 전 과정 동영상 제공

010-3842-1040 범패연구소



추천-책이름 검색 해보세요!!

정재(淨財) 필요합니다

간절하게 발원 하옵니다.
신실한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고 생활할 공동체 마을을 조성 중인데 자금이 부족하여 **좋은 인연을 찾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시면 담보 제공과 이자를 드리겠으며 시주와 기부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신도 5계에 저촉되는 업과 관련 있는 재화는 받지 않습니다.

해월산 在禪居士 합장 010-7572-5358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부전스님 공양주 모십니다.

010-2078-9595

우리 다 함께 불교를 살리는데 동참합시다

- 전국 시 · 군 · 단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포교활동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 기본급 월 3백만원 외 활동 범위와 능력에 따라서 배당금과 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 불교를 위해서 무언가 공덕을 짓고자하는 불자님들은 망설임 없이 연락 바랍니다.

010-8459-1472, 043-642-9413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결혼상담소

나라님께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인연만나 행복을

010-5624-1365
02-306-7988

포교원할 분

서울 강서 목동 사거리
시장 옆 2층, 30평 남향(가액 절충)
부전, 공양주 무석보살 상담

결혼정보(결혼할 여성 찾음)

남자 45세, 서울 거주
국가인증 자격증 3개,
회사 대표, 골프선수

010-5381-1419

구합니다

60대 비구입니다.
남은여생, 수행 정진할
조용한 암자를 구합니다.

010-5929-3217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영험약수"로 힐링(치유)가능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 식약청 46가지 검증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미륵암**
지평대사 : 033-336-2309 / 010-4804-2309
※ 몸 아프신 분들 천도재 해드립니다.
※ 땅 양도 안되시는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이젠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

hyunbulnews.com에서도
불자정보 · 생활안내를

생활안내

찾아보실 수 있어요

NAVER 불자정보·생활안내 검색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와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 15,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임병학 교수의
꽃차이야기
④ 매화차

폐기 거두어 마른기침 멎게 해
〈肺氣〉

매화(梅花)는 눈발이 흩날리는 이른 봄에 잎보다 먼저 꽃을 피운다. 대지에 생명이 깨어남을 알려주는 첫 신호를 매화로부터 듣는다. 매화는 화려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품격 높은 동양의 꽃이다.

꽃의 색에 따라 흰색 꽃이 피는 것을 '백매화', 꽃잎이 많은 종류 가운데 흰 꽃이 피는 것을 '만첩흰매화', 붉은 꽃이 피는 '홍매화'라고 한다.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 일찍 피는 '조매(早梅)', 추운 날씨에 피는 '동매(冬梅)', 눈 속에서 피는 '설중매(雪中梅)'라 한다. 매화의 꽃말은 '고결한 마음'이다.

매화는 예로부터 난초, 국화, 대나무와 더불어 4군자의 하나로 애용되었다. 〈삼국사기〉에 매화가 등장하고, 또 〈삼국유사〉에는 '모량의 집 매화나무가 꽃을 피웠네'라는 시가 있듯이 삼국시대부터 우리의 가까이 있다.

매화의 이용 부위는 꽃 봉우리, 열매, 잎, 가지이며, 차 또는 약용한다. 〈동의보감〉에는 불에 쬐어 말린 오매(烏梅), 소금에 절인 백매(白梅) 등 매화나무 열매에 대한 약효를 설명하고 있다.

〈성분과 약성〉

매화는 성질이 평하고, 맛은 시고 떫다. 성분은 정유(精油) 벤즈알데하이드(benzaldehyde), 이솔루게놀(isolugenol), 시토스테롤(sitosterol), 안식향산(安息香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의 항산화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다.

매실은 갈증해소와 수렴작용을 하고 진액을 생성하며, 구충하는 효능이 있다. 오매는 비(脾)와 폐(肺) 두 경락의 혈분약(血分藥)으로 폐기(肺氣)를 수렴한다. 매화는 위(胃)를 조화롭게 하고, 담을 삭혀주며, 식욕부진 등에 효과가 있다.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의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에 노출되어 손상되는 피부를 보호하고 주름 방지와 노화 예방에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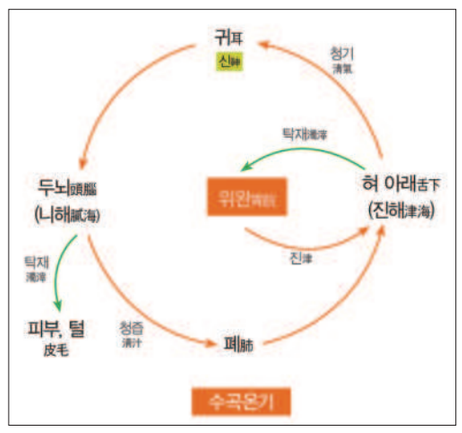
〈마음 · 기(氣)작용〉

매화는 폐(肺)에 좋은 태음인의 꽃차이다. 태음인은 간(肝)의 기운이 크고 폐(肺)의 기운이 작은데, 맛이 시고 떫은 매화는 작은 장부인 폐의 기운을 좋게 하는 것이다.

〈동무유고〉 '동무약성가'에서 밝힌 오매(烏梅)의 약성은 '폐기를 수렴하고 갈증을 멈추며, 진액을 생기게 하고, 설사와 이질을 치료하여 편안하게 한다(收斂肺氣, 止渴生津, 能安瀉痢.)'이다. 매화는 폐의 기운을 거두어들이고 진액을 생성시키는 꽃차이다.

매화는 폐기(肺氣)를 거두어 마른기침을 멎게 하는데, 이는 수곡온기의 폐(肺)와 관계된다. 수곡온기는 위완(胃脘)에서 진(津)이 생성되어 혀 아래의 진해(津海)로 들어가고, 진해의 맑은 기운은 귀로 나아가서 신(神)이 되고, 신이 두뇌로 들어가 니해(膩海)가 되고, 니해의 맑은 즙을 폐(肺)가 빨아들여서 원기를 보익한다. 니해의 맑은 즙이 폐를 보익하기 때문에 매화는 두뇌에 있는 니해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그림 참조)


매화차.



또 매화는 진액(津液)을 생성시키기 때문에 수곡온기에서 위완의 진(津)을 생성시켜서 혀 아래에 있는 진해(津海)를 충만하게 한다. 또한 매화는 위(胃)를 조화롭게 도와주고, 담을 삭혀주며, 식욕부진 등에 효과가 있는데, 이는 수곡열기의 고해(膏海)와 관계된다. 수곡열기는 위(胃)에서 고(膏)가 생성되어 양 젖가슴의 고해로 들어가고, 고해의 맑은 기운은 눈으로 나가서 기(氣)가 되고, 고해의 탁재(濁宰)는 위를 보익하기 때문에 매화는 고해를 충만하게 한다.

〈제다 및 음용〉

매화 채취는 피려고 하는 꽃 봉우리를 채취하여 저온에서 덖음을 한다. 매화차 우림은 매화꽃 2~3송이에 100℃로 끓인 물 250ml를 넣고, 1분 이내로 우린다. 과다 복용은 빈뇨 현상이 나타나고, 위산과다로 위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매화차는 녹차와 블렌딩하면 성인병 예방에 좋다. 매화차 블렌딩은 위(胃)를 편안하게 하고, 녹차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인하여 암을 예방하며, 해독작용으로 심혈관을 맑게 한다.

〈사상인별 음용 소감〉

태음인이 마셨을 때, 차를 우림하기 전에는 향이 살짝 매화향과 살구씨향이 나고, 차를 마신 후에는 혀 전체가 얼얼하고, 약간 매운 맛으로 인해 이마와 등에 땀이 흐르고, 입안에 침이 고였다.

또 아주 진한 풀향이 확 올라오면서 약간의 단내가 났다. 첫 잔은 가볍게 달콤한 맛이 났고, 두 번째 잔에서는 등 전체에 열기가 오르면서, 입 안에 침이 고였다. 점심에 과하게 먹은 음식이 소화되어 내려갔다. 또 처음 한 모음에서는 입안에 단맛이 나고 침이 고였으며, 두 번째 잔에서 몸의 열감이 나고, 순간 작은 트림이 나면서 소화가 되었다.

특히 약한 아카시아 향과 단향이 나면서 건고추의 매운 향이 나고, 혀가 떫고 따갑고 아팠다. 한참 후에는 속이 쓰리고 통증이 왔다. 한 잔의 매화차에서 태음인들의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다.

소양인이 마셨을 때, 우림하기 전의 향은 생것 같았고 한약 냄새가 났다. 첫 잔에서는 구수하면서 끝은 톡 쏘는 냄새가 있고, 미끈하면서 약간 구수하다. 두 번째는 구수한 냄새와 맛이 났고 혀끝이 약간 쓰렸다. 신체변화는 잠이 왔으며, 위가 약간 아팠다, 어깨에도 통증이 왔다.

소음인이 마셨을 때, 우림하기 전에 차향에서는 약한 한약 냄새가 났고, 우림한 차에서는 은은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향이 났다. 처음 차 맛에는 단 맛이 났고, 두 번째 잔에서는 풀 맛도 느껴지면서 오래 머물러 있었다.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교수〉



김영숙의
효소건강칼럼
② 효소의 기능

미네랄 효소 풍부한 고영양식 섭취해야

요즘 발효(醱酵)라는 단어가 일반인 사이에서도 자주 쓰인다. '발효'는 간장, 된장, 젓갈, 유기산, 아미노산, 조미료, 의약품 등의 생산에 폭넓게 쓰인다. 식품 중에는 어떤 것이 발효인지, 삭힌 것인지, 숙성인지 명확히 구별하기가 어렵기도 하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김치가 많이 회자 되기도 했다. 발효음식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실수로 상한 음식을 먹었다가는 탈이 나게 된다. 그러나 치즈나 요거트처럼 발효시켜서 일부러 상하게 해서 먹는 음식도 있다.

발효란 미생물이 산소 없이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대사과정을 말하며, 좀 더 나아가서는 미생물이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과정을 말하기도 한다. 미생물은 단순히 에너지를 얻기 위해 발효를 했을 뿐인데 그 결과물로 어떤 부산물이 생긴 것이고, 그 때 생성되는 부산물에 따라 발효의 종류가 정해진다.

인류가 가장 먼저 찾아낸 발효의 대표적인 것이 효모균의 '알코올 발효'와 젖산균의 '젖산 발효'이다. 알코올 발효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미생물은 효모다. 효모는 광합성을 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 단세포 미생물로 약 1500여 종이 알려져 있다.

막걸리 등을 만드는 양조나 제빵에 주로 사용된다. 효모는 효소를 만드는 곳이고, 효소는 효모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 내에 촉매 단백질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미생물이 물질을 변질시킨다는 점은 같지만 인간이 의도한 대로 변화되지 않고 해로운 물질이 생성된다면 그것은 '부패'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럼 발효와 효소의 차이는 뭘까? 발효는 효소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현상이며, 미생물이 자신의 효소로 유기물을 분해 또는 변화시켜 영양가 있는 최종산물을 만들어 내는 현상이다.

발효란 과정을 뜻하며, 효소는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대사활동 촉진 단백질 촉매이다. 쉽게 일꾼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하다.

대사 활동을 빠르게 하는 단백질 촉매로, 그 재료가 미생물에 의해 인간이 의도한대로 변화해야 한다. 단순히 미생물이 자랐다고 해서 발효가 아니다. 가령 술을 만들 목적으로 발효를 했는데 식초가 만들어 졌다면 이는 부패로 간주한다. 애초에 목적이 식초발효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식초를 만들 의도였다면 훌륭한 발효라고 할 수 있다. 원숭이가 새끼를 먹이기 위해 먹이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새끼에게 부드럽게 먹인 것이 자연발효의 원조라고 한다.

기원전 1만 년 전부터 포도주와 식초라는 발효식품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기원전 부터 이미 효모를 맥주 제조에 사용했다고 한다. 여행지에서 와이너리에 갈 때면 주렁주렁 온 몸에 포도와 술잔을 든 그리스신화 속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만날 수 있다.

동물성 · 가공식품 등 섭취가 체내의 효소 고갈 주요 원인

어떤 결과물이 생기게 될지는 환경에 많이 좌우된다. 습하고 통풍이 잘 되지 않고 온도가 따뜻한 환경에서 더 잘 부패 된다. 환경이 너무 건조해도 너무 습해도 발효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발효균이 죽을 수도 있고 시간 역시 중요하다. 적정시간 이상 발효되면 부패가 된다. 그 과정이 같더라도 목적에 따라 발효도 될 수 있고 부패도 될 수 있으며, 민족의 식문화나 식습관,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훌륭한 발효식품이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악취 나는 부패식품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외국인이 김치냄새 된장냄새를 힘들어 하는 가 하면 한국 사람이 냄새 진한 치즈를 어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홍어를 잔치 때면 비싼 값에 사먹는가 하면 어떤 이는 상에 오르는 것조차 싫어하기도 한다.

현대인들에게 효소가 부족한 이유는 동물성 식품 가공식품 자체가 효소가 부족하고, 그런 음식을 섭취할 때 체내 효소도 고갈시키기 때문이다. 화학비료 사용 등 건강하지 못한 땅에서 재배한 식재료 또한 효소 결핍의 원인이 된다. 과로와 스트레스, 휴식 부족도 체내 효소를 소모시킨다.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 먹은 음식의 영양분 흡수율이 떨어지고 체내 쌓인 노폐물 배출이 어려워진다.

오늘날의 인류는 하루라도 다이어트 광고를 안 보고 지나는 날이 없을 정도로 현재 인류의 가장 큰 숙제는 다이어트와 탈모라고도 한다. 절식법을 통해서 과잉 축적된 지방질과 노폐물을 배출해 혈액을 맑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는 것은 비만을 해소 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평소처럼 일상생활은 물론 운동을 하면서 생활에 불편함 없이 효과적인 발효원액을 사용한 절식법은 체중(체내 노폐물)이 빠지면서 건강을 되찾아 주고 피부까지 깨끗해지는 등 여러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

절식 중에는 신체 배설기관의 배출능력 과정화 능력이 평소보다 크게 증진됨으로 독성물질도 신속하게 제거된다. 이것은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분해 합성 해독 배설 작용 등의 여러 가지 활동을 수행하던 소화기관들이 전적으로 해독과 배설작용만을 하게 된다. 효소부족으로 영양소가 에너지로 되지 못하고 몸속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면서 체지방과 독소도 배출해 준다.

지방이 분해되기 위해서는 포도당과 충분한 효소가 필요한데 포도당 공급이 없으면 체내 산도가 높아져 머리가 어지럽고 기분이 불쾌해 지는 상태가 된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채소와 과일 같은 저칼로리의 비타민 미네랄 효소들이 풍부한 고영양식을 섭취 하는 것이 중요하다.

〈효소전문가〉

일일시호일

추락으로 턱뼈·대퇴골
골절되며 꿈도 무너져

몇 차례 수술로 뼈에 철심 박고 입안에도 나사못 8개 심어
회사·네팔 스님 배려에도 1300만원 병원비 남아 귀국도 못해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마음책 다시 읽기 **아픔을 다스리는 마음공부** ④ 더듬듯이 천천히 꾸준하게 해가는 공부

▶ 한줄 요약
알아차리는 힘은 책에서 얻기는 어렵다. 알아차리는 힘은 실지로 부딪히고 깨지고 후회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하는 아픔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이며, 그때에 조금씩 얻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명상, 마음 훈련으로 놓고 비우는 공부



어린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순수함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자아의식이 확고히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순수한 것이다. 또 가끔은 노인들의 얼굴에서도 순수함을 볼 수가 있다. 노인들 중에서도 세속의 모든 의무를 다하고 자아의식이 많이 정화되어 순수함 속에서 살 때 그렇게 보인다.

"한 손에 막대를 쥐고 또 한 손에 가시를 쥐고 늙는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막대로 치려 했으나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는구나."

고려시대의 시조다. 늙음이란 이런 것이다. 날렵하게도 지름길로 먼저 와 있는 불가항력이다. 노쇠현상은 인류가 탄생한 이후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누구나 감수해야 할 삶의 조건이다. 늙음은 그 어떤 권력이나 재물로도 대체 불가능한 것이다.

살아있는 이 시간을 더 귀중하게 더 후회 없이 보내는 것뿐이다.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살아가는 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짧은 인생이니 더 늙기 전에 실컷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는 쪽과 또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고 인생은 짧으니 내일이 있다고 할 일을 미루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살자는 다른 쪽, 큰 틀로 보면 이런 두 가지가 있다. 세월은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며 살자는 근면주의가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를 외쳐대는 것보다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역시 유한한 생명을 가진 자의 헛된 태도이다.

사람은 각기 다른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라도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의 능력 또한 다르다. 늙으면 모든 것이 약해지고 쇠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진리이지만, 늙는다고 해서 모든 능력이 다 쇠퇴하는 것도 아니다.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은 생활의 지혜를 가지게 되며, 인생을 관조하는 능력과 인자한 마음은 더욱 풍성해진다. 이 세상 살림살이란 모두가 함께 어울리고 엉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평등한 사회도 아니다. 비록 모든 인간이 완벽하게 평등한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각기 다른 존재들이 각자의 다른 능력을 가지고 조화롭게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어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젊고 기운찬 힘도 필요하지만, 오래 산 노인들의 지혜도 필요한 것이다.

노인들의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그들의 경험으로 얻은 삶의 지혜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방향 지침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내 아들은 나의 이런 점을 가리켜 '엄마의 더듬이 작용'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노소가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사람의 몸에 병이 들면 이들 속에 끼어들 수가 없어진다. 스스로가 낙오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자꾸만 사회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것은 그대로 자살행위와 같다. 노인들이여! 부디 눈을 크게 뜨고 숨을 크게 쉬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자. 그리고 스스로가 일어서야 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정신으로!

그 구원의 실상이 부처님 법이다.

일어설 수도 없는 병자이면 병상에 누워서도 좋다.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나 자신을 잡아 일으켜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잠시라도 귀를 기울여보자. 내 마음의 빈자리가 넓을수록 가르침의 소리는 더욱 크게 울려온다. 그냥 빈 마음으로 조용히 듣고 음미해보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얼마나 비어져 있느냐 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음미해 보고,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면서 주시해가면 그것이 마음공부를 해가는 것이다.

내 마음 빈자리 넓을수록 가르침은 커져
인격 스스로 자기 찾는 명상을 통해 발견
명상, 마음훈련 통해 지혜의 바탕 만든다
수행의 두 측면 고요와 통찰 함께 일어나

스스로 갖추고 있는 인격은 스스로 자기를 찾는 명상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고, 명상을 통해서 허망한 자신, 무한히 괴롭히고 불행하게 하는 자아로부터 해방시켜서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과 사의 갈림길이고, 삶이란 바로 그런 그 순간 순간 속에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홀로 서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바로 삶 그 자체가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 진정으로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 남과 함께 나누는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스스로 가꾸어 가면서 사는 것이다. 나 자신을 가꾸며 산다는 것은 늘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점검해 가는 것을 뜻한다.

인간의 마음은 바깥쪽에서 오는 어떤 환경과 만나지 않는 한은 투명한 물과 같아 그냥 빈 그대로이다. 그런 마음을 그냥 자유롭게 놓아두자. 그러면 마음이 차츰차츰 투명한 물체처럼 보인다. 이런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여 내적 명상의 자리가 잡혀가고 이어져갈 때 비로소 넘쳐나던 개념의 과잉에서 벗어나 휴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런 노력은 적당히 그러나 꾸준하게 항상 이어져 가야 한다.

명상이란 마음을 훈련하여 놓아버리고 비우는 공부이다. 종교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남을 도와주지는 못해도 적어도 최소한 남에게 방해가 되는 짓거리는 피해 가면서 살아야 한다. 화를 내는 마음이나 집착하는 마음을 놓으면 항상 평온하고 안정된 상태에 있게 되고, 강한 욕망이나 집착이 생기면 마음의 평화도 잃게 된다.

인간의 행복이나 만족감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 나오는 것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저 깊은 속에 있는 자기 마음의 소리에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보자. 자기를 관찰하고 마음을 응시하는 것에서부터 많은 알아차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덧없음을 생각해보면 부귀영화와 권위 같은 것은 무상하기가 끝이 없는 것이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분주한 마음을 다시 잡아들일 수도 있다. 실재하는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얻어내는 가르침이 훨씬 크게 다가오고, 그것은 더욱 실질적인 물음에 답을 하기 때문이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왜 태어났는가? 이런 근본 질문에 명상만이 해답이다.

명상은 마음을 훈련하여 지혜가 솟아오를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준다. 이때 호흡이 육체의 바탕이다. 이것을 호흡의 알아차림이라 한다. 호흡을 명상하는 것이다. 호흡의 알아차림을 연습하는 동안 호흡을 그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내버려 둔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알아차림과 깨어 있음이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릴 것이다. 호흡의 세 단계인,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과 호흡의 시작과 끝 사이 중간을 알아차려야 한다.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면 모든 걱정이 사라진다. 수행을 멈추지 말고 오직 호흡의 시작, 중간과 끝을 놓치지 말고 집중해야 한다.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해질 때까지, 그리고 세 단계의 호흡이 하나가 될 때까지 훈련한다.

이것이 지혜가 솟아나는 평화로운 마음을 만드는 방법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음과 알아차림이 있어야 한다.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는 것은 균형을 유지한다는 의미인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깨어있음이다. 무슨 일이든 깨어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마음을 명상의 주제로 가져오고, 주제에 대해 명상하고, 기쁨이 명상의 주제로 떠오르고 다음엔 행복이 따른다. 이러한 모두가 마음속에 있으며 고요 속에 세워진다. 이런 상태를 선정이라 한다. 마음이 하나에 집중된 상태이다. 이미 감각적 욕망, 미움, 불안, 의심, 나태함이 소멸된 상태이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여러 형태의 방해가 불쑥불쑥 일어나고 그때마다 방해를 받는다.

거기서 잘 이겨나고 초월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선정보다 지혜가 더 유용하다고 한다. 지혜와 선정은 다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통찰과 지혜는 있지만, 선정은 충분하지 않아, 앉아서 명상할 때도 마음이 그리 평화롭지가 않다.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많고 이 생각 저생각을 쫓다가 결국 행복과 고통의 명상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다.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걸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법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지혜가 부족하고 선정이 강하다고 한다. 그들은 깊은 선정상태에 들 수 있지만 지혜가 부족하여 번뇌를 떨쳐내지 못한다. 자신은 그 상태를 깨닫지 못하므로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들에게는 올바른 스승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수행의 두 가지 측면인 고요와 통찰은 함께 일어난다. 둘 중의 한 가지로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명상 중에 떠오르는 다양한 요소들을 감시하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알아차림은 수행을 통해 선정의 다른 요소들이 일어나도록 돕는다.

알아차림은 곧 생명이다. 알아차림은 곧 알아차리는 마음이다. 스스로 깨어 있음과 지혜의 원천이다.

알아차리는 힘은 책에서 얻기는 어렵다. 알아차리는 힘은 실지로 부딪히고 깨지고 후회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하는 아픔에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이며, 그때에 조금씩 얻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선정에 들지 않았을 때도 알아차림은 항상 있어야 한다. 이 알아차림을 계속 개발해 나가라.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알아차림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감지하는 능력이다. 그로 인해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지혜가 떠오른다. 특별히 명상에 들지 않더라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보통의 생활을 해가는 중에서도, 아주 작은 일에서라도 문득 문득 알아차림이 일어난다. 우리가 물질과 세상 놀이에 마음을 빼앗겨 살다보면 자신에게 현명한 지혜의 능력이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공연히 쓸데없이 바쁘기 때문에 진짜 보물이 자기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마음만 바쁘게 뛰어다니는 것이다. 마음이 장님이 되어 허영 속에서 날개도 없이 붕 떠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최혜자 지음 / 운주사 펴냄〉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전통과 미래, 그리고 한국불교의 자부심

BTN 불교TV 신규프로그램

더 알차고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불법(佛法)유턴
매주 (월)12:00, 20:30
(토)19:30



죽음에서 배우는 삶
매주 (수)13:00, 20:30
(일)22:50



남을 위해 기도하라 – 자비도량참법
매주 (수)14:00, 22:30
(토)07:30



아름다운 사람들
매주 (수)09:30, 21:30



김지원의 스님, 계십니까
매주 (목)09:30, 21:30



구구절절 주련 이야기
매주 (화)15:30 / (목)14:30
(금)23:25

BTN 채널안내 | olleh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426 호 현대불교
2023년 3월 8일(음 2월 17일) 수요일 / 불기 2567년

자기 주인 자체가 실참이요 실상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항상 한자리를 하고 있지만 또 오늘 새삼스럽게 이렇게 눈동자를 마주치면서 한자리를 하게 됐군요. 이 말은 여러분 앞에 또 한 번 되돌려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할 적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주인공이라고 하는 이름은 고정관념과 고정 행, 고정된 말이 없고 모든 것이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공(空)이라고 했던 겁니다. 색이면서도 공이고 공이면서도 이렇게 보이는 색이 역력하다고 하는 뜻에서 바로 공이자 색이고 색이자 공이라는 소리를 했던 겁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간편하게 공의 뜻을 그대로, 우리는 주인공에서 고정됨이 없는 뜻을 표현할 때 현대에 비교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발전소가 있다면 그 발전소에서 용량대로 용도대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전력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다 자기 용량대로 자기의 용도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안 그럴까요? 이거를 비교해 보십시오. 수천수만 가지로 용도는 많습니다. 전력의 용도도 자기가 쓸 만큼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는 덴 많이 쓰고 적게 쓰는 덴 적게 쓰고, 그릇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발전소에서 나옵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전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용도대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렇게 용도에 따라서 쓰는 걸로 비교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라고 한 것입니다. 고정관념도 없고 고정 행도 없다. 자기가 그릇대로 용도대로 쓰는 것이다. 우리가 숨을 쉴 때에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잠시도 쉬는 사이가 없고, 잠을 자도 쉬지 않고 일을 해도 쉬지 않고, 일어나도 쉬지 않고 앉아도 쉬지 않는 거는 바로 숨 쉬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근본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가발전소는, 인간의 마음의 근본 자가발전소는 원자력의 자가발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자력의 자가발전소는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 등이 합쳐서 나한테 있단 말입니다, 모두 각자 여러분한테.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빛이 나가려면 빛이 나가고, 능력이 나가려면 능력이 나가고, 모든 점에서 광선 또는 자석이, 모든 것에 의해서 밀치려면 밀치고 당기려면 당길 수 있는 그런 용도의, 모든 용량이 거기에 규합돼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광대무변한 보배의 힘을 가지고도 자기가 지금 현재 자기 무명체를 가지고서 쓰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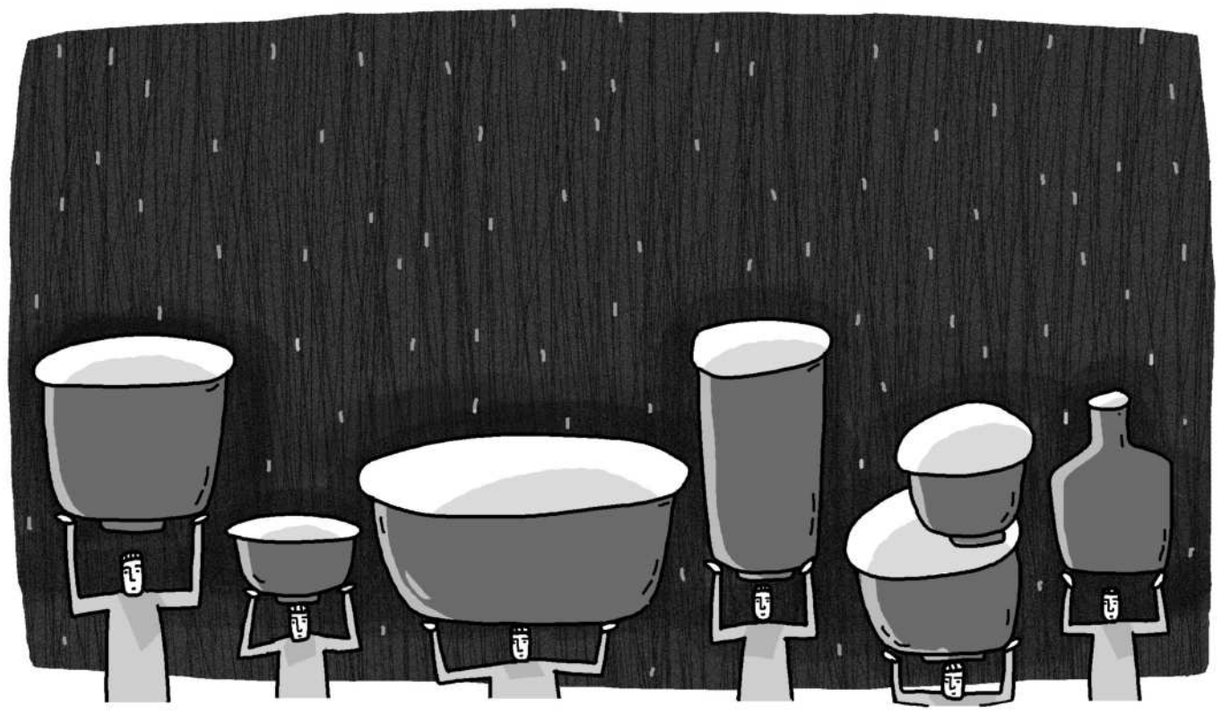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왜 무명체라고 했을까? 금이 빛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광이 나오지 않으니까 무명체라고 한 것이죠. 실상이 되지 못하고 중생이라고 그랬죠. 중생은 중생이로되 금이 빛나듯이 빛이 난다면 으레 남도 충전시켜 줄 수도 있고, 나도 언제나 용량에 따라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성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재차 이런 말을 하느냐. 나는 똑같이는 못 합니다마는 항상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성(自性)의 자가발전소는 꺼진다거나 켜진다거나 하는 언어가 붙지 않는 자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거기서 나오는 거 거기 다 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사람이 사는 데 놓고 어떻게 삽니까? 사랑도 할 수 없고 돈도 가질 수 없고 다 버리게 되면 뭘 가지고 삽니까?" 이러거든요. 누가 사랑을 하지 말랬나, 돈을 갖지 말랬나요? 사람이 누구나가 다 육신이 자기 실참이 아니란 뜻입니다. 자기 주인 자체가 바로 실참이요,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코 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용량을 아주 맛있게 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가정에서나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요거를 했으면 요거 했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놓고 또 딴 걸 합니다. 딴 거 할 때, 전력으로 비유를 했으니 계속 전력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 용량의 기계를 썼으면 그 스위치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꺼야 합니다. 꺼집니다, 쉬니까. 이거를 또 돌립니다. 이거를 돌려서 쓰고 저거를 돌려서 쓸 때, 안방에서 불을 켜고 쓸 때에 거기 사람이 있지 않으면 불을 끕니다. 끄고 사람이 이쪽으로 오면 또 불을 켜고서 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놓고 가는 방법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놓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놓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놓을 수가 없다고 그러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 하고는 돌아서선 딴 거 하면서도, 그거는 놓고 벌써 딴 거 하면서도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난 이상스러워요. 여러분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걸려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백 마디를 해야 하는 일 같은 거 말입니다. 나중엔 결국 터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좋은 빛을 못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놓고 가야 하느냐? 그 용도에 따라서 아까 씀씀이를 쓴다고 했는데 거기는 얼마든지 내 그릇대로 용량대로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기를 지금 쓰고 있듯이. 자기 살림의 차원대로, 생활 수준대로 씀씀이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우리는 그대로 놓고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탑돌이 하는 거와 같습니다, 쉬지 않고 말입니다.

옛날에 아주 불여우같이 만날 남을 해롭게만 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부처님 법을 배워서 선신으로서 아주 충만한 두 사람의 친구가 있었더랍니다. 한 사람은 아주 악으로다 공부를 했고, 한 사람은 선으로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네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이 세상에 또다시 나오게 됐는데 아, 그거는 안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빠져나갔거든요. 악으로다 쓰는 사람 말이에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는 그런 속담 있죠. '한 도둑 열 놈이 지키지 못한다' 는 얘기가 있듯이 말입니다. 재주가 좋아서 빠져나가서 이 세상에 몸을 받아 났거든요.

그런데 옛날의 중국에서는, 중국 땅이라도 나라가 뭐, 연나라니 초나라니 제나라니 한나라니 이런 게 많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같이 태어났는데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는 부잣집에, 정말 여우로서 행동을 아주 나쁘게만 하는 그 친구는 자기가 자발적으로 부잣집으로 태어나게 됐고 하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자에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는 걸 이 사람은 모릅니다. 또 한 사람도 자기가 전자에 그렇게 잘했다는 것을 또 모릅니다. 그랬는데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하니까 하루는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 시절에는 사람이 지금처럼 많지도 않았고 귀한 때였지, 이렇게 많은 시절은 아니었던가 봅니다.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실에 우리가 어떻게 지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떠하며 우리는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나쁜 사람들이 그 왕을 죽이려고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딴 나라의 신하들이 그 왕을 죽이려고 말입니다, 그쪽에서도 사냥을 나왔는데 이쪽 왕을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신하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서로 싸움이 났는데 이쪽 착한 왕이 죽게 됐더랍니다.

그런데 그 착한 여자가 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그때 문득 생각나는 게 '아하! 저 사람은 아주 착하고 이 세상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 22면으로 계속



여러분은 광대무변한 보배의 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 21면에서 계속

는 할 수 있다' 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왕의 칼을 쓱 뽑아서는 그냥 친 겁니다. 그대로 다 무찌르고 다 쫓아 버린 겁니다. 그 여자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손도 말이 아니고 얼굴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니만큼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왕비로 맞기 위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목욕을 시키고 해서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나쁜 여자는 이 왕을 죽이려고 하던 상대 나라의 왕비가 된 겁니다. 그 두 친구,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었던 그 친구가, 다시 여자로 태어나서 왕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대립이 졌습니다. 자기네들도 모르게 대립이 되는 겁니다. 시험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 그렇게 악하게 살던 사람은 또 악하게 그렇게 하고, 선하게 살던 사람은 선하게 남을 구제하고 그러는데 나라가 위태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쪽의 악한 나라의 왕비는 자꾸 임금을 악하게만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쪽 왕비는 선하게만 끌고 갑니다.

그런데 악한 그쪽에서 백지 한 장을 활에다 매어서 보냈단 말입니다. 끌러 보니깐 글씨가 하나도 없어요. 신하에게 다 보여도 이 글자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어느 때 쳐들어온다는 건지 안 쳐들어온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몰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걱정을 하면서 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왕비한테 걱정스러운 듯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지를 제게 좀 보여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했습니다. 왕비는 아주 겸손하고 뭐든지 모르는 척하고 살아요. 알지만 그러한 내색도 없이 했습니다. 남편한테도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영 내비치지도 않게끔 자꾸 다짐을 하고요. 사람이 값싼 데다 쓰는 게 아니라 급할 때 쓰는 것이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신하더러 가지고 들어오라고 해서 부인에게 보였죠. 그 임금은 부인의 말을 100%로 믿고 갑니다, 얼마나 착한지. 이 부인이 참, 보살이죠. 이거는 정말 누구 말마따나 관세음보살이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보더니 "아무개야, 물 한 그릇 떠 오너라." 그러거든요. 물 한 그릇을 넓은 데다 떠 오니까 이 물에다가 이 종이를 넣고 "아주 정성스런 대왕의 피 한 방울이 여기 들어가야만 이 글씨는 보입니다." 하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 피를 정말 넣어서 넣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정성입니다. 내 마음으로 진짜로 믿고 이것을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기 나라의 임금이라면 생명을 걸고 임금 노릇을 해야 돼요. 몸을 사리면 임금 노릇을 못 하죠. 그래서 칼을 가져오라고 해서 자기가 손수 오른손 손날 부근을 잘랐습니다. 조금 해 가지고 한 방울 떨어뜨리니까 그것이 퍼지면서 그 백지, 물속에 넣은 백지 속에서 글씨가 나오되 "이 글자를 못 읽으면 내가 너희 나라를 쳐서 삼키겠노라." 하고 써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백지에다가 아무 소리 없이 그 부인이 '무(無)' 자 하나 썼는데 그것도 보이지 않는 백지예요. "무(無)" 해서 그냥 보냈어요. 그러니 그쪽에서는 쳐들어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글씨를 써서 보내도 문제인데 글씨를 쓰지 않았어도 글씨를 탁탁 알아내고 이걸 답을 했으니, 거긴 의인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칠 수가 있어야지. 아무리 여우 아니라 불여우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있는 도중에, 그 악한 도술이, 그러니깐 여긴 도력이고 그쪽엔 도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영화에 많이 나오겠지마는 예전엔 도술은 육신 무예, 술(術)! 또 마음을 깨달아서 도력으로써 하는 사람은 이 마음으로 하여금 머리를 굴려서 도력이라고 합니다. 정신 무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도력으로써 그렇게 100% 무궁무진한 사람은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고 그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술로써 임금을 죽였단 말입니다. 죽인 게 지금으로 치면 안락사, 즉 도술로다가 죽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냥 죽을 때가 돼서 죽으면 삼중천이나 저런 데 가서 이름이 다 통하는데, 환상천이다 하는 거는, 아직 죽을 날짜가 되지도 않았는데 죽은 사람들은 그런 데 들어가서 이름이 박히지 않고 그냥 거기 몰켜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죽긴 죽었는데 가만히 보니깐,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신하들더러 이 앞뒤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게 해 놓고 자기는 "내가 이 자리에서 몸을 움죽거리지 않고 죽은 거같이 보일 테니까 모두가 장사를 지내자고 하더라도 절대로 나를 장사 지내지 말아 다오." 그러고선 혼백을, 남편의 혼백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백을 찾으러 들어가서, 간단히 얘기하죠.

우리들이 지금 사는 이런 데는 무명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상천을 거쳐서 인천을 거쳐서 삼중천을 거쳐서 보니까 거기 이름이 들어와 있질 않아. 그래서 물었더니 거기에서 일러 주었습니다. 아직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거기 가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즉 환상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환상천에 가서 모든 것을 조사한 끝에 혼백을 찾았습니다.

모든 부처들이 사방천에서도 도와주고 참도리천에서 도솔천에서 한마음이 돼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 혼백을 찾아서 가지고 나오는데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아하, 내가 이렇게 갔다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환상천도 무(無)고 이 무명천도 무다' 이거야. '모두가 무로 돌아가서 내가 직접 이 혼백을 가져오는 것이고, 조끄마한 좁쌀 알갱이 하나만 한 그 원동력이 이 세상을 싸고도 남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거 생도 알았고, 자기가 어떻게 해 나온 것도 알았고, 후일에 어떻게 될 것도 알았고, 나라가 어떻게 될 것도 알았고, 모든 걸 거기에서 비춰 봐서 다 알게 되고 그때에 눈도 뜨고, 즉 말하자면 불가에서 말하듯이 천안통으로 모든 걸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의 혼백을 가져와서 자기도 살고 남편도 살고, 그래 가지고 나라를 일으켜 세우면서 참, 어떻게 행을 했을까?

그분은 몸으로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악하게 하는 사람을, 즉 말하자면 왜, 애들 만화영화 있죠? 만화영화로만 보시면 안 돼요. 그게 현실로, 무전통신기와 광선, 레이저 광선이 있는 거를 보세요. 그게 그걸로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 신하들은 다 놔주고 나쁜 사람들은 다 쳤답니다, 그 부인이 말입니다. 앉아서 그렇게 하고, 삼국을 통일하는 데도 역시 뒷전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나서서도 봐주었다는 얘깁니다. 나중엔 온 데 간 데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은 합니다마는 절로 들어가서 고승이 됐다 합니다.

그때에는 칼이나 창으로 싸우고 했지마는 지금은 어떤 세상이 되었습니까? 공중에서 싸우지 않으면 지금 육군이나 또는 공군이나 해군이나 군부가 있다 하더라도 압도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린 삽시간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논의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마는 다른 어떤 혹성에서도 그럴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도리를 알아야 앉아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죽겠다고 하니깐 여기서 딴 데 있는 사람을 안락사를 시켜서 그 집안이 편안해졌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것은 예전에도 있었던 얘기죠. 수백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여야 할 때에 그건 죽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명만 쳤을 뿐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즉 혼백을 또 다시 내보내서 수련을 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죽여도 살리는 거, 살려도 살리는 거 그렇단 말입니다.

마음이 떠나면 인연이 없다 합니다. 마음이 떠나면 어떻게 인연이 있겠습니까? 인연 없는 중생은 어찌할 수 없다고, 건질 수 없다고 한 것이, 마음에서 떠나면 인연이 없는 겁니다. 구제가 되지 않고요.

또 지금 현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용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지배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도 아주 우리 반쪽을 사이좋게 소련과 더불어 나누어 가진 겁니다. '나는 반을 가질 테니 너도 반 가져라.' 무슨 물건처럼 말입니다. 사탕 반 조각 쪼개듯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 국민으로서 생각한다면 대의적인 생각을 떠나서 국내에서 태어난 국민으로서는 참 처참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또 깨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급하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요령만 알면 된다. 급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용도에 따라서 크면 큰 대로 쓸 수 있고 작으면 작은 대로 쓸 수 있습니다. 육지에서 쓸 거면 육지에서 쓰고, 공중에서 쓸 거면 공중에서 쓰고, 물에서 쓸 거면 물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앉아서 보조를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직접 보조를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여러분이 이 소리를 그냥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모두가 둘이 아닌 그 뜻을 그냥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듣지 마시고 우리 그 잠재의식 테이프에 다 감긴 그것이 착 나오는 대로, 저 스크린 돌아가듯이 나오는 그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기가 처참하게, 나와 더불어 같이 걸어왔나를 여러분이 잘 아신다면, 누구를 보고 그냥 악하게 할 수가 없고, 누구를 보고 남이라고 할 수도 없고, 누구를 보고 때릴 수가 없고, 누구를 보고도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무지렁이같이 그냥 순해 터진 양처럼 그렇게 사느냐? 아닙니다. 요만한 거 하나, 싸래기 반토막 하나 에누리가 없이 살면서도 그렇게 선명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만 가지 맛이 나도록 말입니다. 과일이 만 가지 맛이 난다면 만 가지 향내도 날 것이고 또 무르익는다면 여러분이 전부 말없이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제 나무에서 제 과실이 열리게 해서 무르익게 해서, 바로 자기가 맛을 본다면 그 과실 하나에서 맛이 만 가지가 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산에 가면 산 맛이 나고 들에 가면 들 맛이 나고 꽃을 보면 꽃 맛이 나고 죽은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꽃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무하고도 얘기하고, 벌레하고도 얘기하고. 죽은 사람들 전체, 전부와 얘기할 수 있어야 회전이 되고 말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앉아서 뭘 어떻게 하든지 하죠.

그래서 모습 없는 모습들이, 수천수만이 이 허공에 수없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천도재도 생긴 것이죠. 날짜가 되지 않았는데도 천도재를 해서, 이를테면 재판받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님의 예수재를 지내드리고 또 천도재도 지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는 공부하다 조금만 뭐해도 어떤 분들은 잘못됐다고 관음시식을 지내드리고 이러는데 그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소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눈을 맞대고, 이마를 맞대고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수억겁 전 년에도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석존이 여기 계시다 할지라도…, 왜 멀리 두십니까? 내 주인공 하면 그 속에 석존이나 일체제불이 다 계신 것을, 일체 조상들이 다 계신 것을 구태여, 왜 멀리 바깥으로 내놓고선 찾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잘 깊이깊이 생각하셔서 기복을 떠나시면서 자성, 자신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7년 3월 15일 정기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기 살림의 차원대로, 생활 수준대로
씀씀이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대로
우리는 그대로 놓고 지금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놓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까.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 품 구 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 품 구 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 품 구 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현불논단 |

정운 스님
동국대 강사



최상 인격의 경지, 열반

음력 2월 15일은 부처님 열반재일
열반, 죽음 아닌 번뇌가 없는 상태
'대반열반경'엔 인간적 풍모 보여줘

마지막 공양 올린 춘다를 위한 변호
"최후 보시한 공덕은 매우 수승하다"
만찬서 유다 저주한 예수와는 차별돼
마지막 순간까지 중생 연민이 담겨

음력 2월 15일은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재일이다. '열반'은 죽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불어 끈다(吹滅)'는 뜻으로 번뇌의 불길이 꺼진 고요한 상태, 즉 최상의 경계를 말한다. 부처님의 열반 당시를 잘 묘사해 놓은 경전이 있는데, 〈대반열반경〉이다. 〈대반열반경〉은 장아함 2권~4권에 해당하며, 부처님께서 만년에 열반할 때가 되었음을 알고 영취산을 출발해 코티 마을~나다카 마을~상업도시 베살리~입멸 장소인 쿠시나가라에 도착해 열반할 때까지의 여정을 그대로 묘사한 경전이다. 이 경에서 부처님의 인간적인 풍모가 드러나 있는데, 내용을 보기로 하자.

부처님께서 베살리를 지나면서 아침 일찍, 발우를 들고 마을로 탁발하러 나갔다. 베살리 마을을 돌며 탁발 공양을 마치고 마을을 나오면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부처님께서 마치 코끼리가 사물을 바라보듯 지긋이 베살리 마을을 돌아보며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나는 늙고, 몸이 많이 쇠하였다. 아난아! 나의 육신은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 끈에 의해 매여 있는 것처럼 겨우 움직인다.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할지라도 이별하고 헤어지는 때가 있느니라.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 머지않아 여래는 열반에 들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 여래는 열반에 들 것이다."

이렇게 쿠시나가라로 향하는 과정 중에 파마 마을에 도착한다. 부처님께서 마을의 대장장이 춘다의 소유지인 망고 동산에 머물고 계셨다. 춘다가 부처님께 공양청을 하여 제자들과 함께 춘다의 집으로 갔다. 춘다는 부처님께 스카라 맛다바라는 공양을 올렸다. 부처님께서 공양을 드신 후, 피가 섞인 설사를 계속하셨다. 병이 조금 차도가 있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쿠시나가라로 향해 출발하자고 말씀하셨다.

이후 부처님과 제자들이 쿠시나가라로 향해 가는 동안 부처님은 여러 제자들을 모이게 한 뒤 교단을 염려하고, 마지막 진리를 설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공양을 올린 춘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난아, 여러 비구들이 '춘다가 올린 공양을 드시고 부처님께서 입멸했다' 고 비난할지도 모른다. 아난아, 춘다에게 이런 비난이 쏟아진다면, 춘다에게 이렇게 위로하여라. '춘다여, 조금도 후회할 것 없소. 당신이 올린 최후 공양을 드신 뒤 부처님께서 입멸하셨다는 것은 당신에게 경사스러운 일이오. 부처님께 최후로 보시한 공덕은 다른 어느 때 공양보다도 매우 수승한 공덕이오. 그 공덕과 복덕이란 장수하며, 다음 세상에 좋은 세계에 태어나고, 안락을 누리며, 명예를 얻고, 천계에 태어날 수 있는 복덕이다.' 아난아, 이렇게 춘다를 위로하고 변호해 주어라."

아무리 위대한 성자이지만, 당신을 죽음으로 내몬 사람에게 쏟아질 비난까지 염려하고 있는 분이 부처님이시다. 미국 철학자 월터 카우프만(1921~1980)은 부처님의 최후 식사와 예수의 최후 만찬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

"부처님은 대장장이 춘다가 만들어 준 음식을 맛있다며 고마워 하셨다. 또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춘다의 공양으로 인해 여래가 열반에 들었다' 고 춘다를 비난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예수는 최후의 만찬에서 12인의 제자 중 한명인 유다를 저주하며 '사람의 아들을 배반한 그 사람은 분명히 화를 입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마태복음〉)' 라고 하였다."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에서도 아버지가 자식 걱정하듯 모든 중생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다. 다른 종교는 교주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지만, 불교는 부처님 열반을 기준(佛紀)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최고의 완성, 그리고 최상의 인격을 갖춘 분이기 때문이다. 바로 열반!

社 說

'약사여래불'될 부다가야 보건소

"만일 누군가 내게 공양하고 과거 모든 부처님께 공양한다면 내게 베푼 그 복과 덕은 병자를 돌본 것과 다름이 없으리."

〈증일아함경〉에 나타난 부처님 말씀이다. 부처님은 병자를 잘 간호하고 치료를 돕는 것은 대단히 큰 공덕을 쌓는 일이며, 병자를 돌보는 것 자체가 마치 부처님을 간병하는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고 하셨다.

전국비구니회와 백천문화재단의 원력으로 2월 27일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에 보건소가 개원했다. 의료사각지대에 처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보살필 보건소의 개원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병자를 돌보는 큰 공덕을 쌓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보건소 개원은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불교 세계화를 염원하며 불교중흥의 발판이 될 거룩하고 역사적인 분황사가 건립되면서 시작됐다. 지역 공헌을 고심하던 중 지역주민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보건소 건립을 추진했다.

운영을 맡게된 전국비구니회는 지역민들의 열망을 반영, 지역 청소년들의 방과 후 수업을 지원하고 여성들의 취업훈련과 문화공간, 도서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용도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추후 한글학교와 재봉, 사찰요리 교실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작은 원력 하나가 희망의 씨앗이 되고 뭇 생명들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의 자양분으로 자라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부다가야 보건소가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는 장소이자 지역주민들을 위한 약사여래불이 되길 희망한다. 부처님 자비 광명이 온 누리에 비춰 모든 생명이 건강하길 기원한다.

남북 교류 물꼬, 불교가 트자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에 맞춰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가 남북한 평화기원대법회를 봉행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민추본이 2월 28일 발표한 올해 사업계획에 따르면 민추본은 오는 6월 초 임진각에서 '정전협정 체결 70년 전쟁종식 평화기원 대법회'를 봉행한다. 기념법회는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 구축을 촉구하기 위한 불교계 실천적 노력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법회에 앞서 민추본은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민추본은 3~5월을 평화기원기도 주간으로 정하고 평화기원 행사도 진행하며 평화기원 동시 타종, 연등회 문화마당 평화부스 운영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전 70주년 평화기원 금강산 평화순례길 걷기도 열린다. 2021~22년 스님들의 금강산 순례길을 조명, 발굴하기 위한 금강산 평화순례길 연구사업의 성과를 이어 순례길을 일부 걷는 시범행사로 진행된다. 올해 하반기 고성 접경지역에서 추진될 예정이며 관련 학술토론회 등 다양한 부대사업도 열린다.

이밖에도 남북불교 교류 최대 성과로 평가받는 금강산 신계사 복원 16주년을 기념하는 온라인 e-book 사진전을 비롯해 북한 지역 일제강점기 8대 본산 관련 문헌조사, 남북불교 교류 대표회담 등이 추진된다.

통일 사업은 인내를 바탕으로 한다. 우리가 통일을 위한 인내를 감내하는 이유는 통일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정전 협정 70주년을 맞는 올해 계묘년은 남북 교류의 재개를 알리는 해가 되길 바란다. 이에 대한 물꼬를 불교계가 추진하는 일련의 통일 사업들이 텄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원력이 가진 강인한 에너지

싯다르타 태자의 출가 소식은 이웃나라까지 알려졌습니다. 하루는 빔비사라왕이 숲 속에서 명상에 잠겨있는 싯다르타를 찾아왔습니다.

"태자가 출가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놀랐소. 태자처럼 젊고 기품 있는 사람이 사문이 되어 고생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까운 일이오. 나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이 어떻겠소. 마음에 드는 땅을 드리고 편히 살 수 있도록 해 드리겠소."

그러나 싯다르타 태자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이미 세상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출가한 몸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목적이 있어 출가를 하셨소?"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내 자신과 이웃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이룰 수가 있겠소?"

"되고 안 되고는 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까지 죽어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고타마 태자는 6년의 고행 끝에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깨달음을 이루었고, 부처님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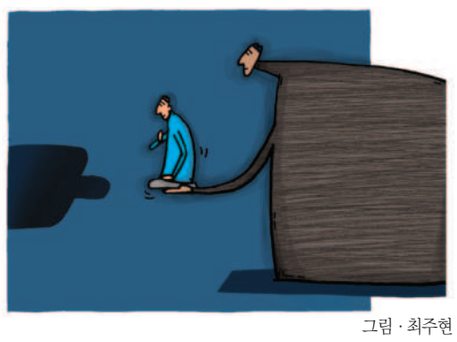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사람들아 원력을 가져라. 그대가 현명하다면 용기를 잃지 말라. 바라던 목적을 성취한 지금의 나를 보라. 사람들아 원력을 가져라. 그대가 현명하다면 용기를 잃지 말라.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해안에 도달한 나를 보라.

그대가 현명하다면 비록 역경에 처했더라도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는 말라.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피안에 도달한 나를 보라. 명 선장은 거센 파도에 도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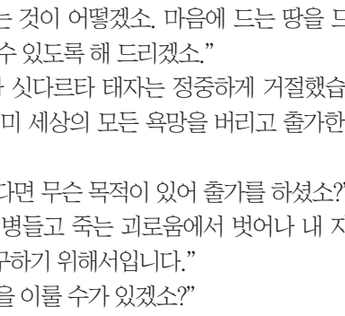
원력은 내 마음속의 소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되겠다는 마음속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이야 말로 나만의 것이요 나의 몫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 는 부처님의 소원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세우지 않은 목표입니다. 부처님의 도전에 사람들은 의문을 품었지만 "되고 안 되고는 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까지 죽어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불퇴전의 정신으로 이루었습니다.

원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는 한 인생은 결정 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역경이라도 극복하겠다는 자세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원력은 역경을 기쁨으로 만들어 낼 수는 강인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지장사 회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New 어싱 접지 슈즈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특판가 : 65,000원(배송비 포함)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어싱슈즈 블랙그레이
Hit 수행화 특판가 : 45,000원(배송비 포함)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 아제여행사와 함께 하면 다릅니다

현대불교문화사업단
2023 불교국가 투어

행복지수가 높은 히말라야 부탄 순례 7일
화엄경을 재현한 보로부두르 대탑과 발리섬 7일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 문화탐방과 휴양 8일
초원의 나라 몽골 5일

희망찬 새해 기운을
부처님 품안에서 느끼시길 바랍니다



히말라야 부탄 순례 7일

출 발 : 4월 9일~15일
동참금 : 4,390,000원

주요일정
파드마 삼바바 수행동굴 탁상사원 참배
3대쫑(파로,팀푸, 푸나카) 방문
민속공연 관람, 링포체 친견



보로부두르 대탑과 발리섬 7일

출 발 : 4월 29일
동참금 : 2,690,000원

주요일정
자카르타 국립박물관 방문
보로부두르 대탑 참배
자바섬 주요 불교사원 참배
신들의 섬 발리 휴식



스리랑카 문화탐방과 휴양 8일

출 발 : 3월 23일
동참금 : 2,690,000원

주요일정
입상·좌상·와상의 길비하라 폴론나누와 참배
세계8대불가사의 바위위의 궁전 시기리아락 방문
스리랑카 아프리카 코끼리 사파리 투어
홍차의 메카 누와라엘리아 체험



초원의나라 몽골 5일

출 발 : 6월 15일
동참금 : 1,390,000원

주요일정
아름다운 국립공원 테를지 관람
목초지 트래킹 밤하늘 별빛 감상
울란바타르 간덴사원 몽골불교체험
몽골전통공연 관람

현대불교문화사업단 02)2004-8213, 730-4008 (주)케이투어 아제여행 불교성지순례&특수지역전문 ajetour.co.kr